

12. 2화 + 0
2화 17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 04





올해로 네 번째, 길지 않은 역사지만 충실한 프로그램과 역량 있는 아티스트, 다양한 부대행사로 'SSF'는 음악 마니아부터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서울시 곳곳에 마련된 공연장으로 관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12



2006년부터 시작된 플랫폼 프로젝트가 1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2009년 첫 선을 보이는 플랫폼 2009의 아트선재센터의 전시 광경은 이렇듯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미감을 보여주는 두 작가, 배영환과 최정화의 프로젝트로 그 문을 열었다.

54



밀양백중놀이 예능보유자 하용부가 프랑스 파리 세계문화의 집 주최로 열리는 2009 상상축제에 한국을 대표하여 초청되었다. 무대 위에서 한없이 가볍고 자유로운, 춤추는 사람 하용부를 만났다.

76



COVER STORY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곳곳이 피어나는 봄꽃처럼, 어렵다는 편견 속에서도 4년째 우리 곁에 찾아온 2009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조금 더 알고 즐기면, 더 많은 즐거움이 되는 매력적인 실내악 이야기를 미리 만나보자.

Contents

- 02 IMAGE SEOUL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009
- 06 CULTURAL NEWS 4월의 공연전시 소식
- 10 COLUMN 실내악, 클래식 세계로 안내하다

4월의 문화+서울

- 12 서울에서 만나는 실내악 여행, 2009
- 16 미리 만나는 2009 SSF 얼굴들, 그리고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
- 30 한국의 실내악,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에 가는 기대

다시 보는 서울

- 34 이경민의 경성 산책 구보 씨, 동물원 구경 가다
- 42 6人6色의 서울 리서치 보이지 않는 도시, Under-Seoul City에 대한 짧은 보고서

지금 서울은

- 50 HOT SKETCH 기형도의 도시, 도시의 지형도
- 54 HOT SKETCH 플랫폼 2009, 삶과 예술을 엮는 첫 단추를 꿰다
- 60 HOT SKETCH 내 나이 마흔에는... 무엇을 꿈꿀까?—성미산 마을극장 개관 기념 공연
- 64 EMERGING SPACE 디자인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디자인갤러리D+
- 70 문화를 나누는 손 인내심이 문화를 기른다-대산문화재단 곽효환 사무국장 인터뷰

사람과 사람

- 76 FOCUS INTERVIEW 세계인의 가슴을 두드려다-츨곤 하용부
- 80 YOUNG ARTIST 2009 음악의 열정에는 벽이 없다-유티브 심포니 단원으로 선발된 이수정·김대식

서울 안과 밖

- 86 OPEN REPORT_서울 너머로 시의 봄비에 젖는 미국의 4월-4월 한 달간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시의 향연으로의 초대
- 90 I AM SEOULITE Life in Seoul is Never Boring
- 92 OPEN REPORT_서울 속으로 당신 가정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 커플들의 '사랑' 이야기로 따뜻한 봄을 노린다
- 94 문화 캘린더
- 96 재단소식
- 101 독자엽서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 발행일 2009년 3월 25일 | 등록일 2005년 6월 8일 | 발행인 안호상 |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130-823)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 홈페이지 www.sfac.or.kr
디자인 · 제작 AGI Society 김태혁 02.3141.9902 | 사진 AGI Studio 손승현, 한금선, 정강, 천현정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의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04 vol 26

IMAGE SEOUL

SSF 2009

Seoul Spring Festival of Chamber

생동감이 넘치는 파아란 하늘의 봄에는 악기의 어울림이 짝이다.

흐드러지는 꽃과 막 피어나는 새싹의 싱그러움에 음악의 열정이 묻어나는 듯하다.

화려한 기교의 독주, 웅장한 관현악과 오페라를 즐기는 당신에게

약간의 긴장과 집중이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거듭나는 실내악의 매혹을 전하고 싶다.



Music 2009







Seoul Spring Festival of Chamber Music 2009

푸르름을 간직한 싱그러운 초록이면 좋겠다.

따사로운 햇살이 많을수록 좋겠다.

크고 작은 근심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감동을 가져가면 좋겠다.

선율을 따라 몸이 움직이면 좋겠다.

그들의 작은 손놀림에 눈물이 흘러도 좋겠다.

그냥 마음의 작은 일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농염함이 묻어나는 실내악,

그래서 실내악을 클래식 의 가장 내밀한 과육이라고들 하나보다.

알아 갈수록, 맛볼수록, 즐길수록 궁금해지는 실내악의 매력,

2009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39일간의 여정이 시작되다

제30회 2009 서울연극제

(The 30th Seoul Theater Festival)



올해로 30회를 맞는 서울연극제가 4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략로 아르코예술극장과 아르코시티극장, 예술의전당 등지에서 펼쳐진다. 1977년 '대한민국연극제'로 출발한 서울연극제는 우리 연극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축제로, 해마다 한국 연극을 대표할 만한 작품을 선보이며 29회까지 총 290개의 작품이 참가하였다. 2009년에는 3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서울연극제를 통해 공연한 작품 가운데 9편의 작품을 엄선해서 선보인다. 개막 공연인 〈나는 피카소를 사랑합니다〉는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무대에 오르며, 자세한 내용은 신시뮤지컬 컴퍼니(02-577-1987)로 문의하면 된다.

일정 2009. 4. 16~5. 24

장소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 소극장,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자유소극장, 아르코시티 소극장

주최 서울연극협회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연극협회

남산자락을 물들이는 화려한 빛의 향연

남산 빛의 박물관 프로젝트

서울시에서 추진한 '빛의 박물관 프로젝트'는 N서울타워가 위치한 남산의 정상 부근과 N서울타워에 세계적인 디지털 예술조명 작가의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남산공원 및 N서울타워를 첨단 디지털 예술을 활용한 특색 있는 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였다. 이를 통해 N서울타워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넘어 자연과 예술, 문화와 공연, 조명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남산 N서울타워의 예술 조명 레이저 쇼는 매일 밤 시연 중으로, 남산 팔각정 광장 및 N서울타워에서 화려한 빛의 예술을 만나볼 수 있다. 광장 바닥에 안개가 연출되면서 컬러 레이저 쇼가 펼쳐지고, N타워 기둥 전면에는 프랑스 조명예술가 알렉산드로 콜린카의 '일렉트로닉 파이어'가 불과 물의 형상 및 다양한 이미지를 역동적이고 화려하게 선보인다. 광장 상공에는 프랑스 작가 세드릭 르 보르뉴의 '빛의 영혼'이 설치돼 밤하늘의 황홀감을 만끽할 수 있다. 알루미늄과 고보조명(작품의 실루엣을 잘 살리는 특수 필터 사



일정 ~2009. 12. 31

장소 남산 팔각정 광장 및 N서울타워

문의 남산공원 관리사무소 02-3783-5961

용 조명 방식)을 사용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반갑게 양손을 벌리고 한 손을 내밀어 기쁨을 표현하는 형상을 보여준다. N서울타워 '일렉트로닉 파이어' 예술 조명 쇼는 동절기(11월~이듬해 2월)에는 오후 6시~10시까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후 7시~11시까지 매 시간 정각부터 10분간 펼쳐지며, 팔각정 광장 레이저 쇼는 같은 기간 매 시간 30분부터 10분간 진행된다.

작품명	일정	장소	문의
1 길 떠나는 가족	5.18~5.23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문화기획 연 02-745-0334
2 불날	4.22~4.28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투비컴퍼니 02-744-7308
3 불가불가	5.09~5.15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극단 씨실 017-287-6121
4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4.25~5.10	아르코시티 소극장	목화레퍼터리컴퍼니 02-745-3966
5 아름다운 남자	5.18~5.24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연희단거리패 02-763-1268
6 이런노래	4.29~5.06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극단 골목길 02-6012-2845
7 풍금소리	5.01~5.06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공연제작센터 010-3210-4502
8 한스와 그레텔	5.09~5.15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극단 창파 016-9332-7087
9 흥가에 별들여라	5.07~5.17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극단 인혁 02-923-7888

국악으로 남산에서 놀다

서울남산국악당의 <봄날의 국악여정>

서울남산국악당에서는 3, 4월 요일별 상설공연 <봄날의 국악여정>을 선보인다. 2008년 3월부터 국악계의 명인을 초청하여 품격 있는 공연을 만들어온 국악당의 이번 레퍼토리는 '봄'. 수요일 상설공연 화란춘성(花欄春盛)은 무용, 기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요일 상설공연 '만화방창(萬化方暢)'은 성악과 기악이 중심이 되는 국악 음악회다. 국악인의 흥과 멋으로 남산자락을 물들이고 있는 이번 <봄날의 국악여정>은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담아내는 한편, 국악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향후 서울남산국악당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문의 서울남산국악당 02-2261-0513~5

예매 세종문화회관 02-399-1114~6, 인터파크 1544-1555

1 봄날의 국악여정 -수요일 상설공연 '화란춘성(花欄春盛)'

일정 2009. 3. 11~4. 22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2 봄날의 국악여정 -금요일 상설공연 '만화방창(萬化方暢)'

일정 2009. 3. 6~4. 24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3 봄날의 국악여정 -토요일 상설공연 '남산에서 놀다'

일정 2009. 3. 7~4. 25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45명의 거장들을 카메라에 담다

<인물 사진의 거장, 카쉬>展

이번 <인물 사진의 거장, 카쉬>展은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4,000여 장의 카쉬의 작품 중 총 90여 점의 작품을 엄선했으며, 그중 백미는 20세기의 역사적 인물들로 구성된 다양한 초상 사진이다. 윈스턴 처칠의 카리스마와 버나드 쇼의 풍자적인 표정, 피델 카스트로의 강렬한 눈빛, 아인슈타인의 장난기 있지만 고뇌가 엿보이는 얼굴, 극명하게 질감 묘사된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얼굴, 눈을 지그시 감은 오드리 헵번의 섬세한 얼굴선 등 이름만 들어도 친숙한 45명 거장들의 생생한 표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각 인물의 일대기와 카쉬가 직접 기록한 촬영 당시의 에피소드를 함께 전시해, 미술과 문학을 접목한 색다른 전시 형태를 선보이고 있다.

일정 2009. 3. 4~5. 8 /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문의 02-3471-8956

전통과 하이테크의 새로운 어울림 4월 말, 프라다 트랜스포머 서울 상륙

세계적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기획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프라다의 '트랜스포머(Prada Transformer) 프로젝트'가 4월, 서울에 상륙한다. 프라다 트랜스포머는 세계적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와 그가 이끄는 건축사무소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가 설계한 육면체, 십자형, 직사각형 및 원형이 결합한 4면체 철제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말 경 희궁 내에 개관하여 9월 말까지 전시, 영화, 공연 등 장르를 넘나드는 획기적인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트랜스포머는 변형시킨다는 뜻(transform)처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문화 행사에서 철제 구조물이 각각 그 모양을 바꾸며 새로운 디자인의 건축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5개월 동안 회전형 건축물 내에서 독특한 크로스오버 시각 예술 패키지를 선보일 이번 프로젝트의 첫 행사는 4월 25일 진행되는 설치 작품전 <웨이스트 다운(Waist Down) -미우치아 파라다(Miuccia Prada)의 스커트>로 프라다 최초의 패션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스커트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다. 프라다 그룹 및 프라다 트랜스포머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토마스 갈리(Tomaso Gali) 부사장은 "서울은 전통과 최첨단 하이테크(첨단 기술)가 공존하는 트랜스포머 프로젝트 최적의 장소"라고 밝히며, 경희궁이라는 전통문화의 상징과 다면체의 공간을 배치해 서로 다른 2개의 문화가 결합하는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www.pradatransformer.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9, 상상마당이 소개하는 떠오르는 신예작가

<서교육십 2009 : 인정게임>

(Seogyo Sixty 2009 : The Game for Respect)

<서교육십>은 매년 초 미술계에서 주목할 만한 신예작가를 추천하여 소개하는 상상마당의 기획 그룹전이다. 2009년은 '인정게임'이라는 주제로 미술계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기획자, 비평가, 갤러리스트 등 현장 전문가 60인을 선발하여 이들이 추천하는 신예작가들로 전시를 구성한다. 독특하고 신선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성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행사명	장소 및 문의
4. 10 (금) 오후 6시	2부 오프닝 행사	2F 갤러리(02-330-6223)
일시	행사명	장소 및 문의
4. 25 (토) 오후 4시	작가 세미나	2F 갤러리(02-330-6223)
서교광장		전시 전체 개요와 참여작가 60인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다.
도슨트 프로그램		토·일요일 오후 5시(서교광장에서 시작)

일정 Part 1 : 2009. 3. 7~4. 5 / Part 2 : 2009. 4. 10~5. 10

장소 KT&G 상상마당 1·2·3F

문의 02-330-6223



김승연 <아들의 날개> 혼합재료, 가변, 2009



이재훈 <Unmonument-이것이 현실입니까>
Fresco, 180x140cm, 2008



사타 <SaTARLIT> Digital C-print,
60 X 90c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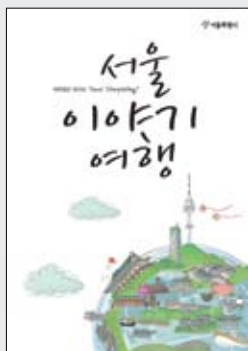
서울시, 국내 최초로 노인을 위한 ‘실버영화관’ 개관

서울시는 최근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이에 비례한 노인들의 문화 욕구에 반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지난 1월 21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노인영화관을 개관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은 대부분 소규모 객석의 복합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젊은 층 위주의 공간 배치와 상영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다. 또한 과거의 추억이 묻어 있는 고전영화에 대한 향수와 새로운 영화에 대한 관람 욕구가 있으나, 노인들이 이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종로 허리우드 극장에 300석 규모의 단관 형태로 개관한 실버 영화관은 이용 노인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하루 3회에 걸쳐 노인들이 선호하는 영화를 선보이고 있다.

교통안내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 5번 출구(낙원상가 4층)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낙원상가 4층)

서울의 관광 명소, 이야기로 색을 더하다

서울 명소 64곳을 담은 《서울 이야기 여행》 발간



고종황제가 커피를 즐겼던 덕수궁 정관헌, 해마다 가을이면 낙엽을 쓸지 않는 길로 지정된 정동길, 천재작가 이태준의 집필 장소인 수연산방에서 신당동 떡볶이와 장충동 족발거리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 위치한 역사, 문화 유적지와 그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소개한 특별한 책이 나왔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었던 서울에 관한 매력 넘치는 이야기 64편이 들어 있는 《서울 이야기 여행》. 이 책은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과 같은 문화 유적은 물론 젊은이들에게 각광받는 홍대 플리마켓,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길상사와 수연산방 그리고 장충동 족발에서 마포갈비까지 서울의 모든 것을 발굴해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를 손쉽게 연결하는 지하철을 기본 이동수단으로 정해 노선에 따라 관광지를 분류하고 있으며, 관광 명소의 생생한 사진은 물론 이용 시간, 관람 요금 등의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영화 <달콤, 살벌한 연인>

로맨틱 뮤지컬로 다시 태어나다

2006년 최고의 흥행 영화 <달콤, 살벌한 연인>을 원작으로 한 로맨틱 뮤지컬 <마이 스케어리 걸>은 예기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되는 수상한 여인 미나와 그녀를 사랑하게 된 남자 대우가 이어가는 예측 불허 러브 스토리를 통해 사람이 사랑으로 인해 겪는 변화, 관계 이면의 숨어 있는 진실과 의외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BSC(베링턴스테이지컴퍼니) 시어터랩,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 국내외 실험무대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한 작품이다. 대학 영어강사 황대우 역에 신성록, 김재범, 이미나 역에 방진희, 손현정 등이 출연한다.

일정 2009. 3. 3~5. 17

장소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문의 02-2230-6624~6

실내악, 클래식 세계로 안내하다

“교향악도 듣고 오페라도 듣다가 맨 나중에 듣게 되는 것이 실내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냥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즐긴다는 의미로 말이다. 실제로 클래식을 즐기는 많은 팬들도 실내악은 생소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내악의 매력을 접하고 즐기게 되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클래식만의 새로운 세계가 어느새 귀와 가슴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글 | 전상인

연세대학교 정외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사회문화론', '도시사회론'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조직위원으로 있다. 저서로는 《우리 시대 지식인을 말한다》 《한국 2030》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등이 있다.

“실내악은 ... 어렵다”는 편견과 선입관이 널리 퍼져 있다. 클래식 음악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데 실내악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다. 댄에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실내악 애호가는 고전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름의 차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음악 자체의 정수(精髓)를 즐기면서도 나름의 문화적 품위와 사회적 격조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서양 음악의 한 장르로 실내악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세기 바로크 시대로써 이탈리아의 ‘무지카 다 카메라(Musica da Camera)’가 시초였다. 하지만 실내악의 본격적인 유행과 발전은 18~19세기 귀족사회가 배경이다. ‘Camera’는 방(房) 또는 실(室)을 뜻하는 이탈리아어고 이를 영어로 옮기면 ‘Chamber’가 되기에 오늘날 실내악은 ‘체임버 뮤직(Chamber Music)’으로 통용되고 있다. 실내악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실내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다. 하지만 그 반대 개념으로 실외 음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음악이 교회나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주로 연주되었다면 실내악은 왕궁이나 귀족의 저택처럼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적 공간을 무대로 삼는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실내악은 야외에서 연주될 수도 있다.

실내악은 한마디로 작은 앙상블(ensemble)을 위한 기악 합주곡이다. 보통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 위주로 편성되나, 때로는 피아노가 함께하기도 하고 목관이나 금관악기가 동참하기도 한다. 실내악의 편성은 가장 작은 조합인 2중주(duo)부터 3중주(trio), 4중주(quartet), 5중주(quintet), 6중주(sextet), 7중주(septet), 8중주(octet), 9중주(nonet) 등 매우 다양하며 가장 규모가 큰 실내관현악단(chamber orchestra)도 있다. 실내악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독주자나 지휘자가 없다는 점이다.

실내악의 이러한 구조적 형식 때문에 실내악의 매력 이 발현되기도 하고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확실히 실내악은 다른 클래식 장르에 비해 좀 더 많이 긴장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우선 소수의 인원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음량이나 화음 면에서 실내악은 드라마틱한 표현 수단으로서는 열세인 편이다. 그러므로 관현악이나 오페라에 비해 실내악 관객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음악 본연의 예술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실내악이 종종 어렵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실내악을 통해 클래식 음악 전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저력과 내공을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은 연주자에게도 비슷하다. 실내악에서는 한 가지 성부(聲部)를 한 명의 연주자가 담당하며 독주와 반주라는 주종 관계도 없다. 중요한 것은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주적인 합주이며, 그만큼 실내악은 연주자끼리 서로 음악적 기량을 배우고 연마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가령 강동석이 바이올린을 갈라미안에게, 그러나 음악은 실내악에서 배웠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의미다. 요컨대 실내악은 연주자와 관객, 그리고 연주자 간의 내밀한 공감과 인격적 유대를 지향하는 일체형 음악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실내악의 진미는 오디오(audio)가 아니라 단연 라이브(live)다.

사실 서울은 전 세계에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도시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그 위상에 걸맞은 클래식 음악 무대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실내악 불모지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런 점에서 요 몇 년 사이 서울에서 실내악이 대중적 인기를 크게 높여가는 현상은 문화도시 서울의 면목을 살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 반갑다. 더군다나 그것이 문화 권력이나 문화 산업과 같은 세속적 동기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의 프로슈머(prosumer) 시대 내지 문화의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값지고 귀하다. 이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 행정, 문화 생산자와 문화 소비자의 수평적 결합, 그리고 문화 시민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가능해진 매우 뜻 깊은 ‘문화 혁명’이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4월의 문화+서울
서울에서 만나는
실내악 여행.
2009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서울에서 만나는 실내악 여행

2009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4월의 문화+서울
서울에서 만나는
실내악 여행,
2009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꽃샘추위가 가고 화사한 봄웃이 생각날 즈음이면 늘 있는 일이다. “팀장님, 서울스프링 언제죠? 날이 따뜻해지면 서울스프링 생각이 나면서 궁금해지네요.” 기자들에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이하 SSF)’라는 정식 명칭보다 ‘서울스프링’으로 통하는 ‘SSF’는 이렇듯 공연계의 한 해를 시작하는 대표적 행사로 이미 자리매김했다. 올해로 네 번째, 길지 않은 역사지만 충실한 프로그램과 역량 있는 아티스트, 다양한 부대행사로 ‘SSF’는 음악 마니아부터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서울시 곳곳에 마련된 공연장으로 관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모차르트의 고향이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되었던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매사추세츠의 작은 지역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성장한 탕글우드 페스티벌 같은 세계적인 음악축제를 만들고자 각계각층 문화 애호가들이 힘을 모아 탄생시킨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올해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규모가 큰 해외 초청 공연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미뤄진 상태이다.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다수의 음악가들이 주축이 되어 해외의 유명 연주자들과 조화로운 무대를 선보이는 ‘SSF’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 행사로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실내악은 어렵고 사람들이 외면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에 큰 몫을 하고 있는 ‘SSF’는 오는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세종체임버홀, 예술의전당, 덕수궁, 구로아트밸리, 영산아트홀 등의 다양한 공간에서 메인 프로그램과 해외 유명 아티스트 초청 공연·음악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전년도와 골격을 유지하면서 더욱 다양한 기획물을 준비하고 있다. 2009년 SSF의 타이틀인 ‘베토벤과 함께 시련을 넘어 희망으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올해에는 세 팀의 현악사중주단(‘주피터’, ‘시네 노미네’, ‘에벤’)을 초청하여 음악 축제로는 최초로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를 선보인다. 작곡가로서는 치명적인 청각장애를 딛고 ‘음악의 성인’이라 추앙을 받게 된 베토벤이 인생 전기에 걸쳐 쓴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는 음악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3번의 베토벤 현악사중주 연주 시리즈를 비롯하여 매일 한 곡의 베토벤 현악사중주 작품과 그와 관련된 작품들을 일별 프로그램으로 꾸며 축제 전체를 통해서 베토벤이 남긴 위대한 실내악 음악의 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이든 서거 20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로 ‘십자가상 칠연’을 현악사중주 편성으로 기획했고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도 준비했다.

2009년에는-전년도 손목 부상으로 공연이 취소되었던- 이색 클래식 퍼포먼스 듀오인 주형기&이구데스만의 공연이 시선을 끈다. 다양한 클래식 명곡을 코믹한 퍼포먼스로 재해석하여 유튜브 최고의 음악 스타로 등극한 그들의 공연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지도 불러모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외에도 작곡가 진은숙의 작품을 국내 초연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바이올리니스트 비비아네 하그너, 아버지 예후디 메뉴인의 뒤를 이어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제레미 메뉴인이 부인인 무키 리와 내한하고, 국내 팬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슬로모 민츠 등의 연주자가 초청 리스

트에 올랐다. 또한 매년 음악계의 블루칩을 선별해서 ‘영 제네레이션 아티스트’ 연주회를 준비하는 ‘SSF’는 올해에도 안나 리(Vn) 조성진(Pf), 이화윤(Va), 조민석(Vc), 성민제(Db), 예종 현악사중주단의 젊고 활력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간 ‘SSF’를 통해 무대를 선보인 김선옥, 손열음, 이경아 등의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올해 ‘SSF’의 선택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 매해 한 사람의 작곡가에게 ‘SSF’를 위한 곡을 위촉하여 개막 연주 때 초연하는 전통에 따라 올해의 작곡가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곡가 김솔봉이 선정되었다. 그는 국악기와 실내악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신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관련 부대행사로는 2008년도에 큰 호응을 이끌어냈던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며, 음악 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던 자원봉사단 ‘SSF 도우미’ 제도도 계속된다. 또한 서울에서의 인기몰이를 바탕으로 지난가을 4개의 도시에서 진행되었던 지방 순회 연주도 변함없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SSF’는 2008년 북경 올림픽 축하 공연에 초청되어 북경의 국가대극원과 상해의 오리엔탈 아트센터의 공연에서 일찌감치 티켓이 매진되는 등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국내 음악 축제로서는 최초의 해외 진출이었으며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동경 초청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글 | 이동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사무국 홍보팀장)

프로그램 및 프린지 페스티벌 참여 문의

TEL : 02-712-4879(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사무국)

WEBSITE : www.seoulspring.org

※일별 프로그램은 SSF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SSF 출연진

피아노	제레미 메뉴인
	무키 리
	리처드 형기 주
	피오토르 팔레츠니
	한동일
	신수정
	김영호
	김대진
바이올린	김선옥
	강동석 (예술감독)
	솔로모 민츠
	비비아네 하그너
	알렉세이 이구데스만
	이경선
비올라	김현아
	최은식
	김상진
첼로	홍 웨이 황
	츠요시 츠츠미
	에드워드 아론
	조영창
	양성원
	박상민
	송영훈
오보에	제임스 버튼
클라리넷	니콜라 발데루
	계희정
	채재일
바순	장명규
호른	김홍박
주피터 현악사중주단 Jupiter String Quartet	넬슨 리
	메그 프리보젤
	리즈 프리보젤
	다니엘 맥도노
에벤 현악사중주단 Ebene Quartet	피에르 콜롬베
	가브리엘 르 마가뒤르
	마튀유 예르조
	라파엘 메를랭
시네 노미네 현악사중주단 Sine Nomine Quartet Lausanne	파트릭 제네
	프랑소와 고트로
	앙스 에지디
	마르크 재르망
Group	이구데스만 & 주
Young Generation	애나 리(Vn)
	조성진(Pf)
	이화윤(Va)
	조민석(Vc)
	성민제(Db)
	예종 현악사중주단
Ensemble	양상블 누벨 제네라시옹 드 파리
작곡가	김솔봉
Korean Traditional Music Artist	김덕수

4월의 문화+서울
미리 만나는
2009 SSF 얼굴들,
그리고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

미리 만나는 2009 SSF 얼굴들, 그리고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



릴레이 인터뷰 1 예술감독 강동석

릴레이 인터뷰 2 작곡가 김솔봉



*Seoul Spring Festival
of Chamber Music 2009*

축제는 초대받은 사람에게 무척 기대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설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5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eoul Spring Festival, 이하 SSF)의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관계자나 무대에 오를 아티스트들에겐, 이미 축제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4년째 SSF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인공 강동석 예술감독과 주목받는 신인 작곡가 김솔봉, 이색 공연을 펼칠 연주자들로 초대된 주피터 콰르텟과 악동첼리를 만났다.



릴레이 인터뷰 3 주피터 콰르텟



릴레이인터뷰 4 악동첼리

4월의 문화+서울
미리 만나는
2009 SSF 얼굴들,
그리고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

베토벤 바이러스 살포 준비 완료!

4년째 SSF를 이끄는 원조 강마에, 예술감독 강동석

세계적인 음악축제를 만들고자 각계각층 문화애호가들이 힘을 모아 탄생시킨 SSF. 실내악은 어렵고 대중들이 외면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이 행사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음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무장한 강동석 예술감독이 있기 때문이다. 욕심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싶다는 그를 만나 올해 SSF의 콘셉트와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세계 페스티벌로 성장 가능성 무한

SSF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늘어났다는 건-심지어 음악에 문외한인 기자조차도 5월을 기다릴 정도이니-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행보가 성공적이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첫 회부터 그 축제를 진두지휘한 강동석 예술감독은 이 성공적인 행보의 연장선에서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남다른 감회에 젖어 있지 않을까.

“벌써 네 번째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더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그동안 SSF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 같아서 스스로 흐트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반면 그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어요.”

실내악축제는 강 교수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던 부분. 다양한 페스티벌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클래식을 접하는 외국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한다. 스스로 그런 확고한 목표가 있기에, 남다른 애착과 열정으로 SSF를 이끌 수밖에 없었다고.

SSF의 효시는 지난 2003년으로 돌아간다. 당시 강 교수는 호암아트홀에서 실내악 공연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실내악을 몇 번 연주하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단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내악페스티벌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2003년과 2004년, 두 번 열었어요. 그런데 초창기다보니 재정적인 면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인식도 부족했구요. 여러 난관에 봉착해서 한 해 쉬었는데, 2005년 서울시의 후원을 받으면서 다시 진행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름도 SSF로 바꿨구요.”

SSF라는 타이틀을 달고선 겨우 3번의 공연을 했을 뿐이지만, 아티스트들의 연주 수준과 기획력, 규모는 세계 어떤 페스티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것이 음악계를 포함한 강 교수의 평가다. “세계적인 페스티벌을 많이 다녔지만, 우리 SSF가 그들에 비해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자신합니다. 오히려 이 정도 수준

의 페스티벌이 외국의 어느 유명 도시에서 열렸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죠.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실내악이 생소하잖아요.

특히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의 페스티벌은 흔하지 않기에 SSF의 가치는 더 빛난다. 여기에는 강 교수의 적극적인 활약이 숨어 있다. 바로 해외 공연을 활발히 하는 것이다. “작년에 북경 올림픽 축하공연을 했는데, 이번엔 도쿄에서 연주 일정이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SSF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티스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반적으로 페스티벌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린다면, 외국 도시의 페스티벌처럼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내악이 대중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 시민이라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단계에선, 많은 시민들이 이런 페스티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겠네요.”

베토벤 전국 감상 절호의 기회, 2009 SSF

그래서 강 교수는 올해도 대중의 입맛에 맞는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했다. 대중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수준을 낮춘다는 말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 요즘 그의 머릿속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2009 SSF로 화제를 돌리자 반갑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올해는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제약이 많은 편이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하겠다는 포부를 먼저 밝혔다.

“올해의 콘셉트는 베토벤 플러스예요. 거기에 비포 플러스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베토벤 이전이라고 하면 콰르텟을 말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베토벤 콰르텟 전곡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베토벤과 함께 고난을 넘어서 희망으로 가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여러모로 어려운

4월의 문화+서울
미리 만나는
2009 SSF 얼굴들,
그리고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



시기잖아요. 베토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음악을 쓴 주인공이니, 그의 음악을 되짚어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는 의미로 기획해봤어요.”

이번 페스티벌에서 연주될 베토벤 곡은 모두 17곡. 베토벤 전곡은 전반과 중반, 후반의 세 시기로 나뉘는데, 전기의 곡을 들으면 당시의 작품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그의 인생을 훑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실내악이라고 하면 현악4중주가 기본이고, 베토벤 전곡은 콰르텟 위주기 때문에 이번 SSF의 콰르텟 연주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베토벤 콰르텟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정통의 실내악을 선보이겠다는 야심 찬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특색 있는 그룹 연주와 한국적 요소도 눈여겨볼 만해

그렇다고 이번 SSF를 콰르텟 연주만 있는 딱딱한 공연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올해 공연에는 독주자보단 그룹 형태의 공연을 많이 준비했다. 강 교수는 특색 있는 팀의 이색적인 공연을 많이 준비했다고 전했다.

“슬로모 민츠(Shlomo Mintz)의 파가니니 24 카프리스 연주는 주목할 만한 무대입니다. 바이올린 독주로 실내악과 상관은 없지만, 전곡을 들을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피아노 연주를 할 제레미 메뉴인(Jeremy Menuhin)의 연주도 주목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첫 연주라 의미가 새로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 부인과 피아노 연주를 함께할 건데, 그것도 새로운 볼거리겠네요.” 이외에도 영 아티스트 중 비비안 하그너는 간호사 출신의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연주자

라서 관심을 둘 것을 권했다.

강 교수가 유념하는 부분은 정통 클래식과 한국적인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다.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번 페스티벌에서 그는 슈베르트 초연과 김지영 씨와 김솔봉씨의 곡을 연주할 계획이 있다. 곡을 의뢰할 땐,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요소를 넣어서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덕수 선생님의 무대도 마련되어 있어서 서양 악기와 동양 악기의 조화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강 교수는 이렇게 연주의 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실내악에 대한 편견이 있는 관객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덕수궁에서의 오케스트라 공연, 패밀리 콘서트 등 재밌는 공연을 요소요소마다 배치해서 일반인을 위한 문턱을 낮췄다. “대중적인 공연을 통해 실내악을 조금이라도 듣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SSF는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말이다.

4년째 SSF를 성공리에 이끌고 있는 강동석 예술감독의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책임감은 커 보였고, 그의 행보는 소신이 있었다. 그리고 대중과 정통성 사이의 완급 조절을 위해 고심하는 흔적도 역력했다. 큰 축제를 이끌면서 이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그만큼의 익숙함과 노련함이 여유로움으로 묻어나올만 한데, 그는 여전히 큰 페스티벌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청중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시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점을 꼭 알아주세요. 열심히 와서 듣고, 음악을 느끼고, 음악가를 대하면서 즐거운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연주곡을 구상하는 순간부터 즐거움은 시작되죠

젊은 아티스트 김솔봉의 국악과 클래식의 만남

보석은 어디에 있어도 빛이 나는 법이다. 서울예고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줄리아드 예비학교를 거쳐 커티스음악대학을 졸업하며 음악 신동의 길을 걷고 있는 작곡가 김솔봉이 이번 SSF에 참가하게 된 것도 그 반짝거림 때문이었다. 아직 곡 작업이 끝난 건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강동석, 김덕수 선생과 함께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것. 관객 못지않게 SSF를 기다리는 그와 나눈 이야기들을 공개한다.



4월의 문화+서울
미리 만나는
2009 SSF 얼굴들,
그리고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

“제가 지난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서 커미션 곡을 작곡
했는데요. 인연이 있던 김영옥 선생님의 소개로 강동석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강 선생님이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셨거든요. 저에게 SSF의 작곡가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
는데,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의 제안이 너무 반가웠죠. 그
런데 제가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웃음)

관객의 입장에서 고마운 부탁을 그가 먼저 건넸다.
조건은 다름 아닌 강 선생님이 연주해주시는 것. “제가
쓴 곡을 선생님께서 바이올린으로 연주해주세요”라는
귀여운 부탁에 “그럼 그대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라는
유쾌한 대답이 돌아왔단다. 부탁은 흔쾌히 받아들여졌
고, 그렇게 유쾌하게 SSF의 근사한 무대 하나가 만들어
지게 됐다.

국악을 접목한 즐거운 무대 만들 것

그는 SSF에는 처음 참가하는데, 출연진을 보고 깜짝 놀
랐다고 한다. 소위 대단한 실력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
이다. 그만큼 한국의 음악성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느
낄 수 있었단다. “선생님께서 국악을 가미했으면 좋겠다
는 주문 외에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어떤 악기를 쓰고,
어떤 아티스트가 연주할지 관심이 많으신데, 아직 악기
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김덕수 선생님이 사물놀이를 해
주시기로 한 것 외에는요.”

강동석과 김덕수의 조합.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세기의 유명한 퍼포머들과 함께 연주를
해서 부담을 더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어떤 식으로 접
근을 해도 저보다 음악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최고
의 연주를 해주시리라 믿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곡을 쓸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악기의 음
색을 발휘하지 않도록 쓰는 식으로요. 악기 연주가 서툴
면 오케스트레이션할 때 더블링 소리도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에겐 믿을 만한 연주자 두 분만으로도 힘이
난답니다.”

딱딱하게 음악을 맞춰나가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즐



기는 것을 더 중시하기에 이번 페스티벌에 소개할 곡도 체임버 뮤직이라는 콘셉트를 적용할 생각이라고 한다. “모든 음악에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등의 틀이 있기 때문에 사운드가 조화롭다고 보진 않아요. 이 친구와 함께 연주를 해보고 싶다. 이런 피아니스트와 연주하면 어떤 연주가 나올까? 하는 식으로 즐길 수 있는 마인드에서 출발해야죠.”

그래서 악기 편성은 물론 곡 전반도 꼭 국악에 틀을 맞추려고 노력하진 않는다. 흔히 ‘한국적인 요소’나 ‘크로스오버’ 등의 용어를 쓰면서 억지로 국악을 접목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고 한다.

“처음 작품 의뢰를 할 때 선생님이 연주를 하시면 좋겠다, 같이 연주하면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악기를 하나 더 넣어보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연주를 완성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싶어요.”

이번 SSF에서 소개할 곡은 ‘Thundial Chronicles’로, 새 시대 이야기다. 새로 시작하는 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상했다. “봄이 오면 산과 모든 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겨울에 못하던 게 봄에 갑자기 시작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대해 곡을 쓰고 싶었어요. 봄이 다시 온 것처럼 열어 있던 음악이 녹아 있는 그런 곡을 쓰고 싶기도 하고요.”

음악 공연 활발한 서울이 좋아

공연을 기다리는 국내 팬을 위해, 또는 김솔봉이라는 이름이 낯선 관객을 위해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조심스러운 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보통 작곡가의 생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작품은 물론 그의 주요 작과 나이 들어서 쓴 작품을 알아야 해요. 스트로브스키만 봐도 어렸을 때의 작품과 나이를 먹은 후의 작품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스스로 어린 작곡가라는 표현을 쓰는 그는, 여전히 원하는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아직은 그림을 그릴 때 최대한

다양한 색깔을 칠하고 싶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는 누가 봐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다. SSF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자, 과연 전문가다운 답이 이어졌다. “서울은 세계 어느 곳보다 음악 연주가 활발한 곳이에요. 외국도 그만큼 연주되긴 하지만, 그 정도로 헌신해서 연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서울을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획이나 연주수준이 높다고 느끼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또 집중적으로 염두에 두는 관객의 관심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저에게 보이는 반응은 나쁘지 않더라고요.”(웃음)

다만 학계 연주와 주류 공연 간의 구분이 확연하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드러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콘셉트의 공연이 주류로 공연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내고 보는 연주와 그렇지 않은 연주의 구분이 너무 확실해서 아직은 컨템퍼러리 뮤직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현대음악에 대한 편견을 없앨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이 고전만을 찾고 현대음악은 가볍게 여기곤 하는데, 1960년대 이후의 음악은 훨씬 더 듣기 좋고 접하기에도 편안해요. 편견을 깨고 현대음악에 대해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내내 그는, 봄을 기다리듯 SSF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있는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나쁜,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매년 SSF를 즐기는 관객이라면 제 곡을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세요. 그게 저같이 젊은 작곡가들에게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SSF 무대에서 처음 만나게 됐지만, 김솔봉은 그동안 국내에서 비올라 콘체르토, 앙상블 뮤직, 교향악 축제 등 꾸준히 연주를 해왔다. 이벤트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축제에 참가하고 싶다는 그.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열릴 SSF에서도 계속해서 김솔봉이라는 반짝거리는 보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4월의 문화+서울
미리 만나는
2009 SSF 얼굴들,
그리고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

Hello, Rookie!

베토벤 4중주 전곡 준비 중인 주피터 콰르텟

이번 SSF에서는 모두 세 팀의 콰르텟 팀이 초청되었다. 앞서 강동석 예술감독이 조언했듯, 이번 페스티벌에서 눈여겨볼 것은 베토벤과 콰르텟 공연이다. 베토벤 4중주 전곡을 준비 중인 주피터 콰르텟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서울은 물론 아시아 공연이 처음이라는 주피터 콰르텟의 설레는 공연 준비담을 들어보자.

Q. 만나서 반갑다. 2009 SSF에 참가하게 됐는데 먼저 소감을 듣고 싶다.

“Hello~, 먼저 서울에서 연주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번 공연은 우리 주피터 콰르텟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하는 공연이라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 개인적으로 나에겐 더 특별한 자리가 될 듯하다.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연주하는 첫 번째 무대이기 때문이다.” (주 *인터뷰에 응한 제1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벨슨 리는 한국인 2세 연주가입니다.)

Q.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나.

주피터 콰르텟에게 SSF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당연한 순서지만, 예술감독을 맡고 계신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예술감독의 권유에서 출발했다. 우리 연주팀을 베토벤 4중주 연주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 넷은 모두 감격했고, 난 개

인적으로 날아갈 것만 같았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베토벤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서울의 공연문화가 활기차고 열정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모두 마음이 설렌다. 우리가 그런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다. 새로운 연주 환경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신나는 일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베토벤 4중주 연주 중 5곡을 연주할 수 있다니! 이런저런 면에서 SSF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Q. 이번 페스티벌에 현악4중주 3팀이 초청됐다.

주피터 콰르텟만의 색깔은 무엇이며 다른 팀과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팀 소개도 함께 부탁한다.

“우선, 주피터 콰르텟은 첼로를 연주하는 대니얼 맥도나프(Daniel McDonough), 비올라에 리즈 프라이보겔(Liz Freivogel), 제2바이올린에 메그 프라이보겔(Meg



Freivogel), 그리고 제1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나, 넬슨 리(Nelson Lee)로 구성되어 있다. 메그와 리즈는 자매인데, 오랫동안 함께 연주하고 있다. 모든 4중주단은 독특한 음색과 개성이 있는데, 우리 4중주단은 첼로의 베이스가 이끄는 풍부하고 따뜻한 소리를 표현하려고 힘쓴다. 이런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음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구별되면서도 매력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우리만의 독특한 개성이 무엇인지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강렬함을 무기로 연주한다는 것이다. 음악의 특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며, 아주 유기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함께 느끼면서 연주하는 것이 우리 팀의 특징이 아닐까 한다.”

**Q. 이번 페스티벌에서 연주할 곡에 대해 소개한다면.
감상 포인트는 무엇인가?**

“우리는 베토벤의 현악4중주 5곡과 브람스의 6중주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강동석 예술감독은 베토벤의 현악4

중주 곡 전부를 연주했으면 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 맞고, 다른 4중주단의 연주곡과도 맞출 수 있는 작품 목록을 만들었다. 청중은 베토벤의 4중주 전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이다. 또한 베토벤의 다양한 양식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작곡가로서의 발전 사이에 드러나는 대조된 특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Q. SSF를 위한 준비는 잘되고 있나?

요즘 일상이 궁금하다.

“SSF에서 연주할 곡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 축제 전에도 공연 스케줄이 빽빽하게 잡혀 있는 터라, 그전까지 연주할 모든 곡과 서울에서 연주할 베토벤 곡을 연습할 수 있는 리허설 시간을 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보스턴에서 우리의 일상은 상당히 규칙적인 편이다.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 리허설을 하고 2~3시간 정도는 정해진 곡을 연습한다. 이런 규칙적인 연습 시간이 끝나면 가능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연주 여행이

4월의 문화+서울
미리 만나는
2009 SSF 얼굴들,
그리고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

시작되면 그들을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Q. 실내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나?

그러기 위해서 연주자로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클래식 음악의 미래는 물론 다른 측면에서도 실내악은 매우 중요하다. 4중주, 3중주, 5중주 등을 위한 훌륭한 작품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곡들은 당연히 연주되어야 하고 청중이 들어야 한다. 또한 실내악은 클래식 음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역동적이면서 서로 대화하는 음악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도 실내악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독주 연주에서 나타나는 개인 특성과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서 생기는 일체감의 중간지대에서 만들어지는 훌륭한 균형을 들려주기 때문이다.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의 범위가 넓고, 무대에서 보이는 연주의 역동성 덕분에 실내악 음악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바란다. 우리는 종종 학교로 찾아가서 클래식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린 학생들을 위해 연주를 한다. 클래식 음악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음악을 즐기면서 연주하는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Q. 한국의 각종 음악회 시도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 또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한국의 공연 현장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과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싶어 하는 대중의 수요가 많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실내악 공연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한국에서는 독주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실내악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하고,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기 때문이다.”

**Q.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듣고 싶다. 한국 팬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는지?**

“우리에게도 한국 팬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가능한 자주 오고 싶다. SSF 이외에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진 않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한국 팬들과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가르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싶다. 여행과 연주를 하면서 모임도 열 수 있도록 대학과 연결되면 더욱 좋겠다.”

**Q. 마지막으로 SSF를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공연장으로 와서 음악을 즐기라! 베토벤 현악4중주보다 좋은 건 없기 때문이다.”



※ 본 인터뷰는 주피터 콰르텟에서 제1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넬슨 리(Nelson Lee) 씨와 서면으로 진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악동들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음악이 즐거운 아이들, 악동(樂童)첼리

자못 진지하게 첼로 연주를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웃긴 표정 짓기 대회라도 열린 듯 익살스러운 표정, 그리고 신나는 율동과 함께 이후 천장을 뚫고 나가는 듯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아이들의 합창소리. “꿈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빠~~”. 초등학생에게는 다소 늦은 시간인 8시경, 퍼포먼스 공연팀 악동첼리의 연습 현장은 그야말로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기운은 여느 전문 오케스트라 연습실 못지않게 뜨거웠다.



4월의 문화+서울
미리 만나는
2009 SSF 얼굴들,
그리고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

‘크게 소리치며, 신나게 몸을 흔들며’ 제각각 자유롭게 공연을 하는 듯했지만, 반짝거리는 악동첼리의 14개의 반짝이는 눈은 지휘자 선생님의 손끝을 향해 있었다. 표정 하나, 손짓 하나까지 선생님의 손끝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여느 오케스트라 공연 못지않은 전문성과 진지함이 느껴지는 모습이다. 끼와 재주가 넘치는 초등학교 퍼포먼스팀 정도로만 생각한 기자에게 악동첼리들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연주 모습은, 말 그대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감정을 하나로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휘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은 지휘를 볼 줄 알죠. 웃기고 코믹한 공연으로 시선을 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음악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연습했거든요. 기본에 충실한 음악교육 위에 퍼포먼스가 더해져야 악동첼리가 완성됩니다.” 악동첼리를 이끌고 있는 김현정 지휘자는 아이들의 탄탄한 연주 실력이야말로 악동첼리의 경쟁력이라고 연주팀을 소개했다. 퍼포먼스는 그 위에 더해지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열심히 연습 중인 일곱 명의 악동첼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첼로는 소리가 매력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악기는 당연히 첼로죠”,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좋는데 첼로 연주하는 게 특히 재밌어요…”.

“아이들 스스로 음악적인 자존심이 대단하다”는 지휘자 선생님의 귀띔대로, 아이들은 첼로 연주 자체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보였다. 퍼포먼스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지만, 연주 실력도 자신 있다는 다부진 모습이었다. 아이들의 권유대로 눈을 감고 그들의 연주를 다시 들어보니, 퍼포먼스를 기대하면서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꼬마 친구들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SSF 참여는 곧 클래식 공연에서 인정받는 것

악동첼리가 처음 꾸려진 건 작년 5월. 첼로를 연주하는 분당 지역의 초등학교생들로만 구성해서 첼로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꼭 1년 만에 SSF의

연주자가 됐다. 반주자 윤애영 원장은 악동첼리에게 SSF 공연은 페스티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클래식 공연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어요. 첼로 전공자들에게 우리가 가벼운 팀으로 비쳐지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면도 있었거든요. 실내악 장르에 또 하나의 작은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데, SSF가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요. 클래식 장르라는 것이 정적인 것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음악이라는 것이 새로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을 통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윤 원장의 설명. 끼 많은 사람만이 나날 수 있다는 <스타킹>에도 출연하고, 각종 공연에 초대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져 분당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지만, 윤 원장에게는 음악인으로서의 갈증이 있었나보다. 이런 마음은 지휘를 맡고 있는 김현정 씨에게도 마찬가지. 아이들 역시 퍼포먼스보다는 첼로 자체를 좋아하기에, 반주자, 지휘자, 연주자 모두에게 SSF는 각별하다. 김현정 지휘자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수준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악동첼리의 존재 이유는 물론 남다른 애착과 열정까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메인 곡은 <악동첼리의 사계>

악동첼리의 공연 레퍼토리는 오프닝과 메인, 동요, 재즈, 퍼포먼스, 그리고 엔딩은 항상 ‘궁따리 사바라’로 이어진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발한 곡으로 시작해서 감동을 주는 잔잔한 곡으로 감정의 상승을 유도하고, 즐겁고 흥겨운 댄스로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킨 다음 ‘궁따리 사바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궁따리 사바라’의 인연은 강원래 씨가 주관하는 ‘궁따리 유랑단’의 음악회에 참가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궁따리 공연”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인상적인 무대였다. 앞으로도 마지막 공연은 바꾸지 않고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란다.

이번 SSF에서는 오프닝과 ‘악동첼리의 사계’를 테마

로 연주할 계획이다. 봄의 축제인 만큼 계절을 표현하기 위해 곡을 선정했다고 한다. “연주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주력할 겁니다.” 지난 3월 성남시 문화 동호회가 주관하는 미니 단독 콘서트에서 같은 레퍼토리의 연주를 성공리에 마치면서 열심히 호흡을 맞춰나가고 있다.

“악동첼리의 즐거운 연주를 보고 클래식을 하는 어른들이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 모두가 연주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을 발산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바람이 없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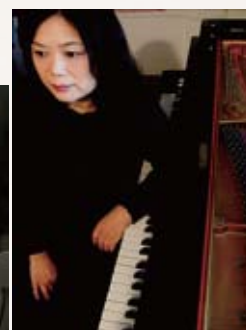
김현정 지휘자는 “아이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관객도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그리고 악동첼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이들도 SSF 무대는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이 듣는다는 사실에 들떠서 열심히 준비 중이다.

매주 목요일마다 즐기면서 연습 중

이렇게 남다른 의미의 SSF 공연이기에 악동첼리의 일상엔 분주하다. 매일 첼로 연습을 하고, 매주 목요일엔 악동첼리의 연주 호흡을 맞춘다.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할 뿐, 대부분 첼로 연주에 시간을 할애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연주가기 때문이다.

“혹독하게 연습하지 않아요. 즐기는 것이니까요. 다만 연주를 정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습합니다.” 곡 선정과 편곡, 안무 등 각종 퍼포먼스는 모두 지휘자 김현정 선생의 몫이다. 어린 시절 디즈니 만화에 심취했던 김 선생은 첼로를 전공한 수재. 이색적으로 중학교 시절 춤에 빠져 지낸 적이 있어서 악동첼리를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을 악동첼리를 통해 이루고 있다”고 농담을 건넨 정도다.

반주를 맡고 있는 윤 원장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서로가 즐겁게 즐길 수 있길 바



좌 지휘자 김현정
우 반주자 윤애영 원장

란다”며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나이에 맞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악동첼리의 추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 원장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다시 아이들의 연습이 시작됐다. 지휘자 선생님은 여전히 웃는 얼굴을 하고 아이들을 하나로 이끌어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에서, 지휘자 선생님과 반주자 선생님의 미소에서, 5월 SSF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서 말한 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의 설렘이야말로 축제의 진정한 묘미가 아닐까. 한 달여 시간만 기다리면 이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취재 및 글 | 임언영 기자

프리랜서 취재기자이며 '문화+서울'의 고정 필자로도 활동 중이다. 올해는 기필코 SSF를 완전히 즐겨보리라 다짐 또 다짐하고 있다.

4월의 문화+서울

한국의 실내악,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에

거는 기대

한국의 실내악,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에 거는 기대

한국은 촉망받는 음악가들이 많은 곳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실내악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실내악은 ‘나는 연주를 할테니 너는 들어라’ 식의 일방적인 음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내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소통과 신뢰라는 것을 보면, 실내악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실내악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와 소통의 실내악

1970년대 말, 알렉산더 슈나이더는 몇몇 연주자들과 함께 프랑크의 피아노 오중주를 연주하기로 했다. 그런데 템포 설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캐나다에서 날아온 젊은 피아니스트가 슈나이더가 주장한 템포에 반기를 든 것이다. 분노한 슈나이더는 “이보게 젊은이, 나는 이 곡을 수백 번도 넘게 연주해본 사람이야. 젊은이는 대체 이곡을 몇 번이나 연주해봤나?”라고 말했다. 굴렌 굴드라는 이름의 이 피아니스트는 “글쎄요. 문제는 연주 횟수가 아니라 연주의 질이죠. 따라서 제가 설정한 템포가 음악적으로 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되받아쳤고 환갑이 넘는 슈나이더는 하얏게 질렸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놀라는 점은 이런 일이 외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음악에서 템포는 매우 중요하다. 베토벤은 템포야말로 심장이라고까지 말했으니깐. 실내악에서도 마찬가지로 템포는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템포 설정은 그 곡의 전체적인 색깔까지 결정짓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실내악의 템포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딱 하나다. 그 그룹의 제일

연장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합의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템포를 정하면 그대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요즘에는 꼭 그렇지도 않지만, 여전히 연장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연주는 나오기 힘들다. 우선 모두가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템포 설정에 불만이 있기 쉽다. 그리고 실내악에서 앙상블은 연장자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열은 연주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르는 관계에서 훌륭한 연주가 나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구나 실내악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앙상블은 화합이라는 문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서로가 양쪽 귀를 막고 자기 파트만을 연주한다고 훌륭한 화음이 만들어질까? 당연히 어렵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내부 갈등이다. 멤버 간 불화는 연주를 할 때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실내악에서 연주자들은 눈빛 하나, 몸짓 하나로도 많은 의미를 이끌어내야 한다.



4월의 문화+서울

한국의 실내악,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에
거는 기대



Zehetmair String Quartet

어떤 의미에서 실내악은 <꽃보다 남자>의 F4와도 유사하다. 현악 4중주로 말하자면 그들은 구준표(제1바이올린), 윤지후(제2바이올린), 소이정(비올라), 송우빈(첼로)처럼 서로 음색의 빛깔이 다른 네 명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준표가 팀의 리더로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처럼 제1바이올린도 제일 앞서서 음악적 키를 쥐고 있다. 여기에 윤지후와 소이정, 송우빈의 역할이 뒤따르듯이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제1바이올린을 보좌하게 된다. 다만 <꽃보다 남자>에서 주연과 조연이 확실하게 나뉘는 것과는 다르게 현악사중주에서는 악기 간의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1바이올린만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음악이 나오지는 않는다.

외국의 어떤 음악비평가가 우리나라 음악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의 음악 교육은 철저히 독주자 위주이기 때문에, 실내악이 발전하기 어렵다. 모두가 정경화가 될 수는 없는 것인데 말이다.”

한국의 음악 교육은 독주자의, 독주자를 위한, 독주자에 의한 것으로 집약된다. 물론 요즘에는 실내악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겨 독주가 아닌 앙상블을 위한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솔리스트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보

다 커다란 문제는 실내악에 대한 청중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어떤 연주자는 말한다. “청중은 결코 실내악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사실 실내악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내 주변에도 오케스트라나 독주자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내악에 특별히 애정이 있어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실내악은 어느 정도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귀에 들어오는 음악이기 때문이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들을 때, 피아노 독주곡이나 교향곡 또는 협주곡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많이 보았지만, 실내악으로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내악에는 오케스트라처럼 웅장한 음향 효과도 피아노 독주곡이나 협주곡처럼 초절정 기교의 향연도 없다. 다만 그 안에는 씨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진 퀘트처럼 그렇게 서로 다른 음색의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앙상블이 은은한 향기를 풍길 뿐이다. 많은 경우 실내악은 작곡가의 가장 내밀한 언어이다. 즉 내면의 거울이다. 그것은 어떤 한 음악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조금씩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소리와도 같다. 따라서 그 음악 언어는 상징과 알레고리로 가득 차 있다. 요컨대 한 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지 못하지만, 일단 빠져들려면 클래식의 바다에



1 St. Lawrence String Quartet
2 Takasc Quartet
3 Tokyo String Quartet



서 오랫동안 헤엄쳐야 한다. 사실 클래식이라는 음악 장르 자체가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 같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클래식 인구의 저변 확대가 없는 이상, 실내악의 활성화는 공허한 외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결국 클래식 청중의 확대는 연주자와 기획자의 몫이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가능성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연주자도 실내악을 하지 않고 관객도 실내악을 보러오지 않는다면 둘 사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2004년부터 시작한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실내악 대중화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페스티벌의 성공은 희망의 메시지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에 있다. 음악 페스티벌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의 유대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 더해 실내악 페스티벌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수준 높은 연주자들의 참여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경우에는 줄리어드 출신 연주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반적인 음악회의 수준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더해 페스티벌의 개최는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계획을 짜서 급하게 실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행사가 부실하기 쉽다.

1970년부터 핀란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쿠모실내악 축제는 우리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00명의 청중이 참여한 소규모 페스티벌은 지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실내악축제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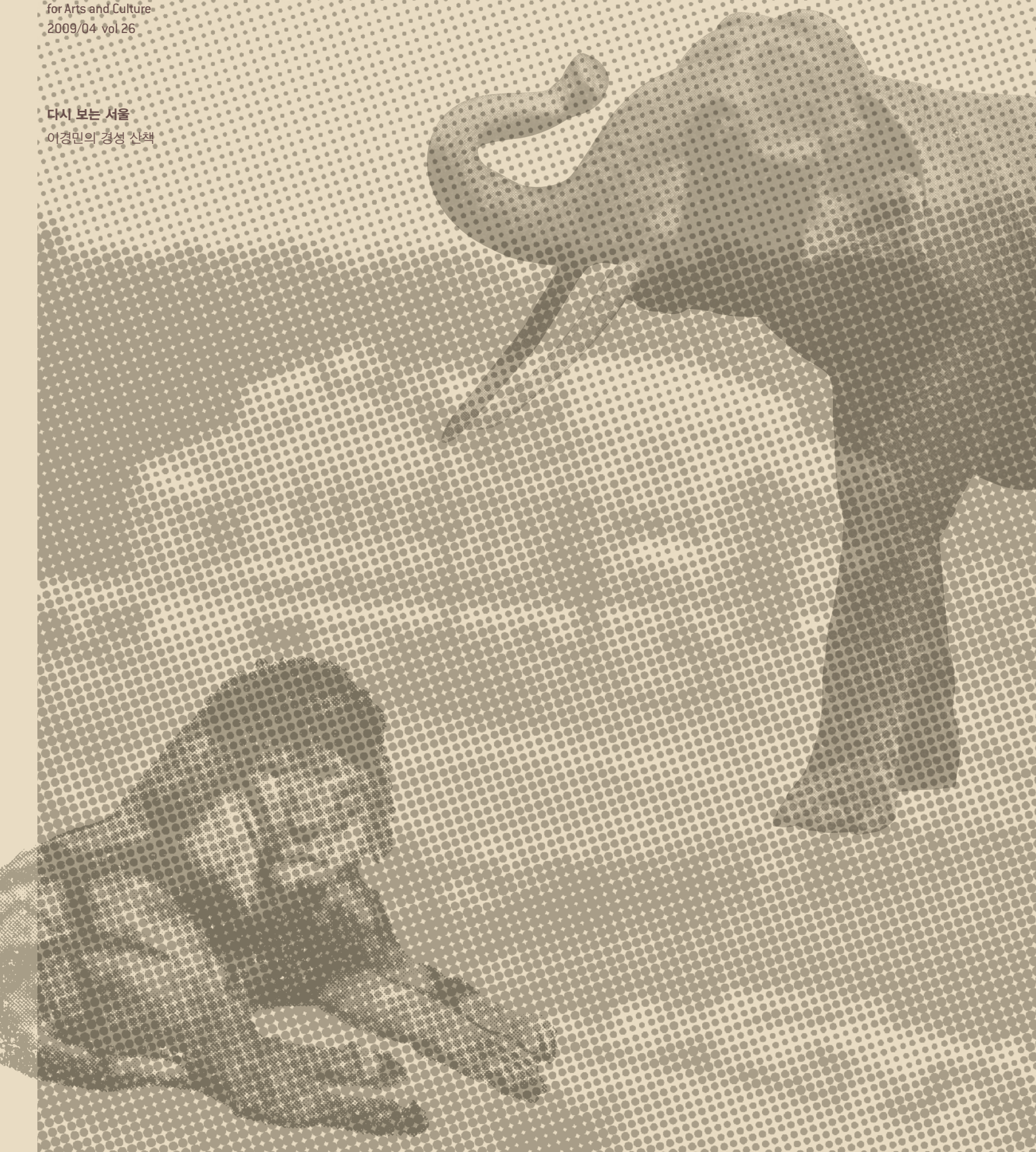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1936에 시작된 캐나다의 벤프 아트 페스티벌은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를 포함한 총체적인 음악축제이며, 더 나아가 재즈와 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실내악은 음악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트 페스티벌에서 실내악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이 밖에도 루가노 정도를 중요한 페스티벌로 꼽을 수 있겠지만, 마르타 아르헤리치처럼 존재감이 큰 슈퍼스타의 참여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강동석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분명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다.

글 | 김효진

〈스트라드〉 〈콰이어 & 오르간〉 〈코다〉 등의 음악 잡지에서 편집장을 지냈고 현재 교보 핫트랙에서 발행하는 〈라 무지카〉의 편집장으로 재직 중이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04 vol.26

다시 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구보 씨, 동물원 구경 가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동물원이 생긴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1909년 11월 1일 창경궁 내에 박물관과 동·식물원이 설치되어 개원식이 열렸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 근대 동물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대한제국 황실 동물원의 의미로 어원동물원, 창덕궁동물원 등으로 불리다가 1910년 합병 이후 이왕직 관제가 실시되고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격하되면서 이왕직(이왕가)동물원, 창경원동물원, 경성동물원 등으로 불렸다. 1911년 4월 26일부터 박물관과 동·식물원을 통칭하게 된 창경원은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 동물원의 대명사가 되어 1983년 폐원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창경궁 복원사업’에 따라 창경원의 동식물은 1986년 개장한 서울대공원으로 모두 옮겨 갔으며, 이제 그곳은 우리의 기억과 빛바랜 사진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 되었다. 우리나라 동물원의 기원인 창경원의 탄생 과정과 함께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다시 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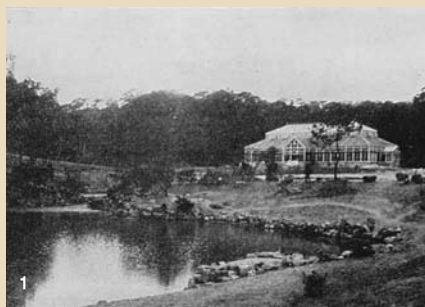
동물원의 탄생

창경원은 대중의 교육과 위락을 목적으로 한 근대적 의미의 동물원으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19세기 이래로 설립된 전 세계 동물원 중 36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7번째로 개설되었다. 일본의 경우 1882년 도쿄에 개원한 우에노(上野)동물원이 최초의 동물원이었으며 이후 오사카(1903년), 교토(1903년), 가고시마(1914년), 나고야(1918년) 등 여러 곳에서 개원했다. 창경원은 일본과 비교해도 4번째 순위에 들 정도였으며, 1912년에 준공된 여섯 동의 동물 온실은 당시로서는 우에노동물원에서 도 볼 수 없는 동양 제1의 시설이었다.

하지만 창경원은 조선 황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 일제가 고안한 시각적 장치였다. 창경궁 내의 박물관 및 동·식물원 설치는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추진했는데 사정은 이러했다.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하자 새로운 황제로 즉위한 순종은 그해 11월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어하게 되었다. 이때 이토는 궁내부 차관 고미야 사보마츠(小宮三保松)가 제안하고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궁내부대신 이윤용이 찬성한 박물관 및 동·식물원 신설 계획을 순종에게 말하고 허락을 얻어냈다. 궁정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왕의 은혜를 백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명목상의 황제였던 순종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토의 책략에 따라 창경궁 내에 박물관과 동·식물원의 설치 공사는 1908년 4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듬해인 1909년 봄에 일단락되었다.

설치 공사와 함께 전시물 모집도 시작되었는데, 동물 수집은 이미 1908년 1월부터 착수되었다. 고미야에 의하면 “동물원을 제일 먼저 착수하여 성내에 사립동물원을 경영하기 시작했던 유한성(劉漢性)의 동물 전부를 매수하고 그와 함께 일하던 1명을 함께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관보에서도 확인되는데, 유한성과 그의 직원 현익건은 2월 12일 각각 주임대우와 판임대우로 추천되어 동물원 사무를 맡게 되었다. 유한성이 어떤 이유에서 사립동물원을 경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30여 종의 동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창덕궁 동물원에서 이를 매수하면서 동물사육의 경험도 있던 그에게 동물원 사무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는 1903년 말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한양병원을 개업한 의사였으며, 육군 1등군의(1905), 적십자사 교육장1등군의(1906), 육군 3등군의장(1907) 등을 역임한 군의관 출신이었다. 이런 점에서 유한성은 동물원 사무의 적임자였으며, 1908년 9월 궁내부에 속하여 박물관 및 동·식물원의 사무를 관장하는 어원사무국 관제가 제정되자 초대 동물원 부장이 되었다.

1908년 2월 중 동물원에는 유한성이 기르던 동물 외에 법무대신 조중응이 기증한 노루 한 쌍과 북청군에서 잡아온 호랑이 한 마리도 수집되었다. 5월에는 순종이 타던 말 한 필도 기증되었으며, 8월에는 동물홍행사로 추정되는 한 일본인이 서소문 안쪽에 개설한 동물원의 각종 동물과 새를 2만 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제반 동물이 모이기 시작하자 순종과 순종비는 개원도 하기 전에 창경궁에 들러 동물을 관람하였다. 1909년 4월 동물원 설비를 필역하자 어원사무국은 일반인에게 관람을 허용하기로 하고 개원을 서둘렀다. 그러나 5월 1일로 예정된 일반 공개는 계속 지연되었으며, 11월 1일에 가서야



1 동물원 전경과 학 무리, 1910
2 식물원 온실 내부, 1910
3 식물원 전경과 온실, 1910

비로소 개원식이 열렸고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일반인의 관람이 허용되었다. 다만 ‘미친 사람과 술 취한 사람 그리고 의복이 누추한 사람’의 출입은 금했다.

이러한 일반인의 동물원 출입은 한편으로는 신성한 왕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성역인 조선의 궁궐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했다. 또한 동물원의 설치는 창덕궁이라는 우리에게 갇힌 순종황제, 나아가 식민지라는 우리에게 갇힌 조선인 전체를 은유했다. 그래서 창경원 설치에 대해 “왜놈이 한국 황제를 동여다가 동물원 속에 집어넣고 오백 년 이씨의 종사를 멸하게 하며 근 지 오천 년 되는 단군 자손이 삼천만이나 되는 것을 금수와 같이 압제”하는 것으로 보거나, “원수가 우리의 종묘사직을 과실밭(식물원)과 동물원”으로 만들어 “다 금수의 터가 되었”고 “지금 덕수궁, 창덕궁은 다 감옥소와 같다”며 분개했던 것이다. 또한 창경원은 정식으로 개원하기도 전에 비공식적으로 개방되어, 순종을 위한 어원박물관이라는 처음의 의도는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이곳은 개원 이후 관광 코스의 하나로 개발되어 경성을 찾은 일본인에게는 식민 지배자로서의 우월감을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게 하는 유희 장소가 되었고, 조선인에게는 박물관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근대적 생활 방식의 감수성을 체험하는, 그래서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내면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일제의 의도이건 민권사상의 발로이건 창경원 관람은 점차 식민지 조선인의 해방구가 되었다.

동물의 삶과 죽음

창경원 개원 이후 동물 수집이 본격화되었다. 1909년 12월 어원사무국에서는 돈 4,000원을 들여 코끼리 한 마리를 구입할 계획을 세웠으며, 1910년에는 호랑이와 표범 등과 같은 맹수를 사들였다. 특히 코

다시 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위 창경원의 호랑이
오른쪽 창경원의 코끼리



끼리와 같은 이국적인 동물은 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매천 황현의 일기에도 1910년 인도산 코끼리를 구입하여 동물원에서 사육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1912년 11월 14일자 매일신보에는 그 해 여름 몸값 4,000원에 수입한 인도산 암컷 코끼리가 수컷 코끼리와 부부로 잘 지내다가 위장병에 걸려 앓다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처음 수입된 것은 1910년의 일이며, 수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수컷 코끼리와 부부의 연을 맺어주기 위해 1912년 암컷 코끼리를 다시 수입했으나 그 코끼리는 이 땅에서 6개월도 살지 못하고 병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코끼리 못지않게 사랑을 받은 동물은 하마였다. 하마가 창경원에 들어온 것은 1912년 6월 4일로, 동년 가을 준공된 6동의 동물온실 중 제1온실(코끼리사와 하마사)에 수용된 하마 부부는 1914년 첫 출산 이후 1937년까지 12마리의 새끼를 분만했다고 한다. 순종이 승하한 해인 1926년 하마 부부는 일곱 번째 새끼를 낳아 창경원은 국상 중 순산의 경사를 맞기도 했다. 그리고 이 수컷 새끼는 2년 뒤인 1927년 일본의 우에노동물원으로 7,000원에 수출되었다. 우에노동물원은 1911년 창경원보다 1년 앞서 하마 한 마리를 첫 수입했으나 1년 5개월 만에 죽자 오랫동안 하마 없이 보내야 했다. 1919년에 가서야 창경원에서 암컷 하마 한 마리를 기증받아 기르다가, 1925년 창경원에서 태어난 수컷 하마 한 마리를 수입하여 1927년 혼례를 치르게 한 것이다. 당시 신문에서는 11세의 올드미스와 2세의 모던보이의 결혼이라 하여 크게 기사화했다. 또한 1934년에는 창경원 동물원에서 태어난 3세 된 하마가 나고야동물원으로 장가를 가게 되었고 1935년에는 두 살 된 하마가 오사카동물원으로 출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으로 보내진 네 마리의 하마는 모두 창경원의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1910년 가을 일본의 교토동물원에서 처음 들여온 사자는 하마만큼 번식률이 높았다. 1933년 3마리의 새끼를 순산한 사자 부부는 1934년에도 4마리의 새끼를 낳아 창경원의 사자는 1년 사이에 모두 11마리에 달했다. 그러나 11월 23일경 사자 한 마리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한 달 뒤 4, 5년 전에 태어난 두 마리의 사자 남매가 또다시 사망하더니 다음 해 1월에는 아내와 자녀를 잃은 늙은 사자

창경원의 하마



한 마리까지 죽어 동물원의 사자는 절종(絶種)되었다. 이러한 의문사가 사자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희생자인 사자가 죽은 지 4일 후인 11월 27일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별안간 숨을 거뒀으며 1935년 5월에도 그 죽음은 이어졌다. 사자와 호랑이뿐만 아니라 표범과 얼룩말 등 상당한 수의 동물들이 병에 걸려 사망했으며, 특히 묘과에 속하는 동물이 줄초상을 당하자 경성제국대학 병리학교실과 부속병원에서는 죽은 사자와 호랑이를 해부하여 사인을 찾고자 노력했다.

먼저 조선총독부 세균검사실에서는 1935년 1월 8일 그 사인이 출혈성 패혈증에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염 경로는 사육사와 식기, 식물(食物) 등을 통해서나 동물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도 매개된다고 하여 철저한 소독과 격리를 엄중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병인을 둘러싸고 경성제대 의학



출산을 기다리는 사자 부부
조선일보, 1940년 1월 18일

부, 경성부 위생시험실, 총독부 세균시험실 등 의학계의 논쟁은 계속되었으며, 동년 2월 10일 경성제대 의학부와 조선군수의부(朝鮮軍獸醫部)에서 마비저균(馬鼻疽菌)에 의한 감염이라는 연구 결과와 진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끝을 맺었다. 이렇게 병인이 밝혀지고 전염병 경로가 사료인 말고기였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창경원의 공포는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축사를 대소독하고 새로운 맹수촌을 계획하는 한편 다시 일본 각처에 있는 동물 수입상을 통해 맹수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사자와 호랑이는 물론 아직 일본에도 없는 북미산 퓨마 두 마리도 들여왔으며, 1937년에는 호주에서 캥거루를 처음으로 들여와 관람객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1932년 11월 이왕직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맹수들의 의문사를 포함하여 그것이 자연사이든 병사이든 동물원에 들어온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자 창경원 동물원 개원 이래 폐사한 4,000여 마리 동물의 영을 추도하기 위해 각과의 승려들을 초빙하여 동물원 광장에서 동물위령제를 거행하였

다시 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다. 1936년에도 창경원 개원 이래 죽은 동물과 기르는 동물의 사료가 된 동물의 위령제가 성대하게 열렸으며, 이를 위해 관람료를 할인하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창경원과 공간의 정치학

창경원에 가려는 관람객은 대중교통수단인 전차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전차를 이용할 때는 종로 4가에서 분기하는 창경원선을 타고 창경원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되었다. 이 창경원선은 창경원이 개원하자 폭주하는 관람객을 수용하기 위해 1910년 12월 20일 신설한 노선이었다. 이 노선은 1915년 10월 30일 복선화되었으며, 1941년 7월 21일에는 돈암동 네거리까지 연장되었다. 또 다른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려면 혜화동로타리 쪽으로 가는 고등상업학교행 부영버스를 타고 창경원 앞 정류소에서 내리면 됐다. 이 부영버스는 1928년 짐승하는 교통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경성부에서 직접 운영한 것으로, 1933년 경성전기주식회사에 경영권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전차의 보조수단으로 운영되었다. 전차나 부영버스 외에 유람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으나 이는 주로 경성에 관광차 온 일본인과 외국인이 이용했다.



창경원 평면도, 1940
(출처: 《한국동물80년사: 창경원 편》, 서울특별시, 1993)

버스를 타든 전차를 타든 창경원 정류소에 내리면 홍화문을 통해 창경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면에 보이는 명정전을 중심으로 식물원은 우측 비원과 맞닿은 곳에 있었고 동물원은 좌측 종묘와 내전(낙선재)으로 둘러싸인 지역인 선인문 안 보루각 일대에 배치되었다(위 그림). 그런데 1931년 5월 시구개정 사업에 따라 돈화문에서 경성제국대학병원 앞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를 뚫는 공사가 시작되어 창덕궁과 종묘 사이를 관통하는 간선도로가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종묘의 북쪽 후원과 동물원 일부가 잘려나가게 됐다. 이 도로의 신설 계획은 조선총독부에서 1912년에 발표한 시수개수 예정 노선에 이미 나와 있었고 1928년 경성부에서 구체적인 공사 계획까지 세웠지만, 전주 이씨 종중의 반대로 4년간 끌다가

결국 창덕궁의 낙선재를 살리는 대신 종묘 후원의 일부를 개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 착공에 이르게 된다. 일제 당국은 광화문에서 안국동을 지나 돈화문을 거쳐 이화동에 이르는 북부 간선도로(현 을곡로)의 개통에 대해 ‘교통의 편리’를 내세웠으나 그 이면에는 조선 왕조의 상징이자 성역인 종묘와 궁궐 파괴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또한 시민들은 주로 종로4가에서 원남동 사거리를 지나 혜화동로타리 방향으로 가는 노선의 버스나 전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도로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따라서 총독부에서 대학병원을 쉽게 연결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한편 일제는 창경궁에 이어 덕수궁에도 동물원 신설 계획을 세웠다. 1933년 일반에게 개원한 덕수궁 안에는 일본의 근대 미술품을 전시한 이왕가미술관이 있었으나 창경원처럼 일반 관람객의 흥미를 끌 만한 것이 없다 하여 1935년 봄부터 동물원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창경원과 같은 규모의 동물원은 관리에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원숭이 위주의 비용이 적게 드는 소(小)동물원으로 계획하였다. 결국 1935년 5월 덕수궁 석조전 앞뜰에 설치된 소동물원에는 일본산 원숭이를 비롯하여 공작과 각종 새 등 총 240여 종의 동물들이 수용되었다. 이러한 박물관 및 동·식물원의 설치는 궁궐 내 수 많은 전각들의 훼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조선 왕조의 상징을 지우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창경궁과 덕수궁이 공원화 계획을 통해 파괴되기 시작했다면, 경복궁은 1915년에 열린 조선물산공진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박람회를 치르면서 허물어져갔다. 이처럼 창경원은 일제의 식민담론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고안된 것이었지만, 한편으론 일제강점기 내내 일반 대중의 여가 활동과 위락을 위해 봉사해온 근대적 도시공원이었다는 점에서 식민지적 이중성을 내포한 공간이었다.

곧 있으면 창경궁에는 벚꽃이 만발할 것이다. 그 옛날 창경원 개원식에 참석한 일본인이 이곳을 일본식 정원으로 꾸밀 것을 제안해서 심은 200주의 벚나무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벚꽃놀이를 즐기면 서도 웬지 서글픈 이유는 나만의 이중적 감상일까?

글 | 이경민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2005년 중앙대 첨단 영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사진아카이브연구소를 운영하며 근대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진사 연구에 관심을 두고 사진 평론과
전시 및 출판, 기획 등의 일을 해왔다.

다시 보는 서울
6人 6色의 서울 리서치

보이지 않는 도시, Under- Seoul City에 대한 짧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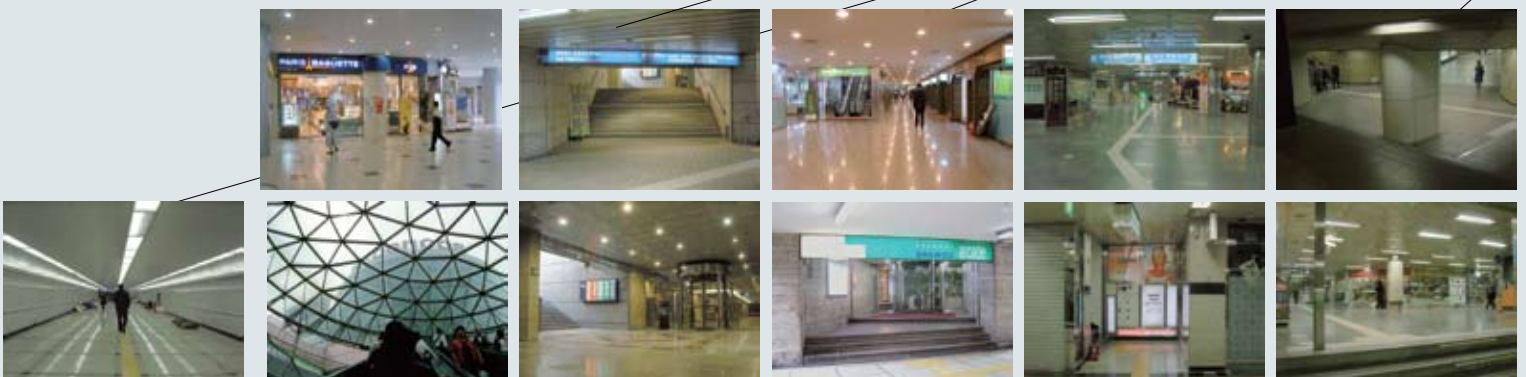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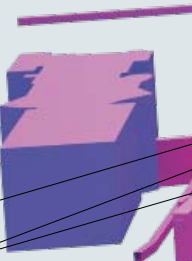
“이제 놀라운 도시 제노비아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 도시는 마른 땅 위에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높은 말뚝들 위에 솟아 있습니다. 대나무와 양철로 지은 집들에는 작은 발코니와 테라스가 아주 많으며, 그 집들은 높이가 다 제각각이고 서로를 가로지르는 지주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나무 사다리와 공중에 매달린 보도가 집들을 서로 연결해주며, 지붕이 원뿔모양인 전망대, 물을 비축해두는 수조, 풍향계들이 집 위로 높이 솟아 있고 도르래, 낙식대, 기증기들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제노비아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 어떠한 필요나 계율이나 바람에 밀려 자신들의 도시를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도시, 아마도 처음부터 계속 겹치고 포개지며 성장했기 때문인 듯, 이제는 그 도면을 알아볼 수 없게 된 도시가 그것들을 충족시켰는지 아닌지에 대해 말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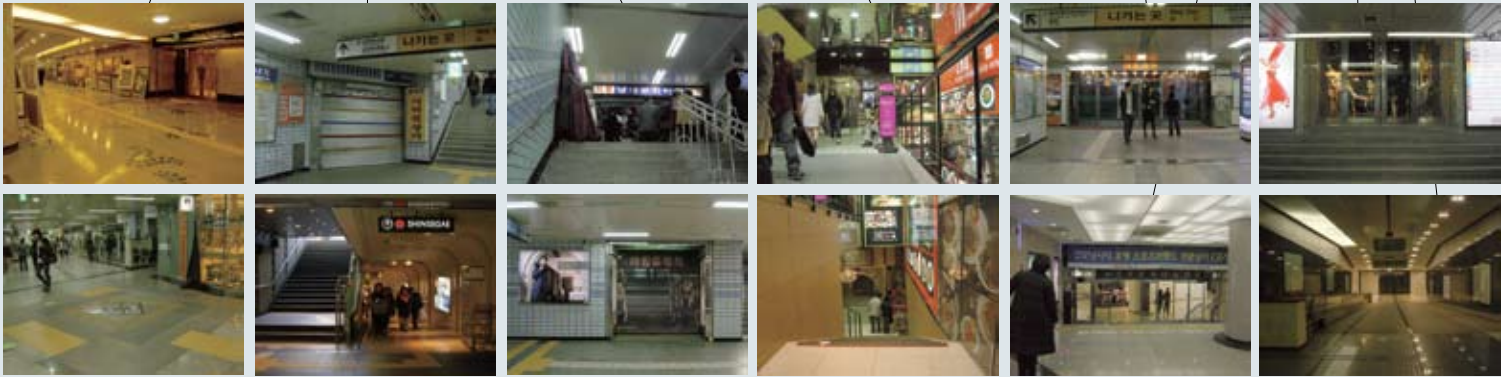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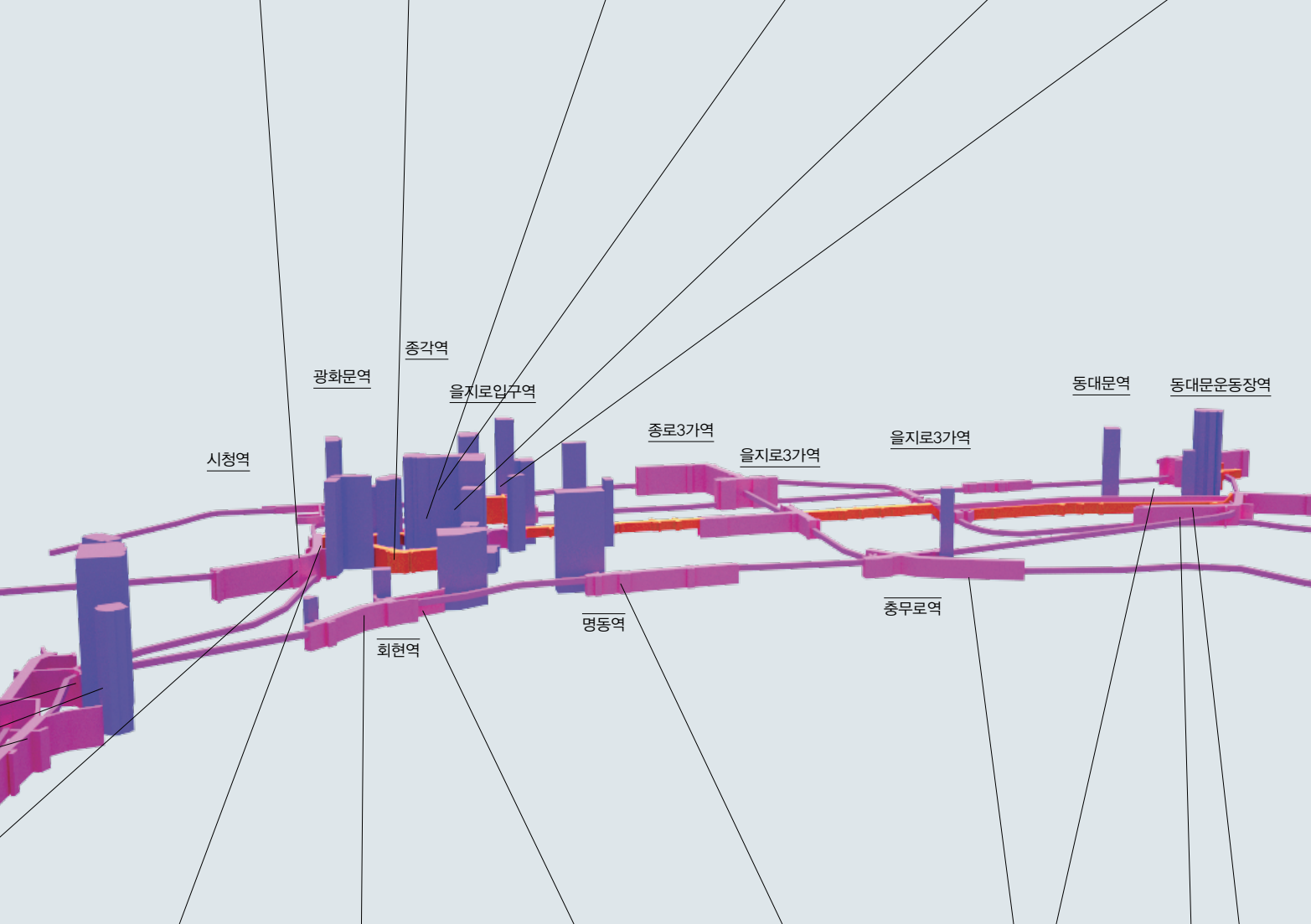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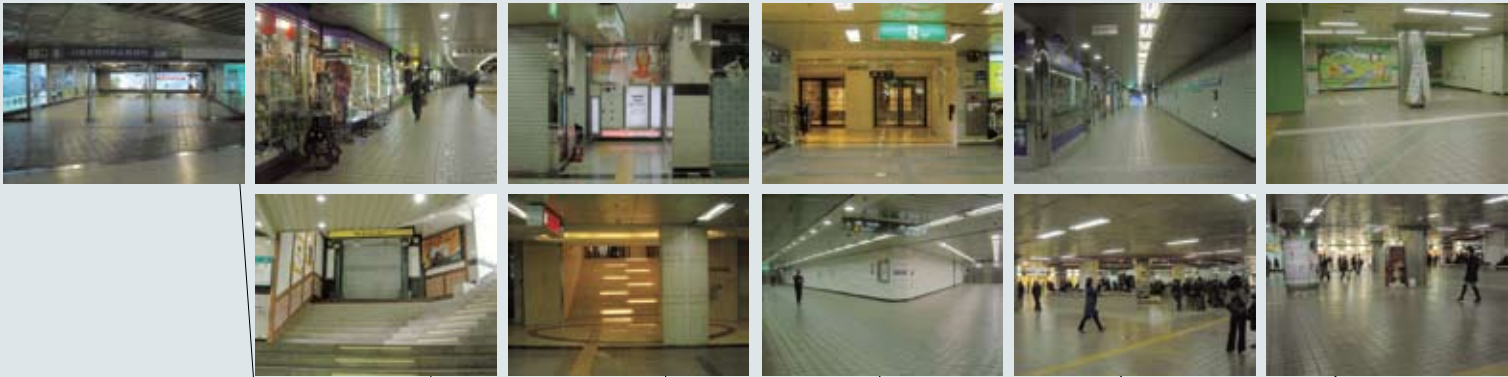
—이탈로 칼비노, 섬세한 도시들 2, 《보이지 않는 도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아스팔트 아래, 또 다른 도시가 존재한다면 어떨까? 정부에 의해 ‘시’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도시의 필요 조건을 갖춘 하나의 도시가 대한민국 서울 안에 존재한다면? 지리한 일상에 지쳐 시작했던 ‘언더월드투어’ 중에, 나는 이 보이지 않는 도시를 발견했고, 언더월드시티라고 부르기로 했다. 다음은 이 도시에 대한 짧은 연구와 추측, 제안을 담은 일종의 보고서다.

서울역





1 현재-관찰, 발견

이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지하에 위치한 보이지 않는 도시에 대한 짧은 기록이다. 흠이 하나 있다면 서울의 강북 사대문 안에 한정하여 직접 조사를 실행했다는 점인데, 발견의 기쁨을 어서 나누고 싶은 마음과 부족한 지면을 핑계 삼아 양해를 구하고 싶다.

지난해에 나는 '언더월드투어'라는 투어 프로그램을 세상에 선보인 바 있다. 일상의 고뇌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깨닫기 위해 자연의 웅장한 스펙터클을 찾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또는 나처럼 지리한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해, 가까이에 있는 언더월드—지하철로 연결된 지하공간—를 여행하는 여러 방법들을 제안한 것이다. 아직까지 언더월드투어 가이드를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걸 보면 그다지 호응을 얻지는 못한 것 같지만, 스스로는 종종 투어를 실행하고 있다. 그날도 어느 때처럼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청역을 탐험하고 있었다. 위대한 발견은 언제나 우연에서 비롯된다고 누가 그랬던가. 서울프라자호텔과 한화빌딩이 연결된 소공지하보도 초입에 서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생각하던 찰나에, 나는 깨달았다. 지하철 2호선을 따라 동대문운동장까지 연결되는 시청 앞 지하보도와 롯데타운을 연결하는 소공지하보도, 그리고 이 역에 연결된 건물들,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모두 이어 떠올렸을 때, 그것은 다른 아닌 모든 기능을 갖춘 하나의 도시와 같다는 것을!

나는 이 직감에 확신을 더하고자, 근처의 역을 탐험하기로 했다. 잡화점이 늘어선 시청역 지하보도는 프레지던트 호텔, 부산은행빌딩(금세기빌딩), 그리고 롯데호텔로 이어져 있었고, 을지로입구역은 하나은행본점빌딩, 복스리브로 빌딩(내외빌딩), 롯데백화점본점, SK네트웍스빌딩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이 발견이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니며 내가 숨겨진 비밀에 다가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단순히 서울시의 하부 구조로 치부하기에 이 거대 구조는 분명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시'로 분류되기가 힘든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행정법이 도시의 기준으로 정한 거주자 인구 수—5만 명—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에 이 지하도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인구가 무려 4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에서 존 리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을과 도시를 구분할 때 규모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내에 사회경제적 분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나는 이 발견을 가능케 해준 언더월드투어에 대한 오마주를 담아 이 도시를 언더월드시티라 명명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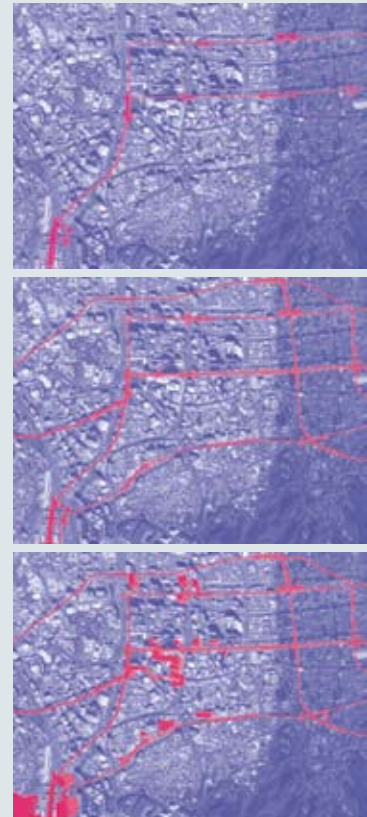


시청역, 새서울 지하상가 근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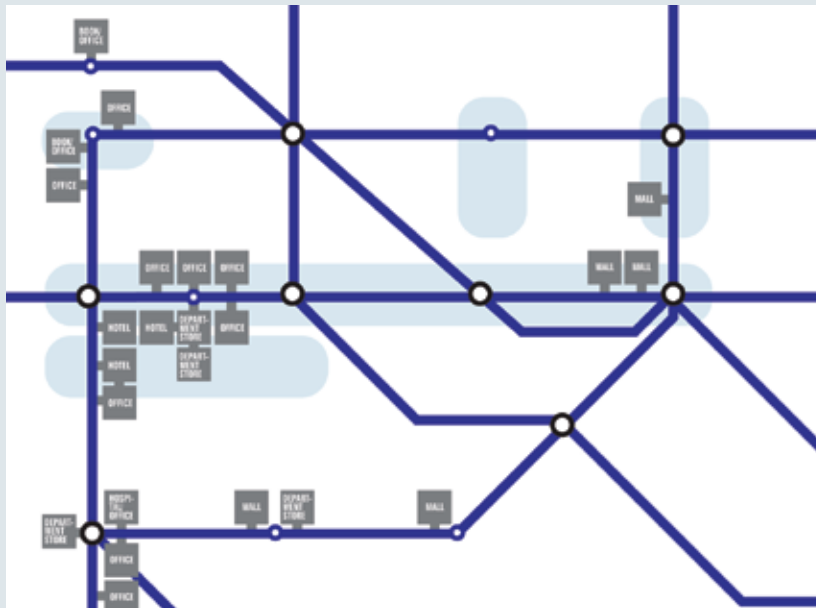
2 과거-조사, 연구

이 도시의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언더월드시티를 지탱하는 골격과 같은 지하철이 넓게 뻗어 있고, 지하철역이 각기 다른 지하철들을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보도와 지하상가가 지하철을 따라 중간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들이 지하철역과 지하상가의 출입구에 연결되어 있다. 굳이 경계를 확실히 하자면, 지하의 구조물뿐만 아니라 지하로부터 연결되어 외부에 나가 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건물을 포함한다. 총면적이 파악된 적은 아직 없으나, 건물군을 제외한 지하공간의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인 157만7,611㎡로 추정하고 있다.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0~30m 사이가 통상적이지만, 지하 55m(8호선 남한산성역)까지 이르는 곳도 있다. 높이는 더욱 다양하며, 가장 높은 곳은 강남역에 연결된 삼성전자빌딩 C동으로 약 200m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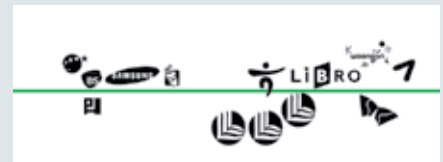
언더월드시티의 역사는 서울시청 앞 새서울지하상가가 개장한 1967년에 시작한다. 1970년 인현지하상가, 1971년 신당지하상가 등이 잇달아 개설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도시의 골격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은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한 1974년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용객 숫자도 꾸준히 늘어, 1976년에 하루 수송 승객이 4만 명이던 것이 2년 후인 1978년에는 7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지하철 2호선이 1980년에, 3호선과 4호선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네 개의 교통 축을 따라 1985년 개통하였으며, 꾸준한 확장을 거쳐 현재에는 총 8호선의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다. 지하상가 또한 꾸준히 지어져 현재 30여 개의 상가가 분포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약 6,000m의 지하보도가 개발되어 있다.



언더월드시티 확장 과정
(1964~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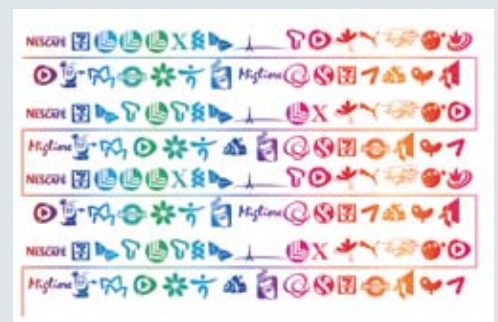
언더월드시티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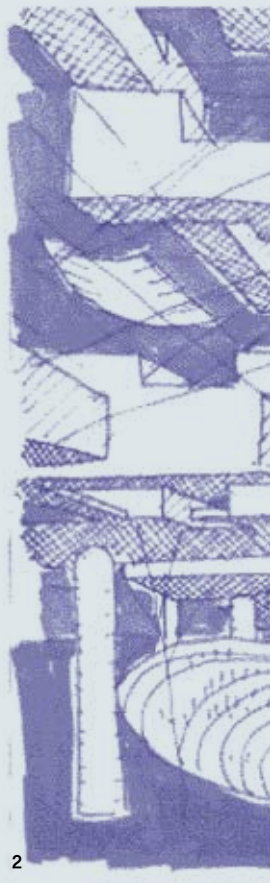
구조와 건물의 연결 (시청—을지로입구)



도시의 확장



도시의 확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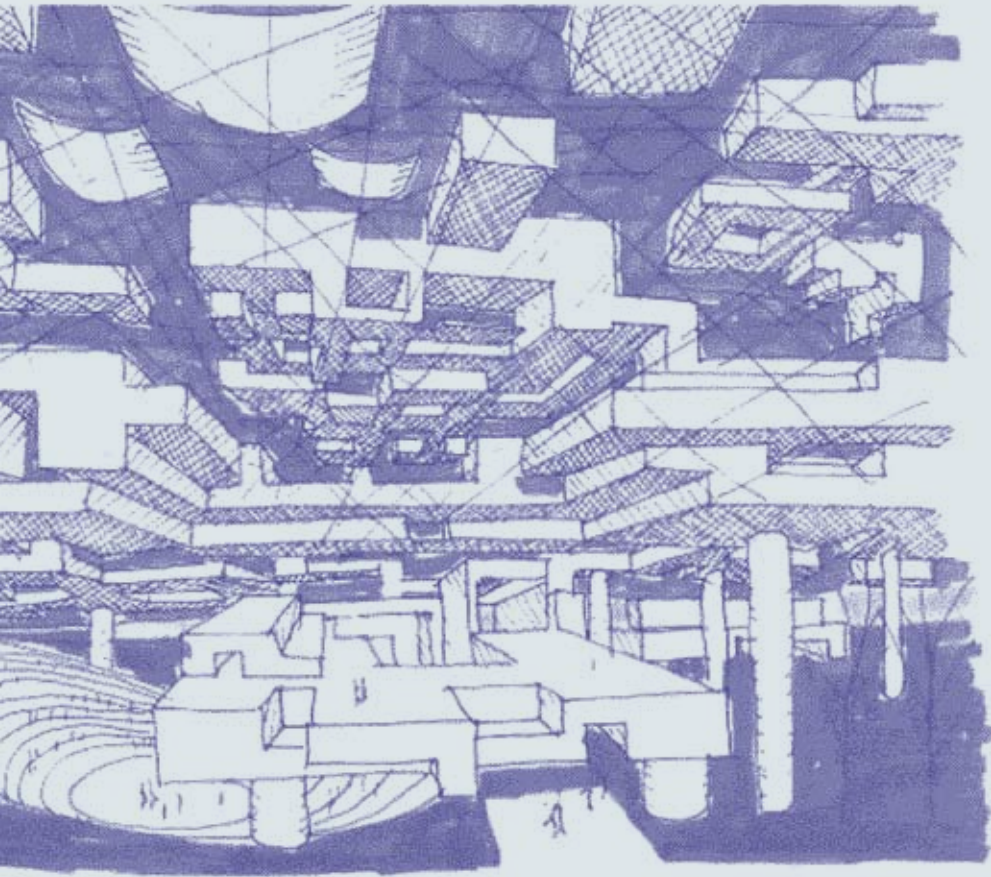
위와 같은 지하도시의 전체적인 골격을 이루는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보도의 개발은 정부와 서울시가 주도했지만, 계획 단계에서 각 시설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에 연결된 건물군 또한 역사 건설을 위한 민자 유치 등을 이유로 지하철과 함께 계획되어 연결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 지하 입구를 만들어 개별적으로 연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도시의 현재는 계획된 구조에 자유롭게 더해진 다양한 프로그램의 건물들이 조직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1 언더월드시티, 공중, 2009

2 요나 프리드만 Yona Friedman, 공중도시, 1958

3 현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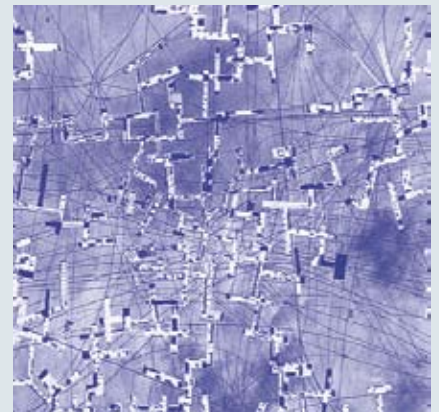
넓게 뻗은 구조와 거기에 자유로이 연결되어 꾸준히 그 수가 늘어나는 건물군, 나는 문득 이 그림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서 이 도시를 수직으로 드래그하여 하늘로 옮겨보았다. 텅. 공중도시. 요나 프리드만의 공중도시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다. 요나 프리드만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헝가리 출신의 건축가로 1957년 가변건축연구집단(GEAM)을 만든 사람이다. 그가 말하는 가변건축의 기본 개념은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완성되는 조립식의 가변적인 구조가 있고, 각 건물의 구체적인 디자인은 거주자 개인의 취향에 맡기는 건축을 말한다. 이 개념을 발전시켜 1958년에 발표한 것이 바로 공중도시 La Ville Spatiale다. 공간적 하부 구조라 이름 붙은 3차원 구조물이 지상에서 10m 높이에 6m의 모듈로 설치되어 있고, 거주자들이 디자인한 주거 프로그램이 그 하부 구조에 들어서는 시스템이다. 공간적 하부 구조를 지하철과 지하철역으로, 주거시설을 각각의 건물들로 대체해보면, 이 두 도시는 하늘에 떠 있느냐 땅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위치 차이 정도가 아닐까. 여기서 우리는 요나 프리드만이 공중도시를 발표하던 전후로 영국과 북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소련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 지구적으로 이런 종류의 작업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가까운 일본에서 메타볼리즘이란 이름으로 거대 구조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었을 당시, 사회 경제적으로 일본의 지대한 영향 아래 놓여 있던 우리나라가 과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을까?



아라타 이소자키 Arata Isozaki,
Clusters in the Air, 1962



피터 쿡 Peter Cook, 플러그인시티,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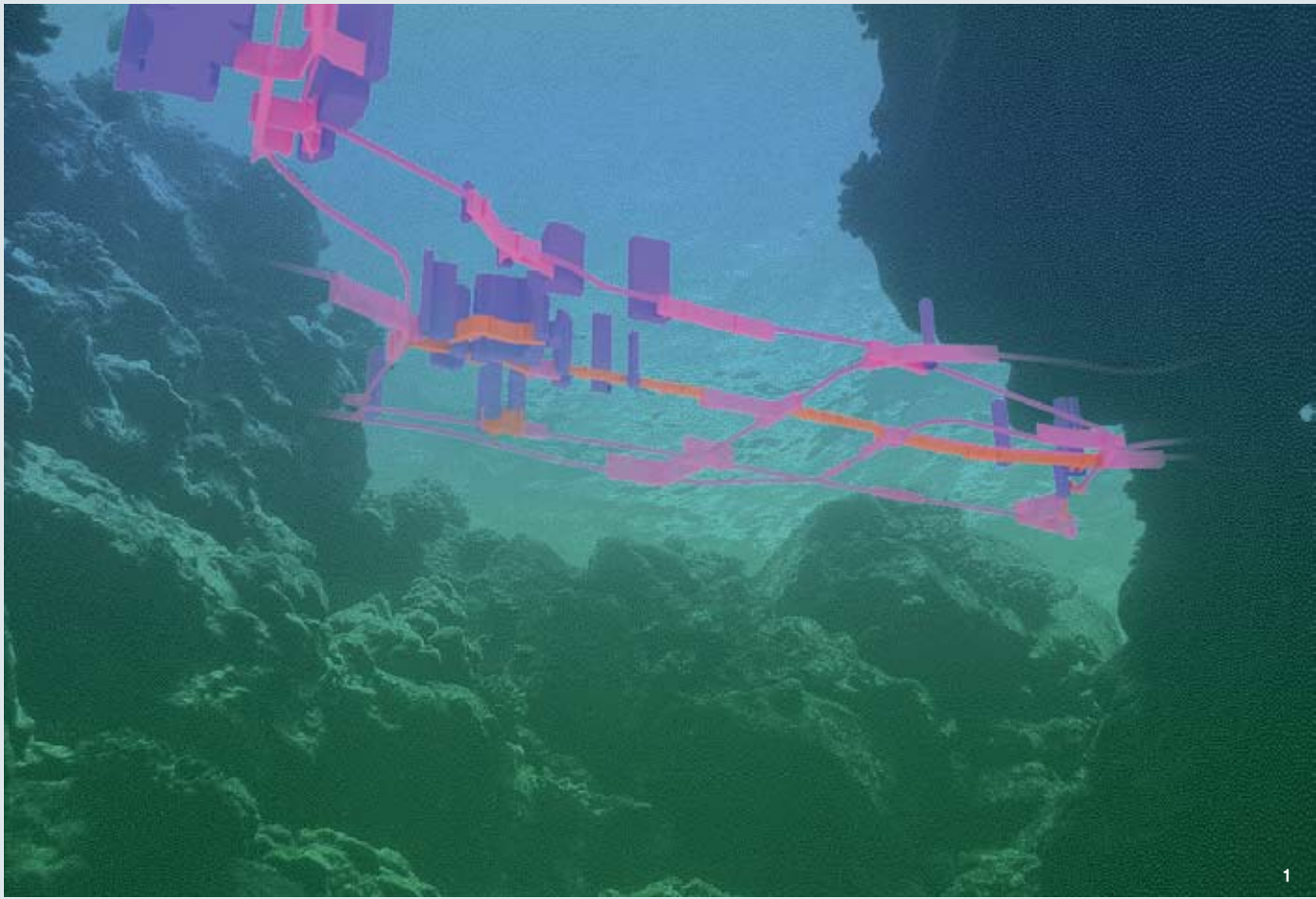


콘스탄트 Constant, 뉴 바빌론, 1950

나는 여기서 무리한 가설을 하나 내놓으려 한다. 혹시 이 언더월드시티가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었으나 단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비극적 운명의 메가스트럭처가 실현된 사례는 아닐까? 누군가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도시이자 거대 구조물은 아닐까? 당시의 정황을 면면히 살펴보면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다시 시계를 돌려 추측해보기로 했다. 언더월드시티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새서울지하상가의 개장이 1967년. 당시의 서울시장은 ‘불도저’란 별명이 붙은 김현옥 시장이었고, 그의 여러 개발 계획 중에는 불행한 운명의 세운상가도 있었다. 젊은 건축가 김수근이 처음 계획했던 세운상가는 서울의 세로 축을 공중 가로로 잇는, 주거·상업·교육·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자 도시였다. 비록 설계대로 지어지지 못한 채 몇 년 내에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 지구를 통틀어 메가스트럭처가 실제로 실현된(또는 실현될 뻔한) 단 하나의 사례라고 회자되기도 한단다. 이 세운상가가 완공된 것이 1968년. 놀랍게도, 이제 막 지하상가가 개장하고 지하철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던 시점과 일치한다. 누군가가 세운상가에서 실현되지 못한 메가스트럭처의 안타까운 꿈을 이 언더월드시티에 남몰래 투영한 것은 아닐까?

4 미래-또 가설

언더월드시티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미래 계획은 다양하다. 우선 작년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도로인 대심도 도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심도 도로는 지하 50m 이상 깊이인 대심도 공간에 건설되는 도로를 말하는데, 당시 기사에 따르면 “도심·부도심 대심도 도로는 중간중간에 공영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연결하고, 민간 빌딩 지하주차장과도 연



계 통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 발표했다. 이는 언더월드시티의 구조 축이 지하철에서 나아가 자동차도로로 확장된다는 이야기이며, 그것은 곧 언더월드시티의 성장을 의미한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지하공간 개발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 10~30m 깊이의 공간에 대해서도 지하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법을 정비하려는 시도와 함께 규제 완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언더월드시티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이유를 지상의 토지 부족과 천문학적으로 상승하는 토지보상비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뿐일까? 나는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멈출 수 없다. 지하개발이 시작되던 시점은 1967년 해군 초계함이 북한군에게 피격되고, 1968년 북한의 무장특공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미수에 그쳤는가 하면, 1969년 대한항공여객기가 납북되는 등 특히 북한과의 관계가 불안하던 때가 아니던가.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던 1974년은 다른 아닌 북한의 땅굴이 발견된 해다. 혹시 이 언더월드시티는 정치적, 군사적 목적하에 계획된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은 요나 프리드만의 공중도시처럼 하늘로 이동할 수도, 콘스탄트의 뉴바빌론처럼 들판 위로 이동할 수도 있는 메가스트럭처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첨단 방공호는 아닐까? 대지에 얽매이지 않고 이동 가능한,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해 만든 새로운 종류의 도시는 아닐까?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가설이란 이름을 붙이기조차 어려운 터무니없는 상상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도시를 사실로 인정하기 싫은, 거기에 더해 희망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가까운 미래를 부정하고 싶은 한 젊은이의 현실도피성 농후한 꿈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지하철역 구석 저 굳게 닫힌 문을 열면 언더월드시티를 움직이는 기계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리를 모두 우주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판타지만이 위로가 되는 거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게다가 가설이 사실이 될지 누가 아는가. 나는 오늘도 그 판타지가 실재한다는 확증을 찾기 위해 언더월드시티를 찾아야겠다.

1 언더월드시티, 해저, 2009

2 언더월드시티, 우주, 2009



“사실 제노비아를 행복한 도시로 분류해야 할지 불행한 도시로 분류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은 무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들을 둘로 나누기보다는, 여러 해가 흐르고 변화를 거듭해도 욕망에 자신들의 형태를 부여하기를 계속하는 도시와, 욕망에 지워져버리거나 욕망을 지워버리는 도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편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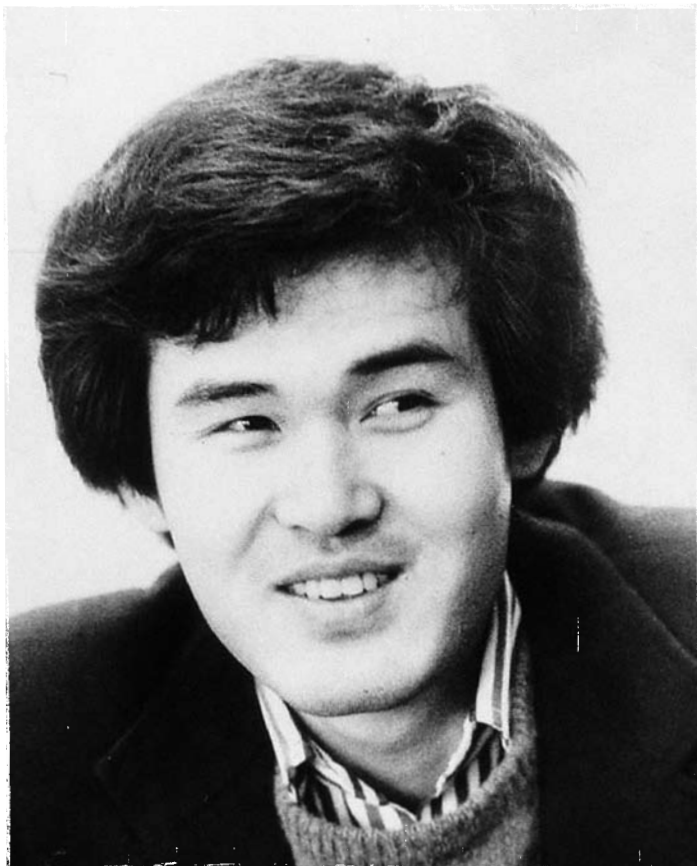
—이탈로 칼비노, *섬세한 도시들 2* 《보이지 않는 도시》,

김경은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 지금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며 틈틈히 개인 작업을 하고 있다. 김경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녀의 홈페이지(www.bykyong.com)를 참고 바란다.

HOT SKETCH
기형도의 도시,
도시의 지형도
-기형도 시를 읽는
어느 푸른 저녁

얼굴에 달라붙는 찬 바람과 비, 사방에서 울리는 클랙슨 소리,
인도까지 올라와 어지럽게 뒤펅기는 자동차 전조등 불빛 그리고
거리를 메우는 인파들의 무표정함과 인형처럼 과장된 웃음.
이 저녁 거리의 사람들 중 아마도 몇몇은 동근 우산을 앞으로
받쳐 든 채 망자를 만나러 가고 있을 것이다. 20년의 궤도를 돌아
기형도라는 행성의 대기권으로 막 진입을 시도하는 유성들처럼
이 스산하기 짝이 없는 저녁, 익명의 우리는 한곳으로 모일 것이다.
기형도 그가 죽었던 3월의 그날 밤도 오늘과 같았을까. 이젠
정말이지 '기형도'스러운 저녁이 아닌가.



기형도의 도시, 도시의 지형도

기형도 시를 읽는
어느 푸른 저녁

시인 기형도의 20주기를 맞아 문학과지성사에서는 ‘기형도 시를 읽는 밤’ 추모 낭송회를 홍대 부근 이리 카페에서 개최했다. 지하에 위치한 이리 카페는 마치 지하 동굴 유적지처럼 입구로 이어지는 계단이 좁고도 가팔랐다. 출입구에는 낭송시가 프린트된 인쇄물과 20주기를 맞아 출간된 기념문집 《정거장에서의 충고》(기형도는 누나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시집 제목으로 ‘정거장에서의 충고’를 유력하게 염두에 두고 있다고 썼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유고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이 표비처럼 놓여 있다. 그리 넓지 않은 어두운 실내에 이미 그와 그의 시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평론가 김현이 “그의 육체는 그의 육체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환영처럼, 그림자처럼 존재한다”고 말했던가. 그로부터 20년 후, 그 ‘육체’의 자리를 ‘시(詩)’가 대신함으로써 비로소 기형도는 시인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좁은 무대가 꾸며진 카페 중앙 벽면에는, 유골함 같은 사각의 프로젝터에서 빠져나온 청년 기형도의 사진이 유령처럼 떠 있다. 낭송 무대를 중심으로, 정면과 우측에는 독자를 비롯한 취재진, 좌측에는 낭송을 준비하는 시인, 소설가들이 대기하고 있다. 저녁 7시 정각. 낮은 채도의 조명등 아래로 사회자가 등장했다. 좁은 의자나 바닥에 무릎을 안고 앉은 사람들 사이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인이자 3호선버터플라이의 보컬인 성기완 씨의 농담 섞인 가벼운 진행으로 행사는 시작되었다. 오늘 이 자리를 기형도를 기리는 침울한 제사가 되기보다는, 20주기를 기념하는 소박하고 즐거운 파티로 꾸며보자는 내용의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낭송회가 시작되었다. 낭송회는 후배 문인들의 애송시 낭독, 그리고 자작 헌정시 낭독, 마지막으로 기형도와 문우지정을 나눴던 동시대 문인들의 시낭독과 회고담 순으로 이어졌다.

시인 기형도와 《입 속의 검은 잎》

기형도는 1960년에 경기도 연평에서 태어나 이십대의 한 가운데를 건너던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

단에 데뷔했으며, 첫 시집 출간을 준비하던 1989년 봄 새벽 종로의 한 심야 극장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되었다. 중앙일간지 기자로서의 녹록치 않은 일상을 견디며 간간히 발표한 그의 시편들은 소설가 성석제 등의 지인들에 의해 갈무리되어 당대의 비평가 김현에게 건네지게 된다. 그렇게 김현의 해설과 함께 그가 붙여준 《입 속의 검은 잎》이라는 제목으로 2개월여 만에 유고 시집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일 년여 뒤에 김현 또한 세상을 버렸으니, 온통 죽음의 예감으로 가득 찬 시집이 아닌가. ‘망자의 혀가 거리에 흘러’ 넘치는 기이한 도시의 풍경을 그린 표제작 ‘입 속의 검은 잎’을 비롯한 기형도의 시편들은 김현에 의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 명명된다. 그의 시에는, 사실적이며 반복적인 일상이란 ‘무덤’ 속에서 망자들처럼 소통 불가능한 타자들 간의 비극적 편린들이 섬뜩한 빛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눈에 보이는 단일한 시선만으로 묘사되는 현실은 이미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다변화하는 현대에 이르러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는 혼자 자립하기 힘들게 되었다. 기형도가 활동했던 1980년 중후반 문단에는 리얼리즘 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당시 기형도의 시는 그런 점에서 독창적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시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해졌지만, 통시적 관점에서 기형도의 시는 아직도 여전히 파격적이며 매력적이다.

20주기를 기념하는 소박하고 즐거운 파티

성기완 씨는 내내 무심한 농담과 간략한 멘트로 행사를 진행했다. 소설가 한강 씨와 김중혁 씨가 기형도의 시 한 편씩을 낭독하고, 사회자와 함께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이어서 또 다른 후배 시인인 함성호, 진은영, 최하연 씨가 기형도에 대한 오마주로써 준비해온 헌정시를 낭독했다.

나는 인생을 증오한다(‘장밋빛 인생’),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정거장에서의 충고’),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질투는 나의 힘’)라고 썼던 이십대의 청년 시인. 무엇이 젊은 그에게 이토록 단호한 절망을 가

HOT SKETCH
기형도의 도시,
도시의 지형도
-기형도 시를 읽는
어느 푸른 저녁



능케 했을까. 23년간이나 지속되던 아버지의 병, 그로 인한 가난, 돌연한 누이의 죽음 등을 겪었던 유년 시절은 그렇지만 꼭 그만의 아주 특별한 불행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예민했던 감성으로 인해 유년의 상처와 거대 도시의 일상은 서로 반응하며 시로 표출된다. 그의 시집에 그려진 도시의 모습은 하나같이 절망적이고 기이하며 우울하다. 도시의 폭력성과 통속성을 알레고리적으로 형상화한 그의 시편들은 분명히 1980년대 후반 도시의 한 단면에 대한 기록이다. 그의 대부분의 시들이 그렇듯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련다...”라고 시작하는 시 ‘정거장에서의 충고’ 또한 결국 절망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이런 희망에 대한 시도를 주목하자. 과연 이러한 그의 시도는 단지 절망의 충격을 배가시키기 위한 시적 장치에 불과한 것일까?

‘기형도 시를 읽는 밤’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후배 문인들이 주로 기형도의 시집을 읽으며 보냈던 문청 시절의 개인적 이야기를 했다면, 이문재, 황인숙, 성석제 씨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생전 시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고인의 동문이자 문우였던 소설가 성석제 씨는 “형도가 황망히 우리 곁을 떠나고 5주기까지는 말 그대로 정말 침울한 제사였다. 벌써 20주기를 맞았고 아직 그를 잊지 않고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분들이 많아 오늘은 오히려 기쁜 날이다. 그리고 20주기를 맞으며 변한 건 그것만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청년이지만, 나는 이제 중년이고 눈은 침침해졌으며 살도 많이 켜졌다. 기형도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나보다도 살이 많이 켜졌을 스타일이다”라고 소회를 밝혀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성석제 씨가 ‘어느 푸른 저녁’을 낭송했다.

그런 날이면 언제나
이상하기도 하지, 나는
어느새 처음 보는 푸른 저녁을 걷고
있는 것이다. 검고 마른 나무들
아래로 제각기 다른 얼굴들을 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중하며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혹은 좁은 낭하를 지나
이상하기도 하지, 가벼운 구름들같이
서로를 통과해가는

나는 그것을 예감이라 부른다,
모든 움직임은 홀연히 정지
하고, 거리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이는 것이다
.....중략.....
아무리 빠른 예감이라도
이미 늦은 것이다 이미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詩 ‘어느 푸른 저녁’ 중에서

기형도와 도시 그리고 서울

뜯지 않은 서류 봉치, 눈이 퍼붓자 눈을 뒤집어쓰고 회고 거대한 서류 봉치로 변해가는 건물들, 무엇인가 열중하며 거리를 걷는 사람들, 이상하게도 가벼운 구름들처럼 서로를 통과해버리는 투명한 푸른 저녁 거리의 사람들.... 기형도 시에 표현되는 서울의 일상적 이미지들이다. 시 ‘어느 푸른 저녁’은 도시의 공간성과 반복적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순간의 ‘예감’으로 밖에 존재할 수 없는 도시의 시간성이 집약적으로 그려진 지형도이다.



낭송회 참여 작가들

1 성석제 2 황인숙 3 성기완 4 진은영 5 한강 6 한유주 7 김종혁

서울. 우리는 과연 서울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사랑하고 있을까. 당신의 대답을 예상컨대, 다시 묻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사랑할 수 없을까. 역사적 또는 개인적 상처가 도처에 적나라하게 기록된 서울이라는 공간을 우리는 적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불행히도 문학은 행복을 이야기하는 순간 마력을 잃어버리는 수정 구슬과 같다. 문학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를 강하게 압박하는, 외부 압력에 대한 내적 반작용이라는 점에서 사실 대부분의 기념비적인 한국 현대문학 속의 도시는 익명성, 반복성, 불모성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민한 도시적 감수성의 소유자였던 기형도가 그려 놓은 서울의 지형도 역시 같은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조심스럽게 그의 시를 읽어보자. '어느 푸른 저녁' 속에서 기형도는 분명히 단지 스침이라는 '비껴감'이 아니라, 존재들 간의 겹침으로써의 '통과함'을 말하고 있다. 익명의 도시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이별하는 삶의 과정을 '서로를 통과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닐까. 결국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구름과 같은 끼어남이 비록 쓸쓸할지라도, 존재의 비껴감보다는 훨씬 더 눈물겹지 않은가.

분명 기형도의 시집은 절망과 우울로 가득 차 있다. 그 절망에 대한 순전함이야말로 20년이라는 시간의 내성을 건디는 마력으로써 작용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절망은 분명 포기와는 다른 말이다. 포기한 자는 시를 쓸 수 없다. 절망이라 말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희망의 지분을 사금처럼 포함하고 있다. 순도 높은 긍정을 위해서는, 완벽한 절망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기형도라는 불멸의 감성에 대해서라면 이러한 명제조차도 패턴화된 공식처럼 느껴지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말하겠다. 기형도 그의 시는 우울하고 선한 눈빛으로 도시를 바라본 청년의 절망과 희망 사이를 길항하는 몸짓이었다고.

사회자 성기완 시인과 한유주 소설가가 기타를 둘러매고 클로징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음악으로 만들어진 기형도의 시 '가수는 입을 다무네'가 연주되었다.

글 | 김종일

200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데뷔했다. 시집으로 《국경꽃집》이 있으며, 시동인, '불편'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다.

HOT SKETCH
플랫폼 2009,
삶과 예술을 엮는
첫 단추를 꿰다





플랫폼 2009,
삶과 예술을 엮는 첫 단추를 꿰다

HOT SKETCH
플랫폼 2009,
삶과 예술을 엮는
첫 단추를 꿰다

단순 목재로 구축된 공간, 그 속에 위치한 골판지 의자와 책상, 책꽂이. 무채색의 무미건조함과 단순한 아름다움의 경계에 놓인 같은 듯 다른 형태와 배치로 이루어진 작은 공간의 도서관 인테리어, 일상의 오브제로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

알록달록 충천연색으로 구성된 오브제, 플라스틱 바구니 등 일상의 물품으로 만들어진 실내 인테리어, 은색으로 반짝이는 쿠칭호일로 덮은 벽, 각기 다른 색과 형태로 구성된 중고 가구들, 그리고 거기에 색을 추가하는 서가의 책들.

2006년부터 시작된 플랫폼 프로젝트가 1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되었다. 2009년 그 첫선을 보이는 ‘플랫폼 2009’ 아트선재센터의 전시 광경은 이렇듯 극단적으

로 대비되는 미감을 보여주는 두 작가, 배영환과 최정화의 프로젝트로 문을 열었다. 3월 7일부터 시작된 ‘플랫폼 2009’는 기존의 플랫폼 프로젝트가 대규모 단기 기획전으로 치러진 것과 달리 올해에는 1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도시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선보이는 ‘내일(來日)’전과 ‘라운지 프로젝트’는 ‘공공(public)’, ‘공간(space)’, ‘삶(life)’이라는 플랫폼 2009의 핵심 키워드를 전달한다.

대중적 예술의 공공성—작가 배영환의 내일(來日)

‘내일(來日)’전에 초청된 배영환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노숙자 수첩’ 프로젝트 이후 국도변에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는 공공적 제안을 제기한 ‘갯길 프로젝트’ 퍼포먼스, 서울 농학교 벽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수화 벽화)과 맹학교 벽화 “‘점자’ 만지는 글, 아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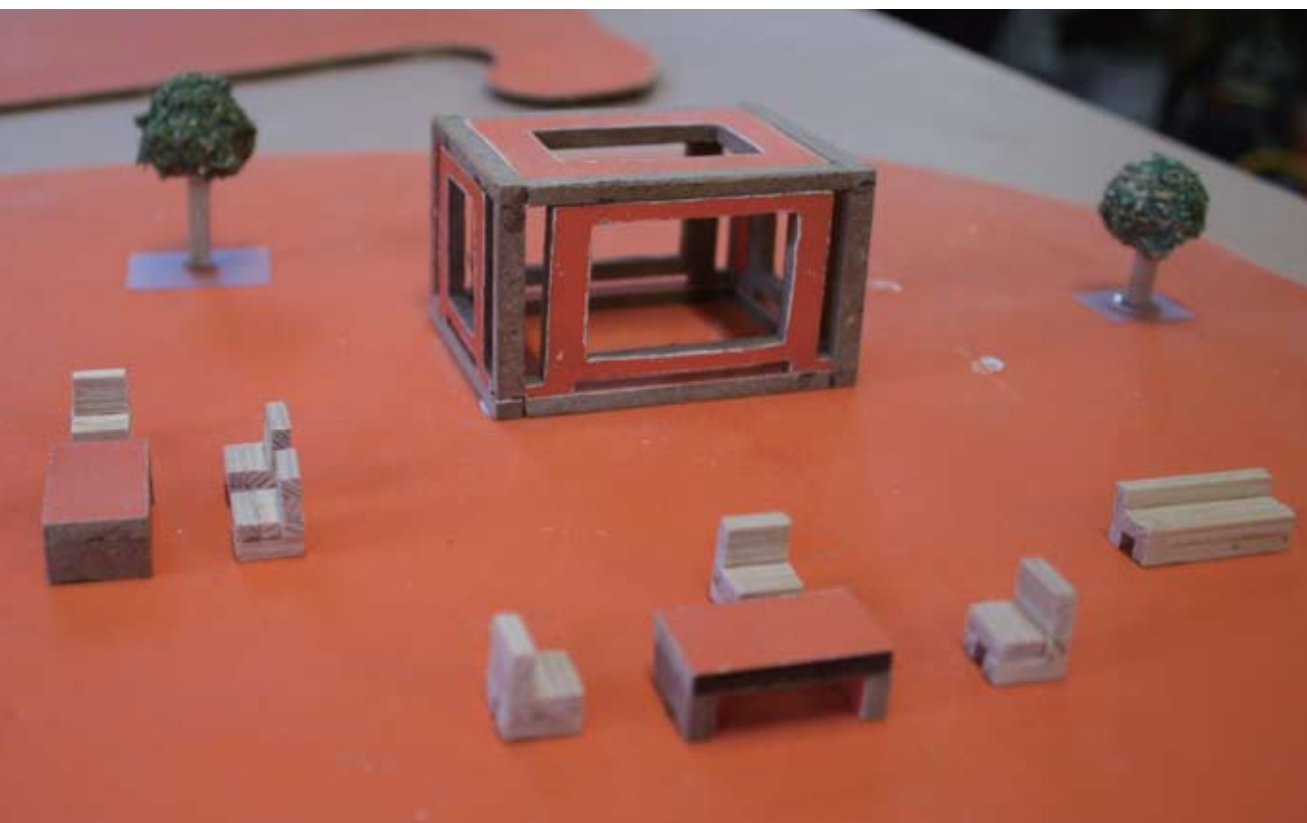
운 기억” 등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공공미술을 선보여 온 작가가 장기적인 실천적 비전을 토대로 진행하는 새로운 공공 프로젝트다.

작가 배영환의 공공 프로젝트 속의 예술의 공공성이란 공원에 놓인 대규모 조각의 모뉴멘트적 공공성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닿아 있고 그 활용이 직접적이며 동시에 미적인 공공성이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발언이나 제안을 넘어 예술가만이 제시할 수 있는 미적이고 정서적인 울림을 갖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사회적 약자와 타자를 생각하는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다.

이번에 초청된 배영환의 ‘도서관 프로젝트’에서 작가의 시선이 닿은 곳은 인문학의 결핍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한국의 궁핍한 도서관 시스템이다. 그래서 작가는 아트선재센터 2층의 전시 공간을 빌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도서관을 위해, 작지만 접근하기 쉬운 컨테이너 규모 도서

관의 ‘모델 하우스’를 제시한다. 이 모델 하우스는 크기의 접근도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방식과 공간 구성 역시 도서관의 독창성과 제작의 용이함 둘 다를 견지하고 있다. 골판지로 만든 가구들은 버려진 폐기물을 예술적 오브제로 전환하는 작가의 사물에 대한 이해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다.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제안을 넘어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지속적으로 실현될 예정인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환기하며 실천적 공공 프로젝트의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그에게 그런 기대가 가능한 것은 작가 배영환이 진행해온 그동안의 공공 프로젝트에 근거한다. 배영환은 노숙자들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노숙자 수첩’을 제작·배포한 ‘소수자 프로젝트: 노숙자 수첩, 거리에서 2001’을 통해 예술과 시대 그리고 예술과 사회라는 오래된 과제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고민의 결과는 교



도서관_테이블_의자_미니어처

HOT SKETCH
플랫폼 2009,
삶과 예술을 엮는
첫 단추를 꿰다



최정화의 '라운드 프로젝트' 전시 모습

흔적이라거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노숙자를 돕는 매뉴얼이지만 그들이 거리의 삶을 ‘유지’ 하는데 긴요한 안내서”(《너희가 미술을 믿느냐》 강태희, 〈배영환〉, 2008) 라는 모순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특징은 평론가 강태희의 말처럼 배영환의 공공적 프로젝트가 단순한 공공의 목적, 혹은 공공의 이용을 넘어서는 것이 되도록 한다.

공공성과 예술성의 경계에서 심각한 괴리감을 보여주거나 일견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현대 공공예술의 담론 안에서 배영환의 작품은 이처럼 예술가의 사회 참여적인 혹은 삶에 개입하는 독창적 방식을 제시한다.

공공의 장소에서 만나는 작가 최정화

라운지 프로젝트

‘배영환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전시공간에 작가의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초청하여 전시함으로써 플랫폼 프로젝트의 지향점을 확장시킨 반면, 아트선재센터 로비에서 진행되는 ‘라운지 프로젝트’는 플랫폼의 전시 개념을 위해 라운지라는 공공의 장소에 작가 최정화의 설치가 접목된 경우이다.

공히 키치적인 아름다움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진 작가의 인장과도 같은 감각과 일상의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은 고스란히 아트선재센터 로비에 표현되었다. 이국적인 듯 하지만 실은 아주 한국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최정화의 감각으로 빚어진 로비 공간은 그의 설치 작품의 전시장이기도 하지만 플랫폼 프로젝트의 공공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공 공간이기도 하다.

아트선재센터는 사실 ‘주차장 프로젝트’나 ‘카페 프로젝트’등을 통해 의외의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장소성’을 제시하거나 예술과 공간을 재 맥락화하는 실험을 개진한 바 있다.

이러한 연결선상 안에서 진행되는 라운지 프로젝트의 전체 공간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뉜다. 한쪽에서는 작가가 새로이 벽을 채색한 예술서적전문서점 ‘더 북스(The

Books: <http://www.samusobooks.com>)’가 방문객들을 맞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기증받은 책들로 구성된 도서관(Self-Organized Library)인 ‘An Offering: Public Resource 어떤 나눔: 공공 자원’이 열린다.

‘어떤 나눔: 공공자원’은 새롭게 맥락화된 로비 공간에서 열리는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및 작가와의 대화가 진행되기도 하고 공공적인 사용을 위한 작가와 기관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책과 음원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삶과 예술 그리고 공간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첫 단추를 꿰 ‘플랫폼 2009’는 지난 10년간 한국 현대미술에 많은 담론을 제기하고 흥미로운 전시를 진행해 온 아트선재센터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그런 이유로 삶과 소통하는 예술을 위한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표방하는 ‘플랫폼 2009’의 다음 프로젝트가 많이 기대된다.

삼청동 아트선재센터에서 개최되는 이 전시는 4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입장료는 3,000원, 입장료 수입은 ‘플랫폼 2009’가 진행하는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다.

글 | 이재영

홍익대학교 미학과 대학원 졸업. 2000년도부터 일주아트하우스 큐레이터를 일하다 2005년 뉴욕으로 장기 여행을 떠났다. 미디어아트와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 2003년 영화 잡지 〈프리미어〉에서 실시한 영화 평론 공모에 당선 후 영화평 기고, 2007년 뉴욕에 대한 문화 기행문 《뉴욕 걷기》를 출간했다. 2007년부터 용인에 위치한 백남준아트센터의 학예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사진

배영환의 ‘내일(來日)’전 | 이인희
최정화의 ‘라운지 프로젝트’ | 정강

HOT SKETCH

내 나이 마흔에는...

무엇을 꿈꿀까?

성미산 마을극장 개관

기념 공연

내 나이 마흔에는... 무엇을 꿈꿀까?

성미산 마을극장 개관 기념 공연

〈라디오 편지 쇼 아줌마 시대-내 나이 마흔에는〉





평일 저녁, 극장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가득 앉아 공연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언니 오빠를 따라온 꼬마 관객부터 지인의 공연을 축하하러 꽃다발을 들고 온 중년의 여인까지, 대충 둘러보니 연인보다는 가족 단위의 관객이 많다. 8시가 되자 극장은 관객으로 가득 찼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무대감독이 나와 관람에 대한 주의사항을 준다. 모두 휴대폰 끄셨나요? 관객은 꺼진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본다. 자, 이제 휴대폰을 켜주세요. 저희 공연에서는 휴대폰을 켜두셔도 됩니다. 진동으로만 해주시고요,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안내자는 진행 데스크에 크게 적혀 있는 휴대폰 번호를 가리킨다. 뭐 이런 공연이 있나, 관객은 웃으면서 휴대폰을 켜는다. 공연 <라디오 편지 쇼 아줌마 시대-내 나이 마흔에는>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HOT SKETCH

내 나이 마흔에는...
무엇을 꿈꿀까?
성미산 마을극장 개관
기념 공연

여자 나이 마흔은 어떤 의미일까.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
놓고 나면 문득 혼자 집 안에 남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때이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과 재테크 등 미래를 그리다가
결국 하루살이 생활에 허둥지둥 지나가는 나이기도 하다.
공연은 여자 나이 마흔에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보여준다. 스튜디오에서 두 명의 라디오 진행자가 사연을
읽으면 중앙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나와 그 사연을 재연해
보인다. 사연도 사연 나름이지만 연기를 펼치는 아마추어
배우들의 모습에 관객은 배꼽을 잡는다. 사연 중간에는
생활을 풍자한 광고도 나오고, 1부와 2부 사이에는 특별
순서로 김포 여성의 전화 활동가들이 원더걸스의 노바디
춤 보여주기도 했다.



1 라디오 쇼 진행자 줌마네
부대표인 로리주희씨와 이혜경씨

2 김포 여성의 전화 활동가들의
특별무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다그쳐 세상과 부딪히며 자아를
찾으려는 여성. 그러나 남편이, 아이가, 자잘한 일상이 오
늘도 힘들게 용기를 낸 아줌마의 발목을 잡는다. 여자는
어디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 -라디오 쇼의 편지글인
<마흔 여자의 길 찾기>는 이 공연의 화두이자 모든 아줌
마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다. 마지막으로 출연진과 스태프
가 함께 거위의 꿈을 부르면서 공연은 끝났다.

공연을 마치고 미처 의상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로 라디오
쇼의 MC 역할을 한 이혜경 씨를 만났다. “저는 작년 6월
부터 참여한 글쓰기 과정 9기생이에요. 이번 공연을 준비
한 사람들 모두 줌마네 회원들입니다. 전문 배우, 전문 스
태프는 한 명도 없고 이렇게 공연을 해본 것도 처음이었
지만 함께 모여서 하니 재미있더라고요. 전 이 공연에서
진행과 대본 정리, 음악 선곡 등을 했어요. 사연은 단행본
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365에 올라온 글 중에 엄선했
서 뽑았어요.”

회원들 중 전문 연기자로 훈련받은 이도 없고 무대 경
험자도 없다. 하지만 대본부터 음악 선곡까지 모두 줌마
네 회원들이 스스로 했다. 이들의 강점은 ‘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었다. 자잘한 일상 속에 위트
가 있는, 무심히 지나던 일을 아줌마의 시선으로 비틀어
보는 글들이어서 공연 내내 공감의 웃음이 쏟아졌다.

무대감독을 맡은 이현정 씨는 말한다. “결혼한 여성
이나 한 적이 있는 여성 모두 줌마네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 나 자신을 찾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은 여
성이 줌마네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온 ‘아줌마’들은
글쓰기 강좌를 듣는다. 줌마네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모색하고 길을 찾는 이들은 평균 나이 40대의 아줌마들이
대다수였다.

줌마네는 글쓰기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1998년부터 마흔 즈음의 아줌마들이 모인 소모임 형태로
출발해 내공 프로그램을 기획해왔다. 무엇보다 현실과 생



애물단지 보물단지 사연 중 〈처음이야〉의 한 장면

활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수업은 아줌마들의 잠재력에 불을 지폈다. 이를 기반으로 2001년 아줌마를 위한 인터넷 해방구, 줌마넷(www.zoomanet.co.kr)을 열면서 지금까지 자유기고가를 꾸준히 배출해왔다. 세월과 입소문을 타고 어느덧 줌마넷은 사이트 클릭 수 100만 회가 넘는 인기 사이트가 되었다.

“1기부터 9기까지의 자유기고가 과정을 기준으로 한 회원이 있고요, 이제 곧 자유기고가 과정 10기생이 출발합니다. 수료하고 나면 자유기고가 명함을 갖고 활동을 합니다. 그동안 누구는 책을 냈고 누구는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만학도가 되기도 했어요. 또 누구는 유기농 반찬 가게의 사장님이 됐어요.”

줌마네는 자유기고가 과정 외에도 마음의 힘 기르기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좌 캠프를 연다. 자유기고가 10기 과정은 3월 20일부터 강좌가 시작되었고, 4월부터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 지역 매체 잡지인 <동네 한바퀴 더>는 자유기고가들이 만들어낸 작은 성과로 창간 준비호를 냈다.

최근 줌마네에 경사가 있었다. 줌마네의 출범 멤버이자 대표로 있는 이숙경 씨가 영화 아카데미를 수료하면서 만든 극영화 <어떤 개인 날>이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어 넷팩상을 받았다. 이숙경 씨가 받은 상이지만 성미산 마을에서 촬영하고 마을 주민이 출연한 영화이니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힘은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입시생 아이들의 교육열을 불태우고 남편의 기를 누르는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억척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아줌마이기를 거부하는 여성도 있다. 하지만 줌마네에서 추구하는 아줌마는 무언가 다르다. 내가 바로

서야 가정과 사회가 바로서는 것처럼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 생활의 지혜를 기르는 것,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이곳에서 추구하는 아줌마의 삶이다. 그 삶을 기반으로 꿈을 찾고 실현할 때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성미산마을극장은 어떤 곳?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미산 마을극장은 2월 7일 개관했다. 2년 전 시민단체 ‘나루’가 이사 올 터전을 마을 주민과 나누고 싶다는 공간을 내놓았고 마을 주민은 선뜻 이 공간을 극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꿈을 이루고 실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무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건물 지하 2층에 꾸민 이 공간은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커뮤니티 극장으로 태어났다. 서울 도심에서 15년째 마을 공동체를 꾸려오고, 공동육아 어린이집, 생활협동조합, 대안학교, 성미산 지키기 운동 등을 해온 마을 공동체로서 극장 운영은 또 하나의 도전이다. 앞으로 라이브 클럽으로, 소극장으로, 영화관으로 운영될 이 곳은 아마추어와 프로, 성과 세대, 예술 장르 등 모든 경계가 넘나드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성장할 것이다.

취재 및 글 | 김민정 기자

희곡, 뮤지컬, 방송원고를 쓰며 살고 있다.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해 ‘문화+서울’ 인터뷰 기사도 종종 쓴다. 열심히 살면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산다.

사진 | 성미산마을극장 제공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04 vol 26

EMERGING SPACE
디자인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
디자인갤러리D+

디자인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

디자인갤러리D+



CASS
MARITIME SEOUL LTD.

한국디자인문화재단
KOREA DESIGN FOUNDATION

café
+
gallery
+
shop

D



DA
0
S
90
1
S
KDP
91
S
1

EMERGING SPACE

디자인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
디자인갤러리D+

지난 3월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디자인갤러리D+가 문을 열었다.
D+는 디자이너는 물론,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러
전시도 보고, 강연도 듣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도 있는 개방된 공간이다.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과 구세군 회관 사이의 호젓한 골목길. 100미터쯤 걸어 들어가면 성곡미술관에 채 못 미쳐, 지붕이 위로 살짝 솟은 2층 건물이 보인다. 이전에는 화봉책박물관이 있던 자리다. 하지만 지금은 테라스의 짙은 남색 차양에 흰 글씨로 쓰인 'Korea Design Foundation'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은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단법인으로 독립되어 나온 기구다. 이로써 디자인미술관은 예술의전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은 교육과 전시, 조사, 연구,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펼치게 된 것이다.

지난 3월은 재단이 분리된 지 1년이 되는 달이었다. 대외적으로 발대식을 치른 것은 작년 5월이지만 실질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올 3월이 꼭 1년째다. D+는 한국디자인문화재단 창립 1주년과 함께 문을 열었다.

D+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치게 되는 것은 자그마한 카

페다. 통로를 따라 몇 발짝 더 걸어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99m² 남짓 되는 공간에 작품들이 놓여 있고, 더 안쪽에는 워크숍을 열수 있는 방이 자리한다. 건물 한 층을 재단 사무실과 나누어 쓰다보니 공간 자체가 그리 넉넉하진 않다. 하지만 디자이너들의 프로모션 공간이자 교류의 장으로, 또한 각종 행사를 통해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었다.

삶에 밀착되는 디자인을 선보이다

'D+'는 이 갤러리의 여러 가능성을 담아내는 이름이다. 건물 밖에서 왼편의 계단으로 올라서면 문화재단 표지판과 함께 'D+', 그리고 '카페+갤러리+숍'이라 쓰인 갤러리 표지판이 걸려 있다. 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D+는 디자인 전시에 '더해' 카페, 워크숍, 디자인 마켓까지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

또한 삶에 '플러스' 요소가 되는 디자인을 소개한다는 의미도 있다. 물론 거의 모든 디자인은 궁극적으로 삶



1



2



3

1 지난 3월 열렸던 'Saving by Design Plus+' 전시 광경
 2 갤러리 카페 내부의 모습. 카페의 내부와 외부에 놓인 테이블은 이번 전시의 아트디렉터이기도 한 디자이너 주상현 씨의 작업으로, 도마를 활용해 만들었다.
 도마 위에서 요리가 시작되듯, 이 테이블 위에서 멋진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3 갤러리 테라스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시멘트 벽돌은 공공디자인엑스포2008년 전시장에 처음 사용되었다.



디자인메이드2008에 재사용된 모습



디자인갤러리D+의 전시장 벽면으로 다시 한 번 활용되었다.

디자이너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사회 문제를 디자인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갤러리에 선보이게 된다.

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그보다 부가가치, 즉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써 또는 소위 말하는 '명품 디자인'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D+에서는 좀 더 삶에 밀착되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의 지혜'와도 같은 디자인을 선보이고자 한다. 사회적인 이슈 또한 D+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디자이너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사회 문제를 디자인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갤러리에 전시한다.

'재활용'을 주제로 한 개관전과 전시 공간

이런 갤러리의 취지를 담은 전시가 지난 3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관전으로 열렸다. 주제는 디자인을 통한 절약(Saving by Design Plus+). 이 전시는 지난해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렸던 디자인메이드 2008-Saving by Design의 '제 2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시가 끝나면 현수막, 포스터, 시멘트 벽돌, 합판 등 한두 번 쓰이고 버려지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다. 디자인메이드가 끝난 후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전시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공모전을 열었다. 여기에 당선된 디자이너 4명, 그리고 디자인메이드에 참여한 작가 13명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 것이 D+의 지난 3월 전시다. 붉은 박스테이프를 이어 붙여 전등갓으로 만든 조명, 현수막과 포스터를 재활용한 컵 받침과 노트, 역시 현수막과 플라스틱 그물망을 활용한 카펫, 전시장 벽면에 붙여 장식했던 쌀 포대로 만든 의자 등 각 작품에서 디자

이너들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들을 엿볼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전시 공간이다. 전시장과 카페의 벽면, 전시장과 카페를 구분 짓는 가벽 모두 회색 시멘트 벽돌을 뿔뿔하게, 또는 덩성덩성 엇갈리게 쌓아 만들었다. 이 벽돌들도 물론 ‘디자인메이드’ 전시에서 온 것들이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그 이전에 벽돌은 공공디자인엑스포2008에서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을 소개하는 전시장에도 쓰였다. “작년 10월 엑스포를 위한 전시 공간 디자인을 할 때였어요. 전시가 단기간인 만큼 ‘최소의 경비, 간단한 설치와 해체, 차별화되는 전시 공간’이란 조건에 맞는 재료를 찾아야 했죠. 이렇게 쓰인 시멘트 벽돌은 모두 해체되어 3주 후 디자인메이드 전시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D+를 위해 다시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아트디렉터로 참여한 이장섭 씨는 시멘트 벽돌이 각 전시의 공간 연출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D+에서도 벽돌은 제 몫을 톡톡히 해낸다. 덩성덩성 쌓여 있어 외부에서 전시장으로 들어오는 빛을 적절히 차단할 뿐만 아니라, 시멘트의 회색빛 그대로 노출된 벽돌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분위기는 다소 거칠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기에 또 안성맞춤이다. 공간은 앞으로 진행되는 전시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를 줄 계획이지만, 시멘트 벽돌은 당분간 그대로 둘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

이번 4월과 5월에 진행되는 전시 또한 흥미롭다. 4월에는 동아리, 스터디 그룹과 같은 소모임을 지원하는 공모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차세대 디자이너와 연구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다.

5월에는 ‘코리아디자인2008’전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은 호돌이, 철가방, 이태리타월, 바나나맛 우유, 모나미 153볼펜, 한겨레신문 창간호를 포함한 52가지 품목을 선정, ‘코리아디자인2008(Korea Design Heritage 2008) 목록’을 발표했다. 이 품목들은 한

국인의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삶과 매우 밀착된 디자인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들을 모아 5월에 직접 대중에게 선보이고, 향후 이 전시를 해외에 순회전 형식으로 들고 나갈 계획이다.

전시장에서 꼭 전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디자이너,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문화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 교육에 초점을 맞춘 과정,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 한국 문화를 디자인을 통해 살펴보는 과정, 무료 공개 특강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D+는 이처럼 다양한 강좌를 열기도 하고, 때로는 참여자들이 제작한 강좌의 결과물을 전시하기도 한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조만간 신예디자이너들이 소규모로 제작한 작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디자인 숍, 디자인 마켓도 열 계획이다.

취재차 둘러본 D+의 건물 안쪽으로는 한국디자인문화재단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역시 그리 여유롭지 않은 공간에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무나도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들이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출판, 리서치,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디자이너와 디자인 활동에 연관된 사람들을 돕다보니 분주할 수밖에 없을 노릇이다. 이러한 재단과 디자이너, 그리고 일반인의 서로 바라는 바가 잘 어우러져 D+가 ‘문화’로서 디자인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한국디자인문화재단 www.designfo.org,
디자인문화아카데미 www.designculture.or.kr

글 | 김이진

전 월간 <디자인> 기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각정보디자인과 패션디자인을 공부했고 현재 조형예술학 석사과정에 있다.
월간 <디자인>을 비롯해 <행복이 가득한 집> <GQ>의 객원기자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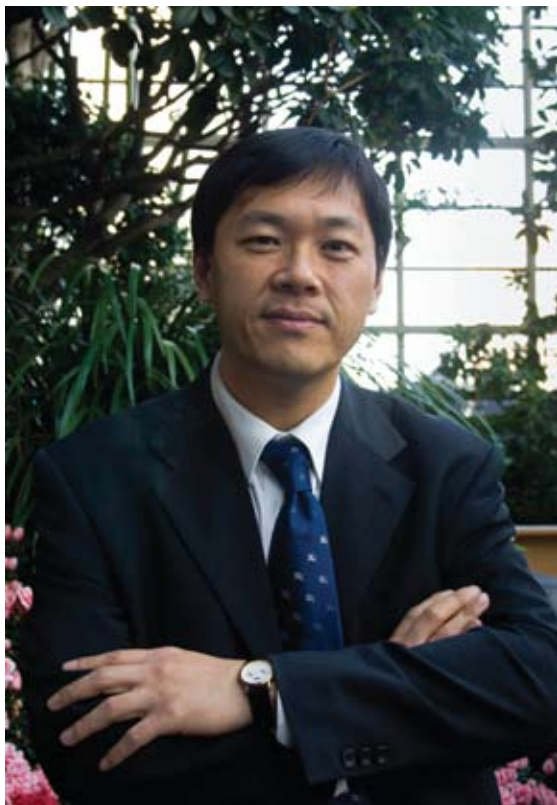
사진 | 한국디자인문화재단 제공

문화를 나누는 손
인내심이
문화를 기른다
대산문화재단 곽효환
사무국장 인터뷰

인내심이 문화를 기른다

대산문화재단 곽효환 사무국장 인터뷰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문화를 하나의 권리로 보았다. 또 다른 프랑스 석학 피에르 부르디외는 '문화 자본'이 얼마나 오랜 시간 세습되며 공고한지를 알렸다. 이 두 프랑스 학자의 말을 절충하면 문화란 21세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권리인데, 이를 얻기란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 번에 땅을 파헤칠 만큼 쏟아지는 소나기보다 봄비처럼 잔잔히 그리고 오랫동안 스며드는 게 바로 문화다. 대산문화재단은 그칠 듯 절대 그치지 않는 봄비처럼 은근히 사람들의 삶 속에 '문학'의 힘을 불어넣고 있다.



얼굴 좀 펴게나

올빼미여

이건 봄비가 아닌가

- 이서의 시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다보면, 사거리 귀퉁이의 교보생명 건물에 큰 시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월부터는 이서의 시에 류재수의 그림이 더해진 글판이 걸려 있다. 여느 기업 건물에 붙어 있는 ‘일어나라! 대한민국!’ 같은 글귀와는 다르다. 교보문고에서 석 달에 한 번씩 제작해 내거는 광화문 글판은 직접적이고 명령적이며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라, 문학과 더불어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린다. 감정을 주입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미묘한 글귀와 시. 문학의 매력이란 머리 대신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마력을 지녔다는 점이 아닐까.

이 글판의 정식 명칭은 ‘광화문 글판’. 18년 전 남달리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던 故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는 세상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시심(詩心)을 도시 한가운데 심길 바랐다. 그런 바람 가운데 ‘광화문 글판’은 18년째 석 달 단위로 서울 시민을 찾는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

‘광화문 글판’은 대산문화재단의 사업 중 하나다. 대산문화재단은 ‘국민교육진흥’, ‘민족자본형성’을 창립이념으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교보생명의 출연으로 창립되었다. 창작문화 창달과 민족 문화 증진, 국제 문화교류 증진을 창립 이념으로 문학 전반에 든든한 뿌리가 되고 있는 대산문화재단 현재의 사업과 앞으로의 포부를 광효환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았다.

대산문화재단의 사업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광화문 글판’에 대해 먼저 물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교보문고 현판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사실 정식 이름은 ‘광화문 글판’입니다. 전국 교보문고 건물에 모두 ‘광화문 글판’이라는 이름으로 걸려 있죠. 광화문 글판은 7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화문글판선정위원회’와 시민들의 참여로 선정된 시구 중 하나를 선정해 석 달에 한 번씩 바꾸어 걸고 있습니다. 1기에는 이청준, 유재천 선생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지요.”

문화를 나누는 손

안내심이

문화를 기른다

대산문화재단 곽효환

사무국장 인터뷰

1 제15회 대산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상하고 있는
신창재 이사장과 소설부문 수상자 김훈

2. 탄생100주년문학인 기념문학제

3 2005년 개최된 제2회 서울국제문학포럼 행사
전경. 좌로부터 김용직, 오에 겐자부로, 김우창,
김병익, 조정래

4 대산청소년문예캠프에 참가한 학생들과
작가(소설가 윤홍길)와의 대화. 문예캠프는
청소년문학상 예심을 통과한 80명의 학생과
심사위원이 함께하는 문학 워크숍이다.

5 제7회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자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아시아, 유럽 등지로 떠나는
해외문학기행의 혜택이 주어진다.

6 교보생명 후원과 대산문화재단 주최로 진행되는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은 3만 명 가까운 지원자
중 선발된 100명의 대학생들이 11박 12일 동안
중국 각지를 방문해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진은 2008년 건국 60주년 및
북경올림픽을 주제로 한 대장정 행사 중 치강
임시정부 피난처사 앞에서



‘광화문 글판’은 시민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문화적 편지’라는 게 광 국장의 설명이다. 또한 이는 기업이 문화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단다.

“1997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IMF 경제 위기가 엄습했던 그때, ‘다시 뛰자, 한국’ 같은 구호들이 난무했습니다.故 대산 신용호 선생은 그러한 구호 대신 이슥 우화에서 발췌한 ‘개미처럼 모아라. 여름은 길지 않다’라는 문구를 광화문 글판에 새겼습니다. 그 후 고은의 낯선 곳 등 도전정신을 제기하려는 문장들도 많이 선택해서 넣었고요.”

광 국장은 시민들에게 가르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같이 호흡하려는 태도를 취한 게 호응의 비결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계몽적인 태도를 배제한 채, 시민과 ‘문화’라는 것을 매개로 함께 호흡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광화문 현판이 18년이 된 지금까지도 꾸준히 주목받는 한편, 늘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내심의 결과가 아닐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해 보는 일이지요. 쉬운 작업 같아도 한 번 글판을 바꿀 때마다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차라리 ‘보훈은 교보생명에 드세요’라고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더 큰 위로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처럼 대산문화재단의 사업은 짧은 호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문화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사업은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우리 문학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창작문학창달’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업은 ‘대산문학상’이다. 창작문화창달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번역 등 5개 부문을 시상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 문학상이다. 신인 문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역량 있는 신진 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대산창작기금’이며 이외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대산대학문학상 등이 진행되고 있다.

광 국장은 “대산문학상의 경우 20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대산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대산창작기금의 경우는 등단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 자리매김이 어려운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창작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한국문학의 세계화’사업이다. 여기에는 《대산세계문학총서》로 대표되는 ‘외국문학번역 지원사업’과 우리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국문학 번역지원’ 등이 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사업은 쌍방향 교류를 핵심으로 대산문화재단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먼저 외국문학번역은 《대산세계문학총서》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과거의 세계문학전집은 일제시대의 산물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문학의 선택이 일본 사람들의 기준이었고, 일본어 식 번역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과거를 벗어나 우리는 패턴화된 세계문학 방식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는 우리 것을 알리려 하는 열망이 강할수록, 다른 세계의 문학도 고루 우리나라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를 나누는 손

인내심이
문화를 기른다
대산문화재단 곽효환
사무국장 인터뷰

“한국문학세계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쌍방향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외국문학번역사업을 시작했다. 기존에 잘 팔리던 문학들을 피해 더 넓은 범위의 문학을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래에 잘 팔리던 문학, 즉 셰익스피어에서 도스토예프스키를 거쳐 헤밍웨이로 마무리 짓는 패턴을 피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길거나 난해해 선택되지 못한 작품들을 많이 소개하기로 했지요.”

특히 1999년은 IMF 경제 위기 직후라 고학력이지만 실업자인 인문학자들이 넘쳐났고 이들을 활용해 번역 작업을 착수했다. 초기 대표 영문학자 로렌스 스톤의 18세기 ‘트리스트럼 샌디’, 호세 호아킨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가 쓴 중남미 최초의 소설 ‘페리키요 사르니엔토’, 샤를 보들레르의 ‘악의 꽃’ 등이 《대산세계문학총서》에 선택되어 소개되었다. 또한 그간 발췌본과 축약본이 대부분이었던 《서유기》도 최초로 완간되었다. 이처럼 낯선 작가의 낯선 작품들이 내년 말쯤 300~400권 정도의 전집이 될 정도로 모이고 또 모였다.



곽 국장은 “기존의 영미문학에 치우친 세계 문학의 수용 폭을 넓히기 위해 불가리아, 남미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영미문학 외에 다른 문학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편견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기존에 소개된 문학들은 시장 안에서 다 소화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화재단의 진정한 역할은 시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특히 총서 발간의 일환으로 문학교류 차원에서 멕시코의 ‘폰도 데 쿨트라 에코노미카’

국영 출판사와 손잡고 멕시코 전역까지 출판 교류를 확장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의 번역, 출판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청준의 ‘축제’와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을 번역해 멕시코에 출간할 예정이며, 멕시코에서는 칼로로스 후엔테스의 데뷔작을 넘겨받기로 했단다.

이렇게 낯선 문학을 소개했을 때 독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물론 판매율은 기존의 알려진 문학에 비해 저조하다. 그러나 곽 국장은 ‘문화는 기본적으로 인내심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본다면, 우리가 실패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는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 전혀 팔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전래 설화, 신화》 같은 책은 기존에는 각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책들이 소개되니 점점 사는 사람도 늘고요. 1만 부 이하로 팔린다고 의미가 없는 책들은 아닙니다. 수용층은 인내심 있게 기다릴 때 점점 넓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소개해나가고자 합니다.”

세계 문학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 문학의 번역 작업에도 힘쓰고 있다. 일례로 황석영의 작

품, 고은의 시집 등이 번역되어 최근 세계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받기도 했다. 광 국장은 ‘조화와 다양성’이 문학시장에 필요하고 대산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꾸준히 일할 것임을 밝혔다.

세 번째는 장학사업이다. ‘대산 청소년문학상’은 청소년 문학 영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문예 장학사업이다. 또한 전국 청소년 연극제는 희곡문학과 공연예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네 번째는 다양한 특별기획사업으로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와 ‘서울 국제문학포럼’이 있다.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는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매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작가들을 기리는 문학축제다. 올해는 박태원, 김내성, 김환태 등 20명 중 8명이 선정되었다. 문학제는 5월 심포지엄 개최, 청계천 그림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찾아갈 예정이다.

“올해는 《천변풍경》의 저자 박태원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가을에 청계천에서 박태원의 ‘천변풍경’을 주제로 화가 10명 화가를 선정해 3점씩 그림을 출품하도록 해 전시할 예정입니다. 두 장은 ‘천변풍경’에 대한 화가 개인의 생각을 담은 작품으로 꾸며지고, 한 점은 자기의 내면 속의 청계천에 대해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국제문학포럼’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문학인들과 한국의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문화올림픽이다. 2000년 1회를 시작으로 5년마다 열릴 예정이다. 오에 겐자부로, 르 클레지오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동아시아 문학 포럼을 2년에 한 번 씩 개최해 동아시아의 문화적 이해를 다지는 초석으로 삼을 예정이다.

광 국장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도 문학은 문화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가시적인 것들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 남을 수 있는 것, 보다 근본적인 소스인 ‘문학’에 더욱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대산문화재단은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면서 특히 동아시아문학포럼에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중·일의 문화 교류에서 시작된 동아시아문학포럼이 해를 거듭 할수록 다른 나라로 확장되어 간다면, 우리 문학이 세계 문학의 변방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저희 사업은 대부분 10년 이상씩 진행되어온 것들입니다. 지속성과 인내의 힘으로 꾸준히 문학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재 및 글 | 전지영 기자

전 월간 〈피아노 음악〉 객원 기자, 〈뉴스컬처〉 객원기자
현재 ‘문화+서울’ 고정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 정강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04 vol 26

FOCUS INTERVIEW

세계인의 가슴을

두드리다

출판 하용부

세계인의 가슴을 두드리다

출판 하용부



하용부의 춤을 보고 있으면 흥이 난다, 눈물이 난다. 어느 순간 심장 박동이 그의 장단과 하나가 된다. 저토록 가벼울 수 있을까, 저토록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느새 그는 힘찬 새가 되어 하늘을 누비고 있다.

밀양백중놀이 예능보유자 하용부가 프랑스 파리 세계 문화의 집 주최로 열리는 2009 상상축제에 한국을 대표하여 초청되었다. 프랑스 공연을 앞두고 ‘하용부 출판 2009’가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있었다. 하용부는 양반춤, 범부춤, 북춤을 보여주었고, 바람꽃의 연주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현대무용가 차진엽의 우정출연이 있었던 이틀간의 공연은 각계각층 사람들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무대 위에서 한없이 가볍고 자유로운, 춤추는 사람 하용부를 공연을 마친 다음 날, 남산 국악당에서 만났다.

밀양강변, 영남춤의 종손

하용부의 집안은 대대로 춤추는 집안이었다. 증조부 하송옥, 조부 하보경, 부친 하병호, 그리고 하용부에 이르는 4대째 춤 잘 추는 집안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5세 때부터 할아버지의 춤을 유심히 보고 따라 취보았지만 정작 춤을 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조부가 인간문화제로 지정된 이후다. 1980년 조부님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다보니 그때부터 공식적인 전수 장학생이 되었다. 그 전에는 할아버지 손자로 그저 따라 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했다.

“1983년 8월 15일 일본 동경의 히비야 공원에서 백중놀이 공연을 하는데 조부님이 ‘범부춤 한번 취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춤을 따라 하지 않고 옆에서 장단만 맞췄죠. 그런데 취보니까 ‘괜찮다, 잘한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범부춤을 시작했습니

다. 그 후 1985년 용인민속촌 공연에서는 첫날 공연을 마치고 조부님이 편찮으셨어요. 당신 입고 계시던 의상을 그대로 주면서 ‘오늘은 네가 춤춰라’ 하시는데 옛날 제자들은 저 아직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딴습니까, 스승이 아파 공연을 못하는데 의무감으로 해야죠. 그때 양반춤을 쳤더니 잘 추네, 이제부터 할아버지와 2인무로 취라.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추게 되었죠.”

스승이 글씨를 쓸 때 제자는 먹부터 갈 듯이, 하용부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 조부님의 춤사위를 보고 느낌과 모습을 닮고 싶어 했다. 영남춤은 힘찬 남성춤의 진수를 보여주고, 즉흥적인 부분이 많다. 하용부에게도 수없이 보고 따라 하는 시간이 켜켜이 쌓였을 것이고, 어느 날 춤을 추다보니 그 모습이 점점 조부님의 그것과 닮아갔을 것이다. 무형의 것을 보존하고 전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체계적이고 기호적인 배움이 아니고 무형식의 느낌, 심성, 얼굴의 움직임, 선의 힘이 어디 들어가더라, 그런 것들을 익혀서 어느 날 춤을 추다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공연장에서 춤추고 나왔을 때 ‘하 선생 정말 고맙다, 어느 부분에서 조부님의 모습을 느껴서 기분 좋다’고 얘기해주실 때죠. 춤을 잘 춘다는 것은 재현하는 게 아니고 스승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스승의 느낌, 조부님의 느낌을 손자가 발견하고 담아낸다는 것은 얼마나 신묘한 일입니까.”

FOCUS INTERVIEW

세계인의 가슴을

두드리다

춤꾼 하용부



춤은 관객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언어

하용부는 십 수 년 동안 연희단거리패에서 활동했다. 밀양 연극촌의 엄마 역할로, 연희단거리패 공연의 안무와 신체 훈련을 담당했다. 무대 위에서 흥을 돋우고, 배우들의 춤을 이끌었다. 연희단거리패의 공연이 보다 흥겹고 우리가 락, 우리 호흡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하용부의 역할이 컸다. 연출가 이윤택에게 그는 연극적 동지이자 단짝이었다.

“1988년 즈음, 당시 연희단 거리패를 이끌고 있던 연출가 이윤택은 한국적인 연기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러다 하보경(하용부의 조부)의 춤을 보게 된 거지요. 저분의 모습, 걸음걸이를 어떻게 연극에 담을 수 없을까 했는데 그러다 그 손자 하용부를 만나니 비슷한 연배에 기호까지 비슷한 터라 쉽게 뜻이 모아졌지요. 당시에 저도 새로운 세계, 다른 걸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후로 밀양 연극촌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누구와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다 그 시절 공부 때문이죠. 일 년에 열 달은 이윤택 선생과 붙어살았어요. 연극과

몸의 관계, 무대 위에서의 신체 미학을 현장에서 공부한 시간이었죠. 어떤 면에서 이윤택 씨는 내 스승입니다.”

1998년 제1회 서울세계무용축제에 참관한 아리안느 뮈스킨은 이를 동안 하용부의 공연만 보았을 정도로 그의 춤에 빠져들었다. 피나 바우쉬 역시 그의 춤을 보고 감격해 2001년 부퍼탈 세계무용제 무대에 그를 불렀다. 뮈스킨이 공연 〈제방의 북소리〉를 준비할 때 하용부를 극단에 초청해서 연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지적해달라고 청했던 일화는 지금도 공연계 사람들 사이에 회자된다. 하용부에게도 당시 태양극단에서의 그들의 환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외국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그가 통역도 없이 피나 바우쉬와 친구가 되었다.

“춤은 느낌이에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언어죠. 그런데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니까. 함께 앉아만 있어도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손만 잡고 있어도 대화가 된다는 게 이해가 되니까. 여섯 시간을 아무 대화 없이 있어도 서로 너무 즐거

운걸요. 저는 현대무용과 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싶어요.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호를 찾아내고 표현하는 게 전통의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의 춤을 누가 그대로 보고 있겠어요, 몇 백 년 전 어떤 춤사위라고 고증, 보존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용부는 밀양연극촌을 나와 작년, 밀양에 소재한 폐교를 임대해 연구소를 차렸다. 그곳에는 하용부의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 아직은 더 배우고 개발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하용부도 밀양백중놀이를 전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공교육 제도 속에서 동작을 전수하기는 싫습니다. 하용부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사람, 같이 먹고 자면서 내 호흡, 내 동작 하나하나를 닮아가려는 사람이 정말 제자지요. 전 옛날 도제식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내 제자는 없어요. 그냥 내가 어디서 춤을 가르쳤다면 사사를 했더라는 정도죠. 한 부분의 깨달음을 주고 정신적으로 이끌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만이 정말 스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숨, 그의 춤이 세계로 흘러간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간간히 전화가 걸려왔다. 공연을 본 사람들의 안부 전화리라. 하용부는 대화 끝에 “공연 본 거 얘기 좀 해줘”라고 물었다.

“프랑스 가기 전에 여러 이야기도 듣고 연습을 더 해서 들어가려고 이번 판을 벌인 겁니다. 춤을 추고 나면 늘 뭔가 더,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만족이란 게 없죠. 이번 공연은 저를 아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이게 장점인데 이게 덜하다. 춤은 좋은데 방점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수정해서 프랑스에 가요. 내가 이런 생각으로 춤을 췄으니 이렇게 봐달라고 강요를 할 순 없어요. 공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용부 춤을 보고 신명이 나더라, 슬프더라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전 오늘도 내일도 표현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용부 출판은 처음 열린 독무대인 셈이다. 연희단거리패 무대에서 하용부라는 이름 석 자가 익숙해졌다면 이제 하용부의 양반춤, 범부춤, 북춤을 봐야 한다. 그래야 하용부의 춤을 보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와 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작은 판들, 그를 부르는 곳에는 마다 않고 가서 춤을 추었던 하용부가 이제 세계무대로 나간다.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원형극장에서 3월 30일, 31일 4회 공연할 예정이다.

“그쪽에서 원하는 기호가 나랑 맞아 떨어진 것이지 내가 잘나서 가는 건 아니에요. 전통을 이야기하기엔 더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몸짓에서 무언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서 초청한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이번 무대에서 ‘구체적인 세계화’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글로벌 시대에 있다.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해야 할 때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일방적으로 보여줄 게 아니라 어떻게 세계인들과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파리에서 열릴 상상 축제 무대가 춤꾼 하용부에게, 그리고 세계에 우리의 것을 알리려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그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 되길 바란다.

취재 및 글 | 김민정 기자

희곡, 뮤지컬, 방송원고를 쓰며 살고 있다.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해 '문화+서울' 인터뷰 기사도 종종 쓴다. 열심히 살면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산다.

사진 | 손승현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04 vol 26

YOUNG ARTIST 2009

음악의 열정에는

벽이 없다

유희브 심포니 단원으로

선발된 이수정·김대식



음악의 열정에는 벽이 없다

유튜브 심포니 단원으로 선발된 이수정·김대식

인터넷이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고, 음악이 세계 공통의 언어가 되었다. 지난 3월 3일 유튜브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동영상 심사를 통해 유튜브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했다. 그 결과 전공, 나이, 국적을 초월한 90명의 단원이 선발되었다. 오는 4월 15일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이 오케스트라의 최종 선발자 중 8명은 한국인. 그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선발자, 이수정(26·첼로), 김대식(20·바이올린)을 만나보았다.

“이렇게 무거운 악기를 늘 매고 다니려면 힘들지 않아요?” 처음 이수정과 김대식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온 질문은 그들이 매고 있는 악기에 관한 것이었다. 꽃샘 추위가 유난했던 지난 3월 11일 저녁 7시,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것 같은 악기를 매고 온 이수정(첼로)과 김대식(바이올린)에게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김대식은 자신보다 더 무거운 악기를 들고 있는 이수정을 오히려 걱정했다. 그런데 의외로 이수정은 웃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젠 이렇게 악기를 들고 다니는 게 일상인걸요, 뭘.”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첼로 케이스가 이상하게도 가벼워지는 것만 같았다. 오랜 시간 악기를 들고 다니며 연주를 해왔던 첼리스트에게 더 이

상 악기는 ‘힙하게 들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수정은 서울대 기악과를 거쳐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수학한 후, 현재 충남예술고등학교 등에 출강하는 전문 연주자다. 반면 곧 다가올 중간고사 성적을 걱정하는, 스무 살의 김대식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2학년생이다. 카이스트라는 학교 이름과 기계공학파라는 전공이 말해주듯 그는 프로 연주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 음악을 사랑하고, 바이올린을 특별히 열심히 했고 그래서 꾸준히 오케스트라 활동을 해온 아마추어 음악가이다.

한 자리에 있기에는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동시에 각종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된 건 지난 3월 3일 있었던 ‘유튜브 심

YOUNG ARTIST 2009

음악의 열정에는

벽이 없다

유튜브 심포니 단원으로

선발된 이수정·김대식

포니 오케스트라(YouTube Symphony Orchestra)' 단원 최종 발표 후다. 이 오케스트라는 온라인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가 진행한 세계 최초 온라인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다. 90명의 최종 합격자 가운데 한국인 합격자는 총 8명.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중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수정과 김대식은 해외에 거주 중인 이수영(오스트리아·클라리넷), 김경희(오스트리아·바이올린), 이승원(독일·비올라), 박상민(독일·바이올린), 이형탁(미국·베이스), 미셸 권(미국·첼로) 등과 더불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유튜브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매개로 전 세계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나이, 지역, 전공 등 모든 자격 요소를 초월해 '인터넷'이라는 세계 공용 매체에 '음악'이라는 세계 공통어를 접목시킨 '열린 전형'이 특징이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지정곡 탄 둔의 '인터넷 심포니 에로이카'와 자유곡을 연주한 동영상을 접수받았다. 이처럼 열린 지원 자격 덕분에 전 세계에서 4,000여 명이 자신의 연주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오디션에 참가했다. 1차 심사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서울시립교향악단 소속의 세계적인 클래식 전문가들이 담당했다. 1차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정하고, 30여 개국에서 선발된 200명의 본선 진출자는 지난 2월 23일까지 다시 유튜브 사용자가 온라인 공개투표를 통해 최종 진출자를 선정했다. 기존의 오디션이 전문가의 입장으로만 치러졌다면, 이번 오디션은 '관객의 선택'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기존의 오디션의 형태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힘을 빌려 보완한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수정은 서울대 관현악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고 조용히 오디션에 응시해 주변을 놀라게 한 케이스다.



이수정 (첼로)



김대식 (바이올린)

“서울대 관현악 사이트에 유튜브에서 진행한다며 ‘참가해보세요.’라는 글이 올라와서 처음 오디션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특이하다 싶어서 호기심이 생겼고,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마감 날짜가 임박했죠. 그래서 마감하는 날 급하게 준비해서 동영상 올리게 되었어요.”

그녀는 지정곡 탄 둔의 ‘인터넷 심포니 에로이카’ 외에 자유곡으로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을 선택했다.

“자유곡은 그쪽에서 제시한 곡목 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연주하는 거였어요. 곡목을 보니까 웬만한 오케스트라의 수석단원 오디션에 대부분 포함되는 곡이더라고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려면 누구나 한 번씩은 공부해야 하는 곡이죠. 다행히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은 연주해본 적이 있던 터라, 급한 일정에도 편하게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 김대식은 이번 오디션 정보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평소 유튜브를 자주 사용한 덕이었다.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고 도전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단다. 김대식은 탄 둔 지정곡 외에 자유곡으로 브람스 심포니를 선택했다.

“브람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카이스트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 적이 있는 곡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번 오디션을 위해 작곡된 탄 둔의 ‘인터넷 심포니 에로이카’는 최근에 작곡되어 참고할 만한 과거 연주를 찾기가 힘들고, 악보도 까다로웠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오디션에 응시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수정은 이 곡을 처음 들어보았다고 했다. 보통의 경우 이전 연주를 참고해 연주의 색깔을 그리곤 하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오로지 혼자 곡을 해석해 내야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 자료가 없어서 악보를 보고 곡의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첼로 파트 악보만 보더라도 워낙 곡의 색깔이 뚜렷하게 담겨 있어요. 이 곡의 색깔을 스스로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재미있기도 했지요.”

김대식은 유튜브를 자주 방문하기 때문인지, 오디션 직전에 올라왔던 동영상을 통해 이 곡을 미리 접해보았다.

“12월에 광고가 뜨면서 런던심포니가 연주한 이 곡(탄 둔의 ‘인터넷 심포니 에로이카’의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곡 이해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오디션은 한 장소에서 연주 순서를 기다리고 한 명씩 연주를 하기 위해 들어가지만, 이번 오디션은 인터넷 동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주 장소도, 오디션 준비 과정도 제각각이었다. 이수정은 자신의 방에서, 김대식은 학교 동아리 방 앞 복도에서 오디션 영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조용히 참가하고 싶어서 오디션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마감 날짜에 급하게 동영상을 준비했던 터라, 더 정신이 없었어요. 여름 원피스를 급하게 골라 입고는 캠코더를 사용해서 방에서 찍었어요. 동영상 막장이

YOUNG ARTIST 2009

음악의 열정에는

벽이 없다

유튜브 심포니 단원으로

선발된 이수정·김대식

쳐 놓은 건 이불이예요.(웃음)”(이수정)

반면 김대식은 동영상상을 수차례 만족할 때까지 찍었던단다. 동영상을 찍어준 사람은 이번 오디션에 함께 참가해 본선까지 진출한 여자 친구였다.

“처음에는 동아리 방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복도에서 찍었어요. 복도에서 연주하면 울림도 좋잖아요.(웃음) 여자 친구는 첼로 부문에 참가했어요. 서로 동영상을 찍어주었지요.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 한 연주로 골라서 업로드 했어요. 여자 친구도 본선까지 진출했는데, 아쉽게 최종합격은 하지 못했어요.”

현재 과학도의 길을 걷고 있기에 김대식의 이번 오디션 합격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루 연습을 쉬면 자신이 가장 먼저 실력 퇴화를 실감 한다’는 말이 있듯 꾸준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을 쌓을 수 없는 게 음악이기에, 그의 연주력은 놀랍고, 오디션 합격은 더욱 놀랍다. 연주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연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재미’만으로는 어느 이상의 실력을 가진 연주자가 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남들 앞에서 선보일 수 있을 만큼의 연주력을 갖게 되기까지 연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음악전공을 고려해 보았을 법도 한데, 김대식은 한 번도 음악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제가 네 살 때, 누나가 바이올린을 했어요. 누나가 바이올린을 배우는 걸 보고 질투가 났었나 봐요. 가르쳐달라고 떼를 써서 배우게 된 게 시작이었어요. 연습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고, 오케스트라 공연 전에는 7~8시간 정도 해요.”

기계 공학을 전공하는 김대식에게 연습 시간은 사실 불규칙할 수밖에 없다. 시험기간이나 학교에 일이 있으면 며칠씩 연습을 못하기 일쑤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아마추어 연주자와 다른 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프로 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습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며칠씩 연습을 안 하면 손이 굳어서 예전의 연주 감각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막 화가 나고, (실력을) 되돌려놓아야겠다는 생각에 더 미친 듯이 연습해요. 그래도 하기 싫을 때는 악기를 놓는 편이고, 하고 싶을 때 집중해서 연습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번 학기 22학점을 꼭 채워 신청한 탓에 연습을 할 수 없어 걱정이란다. 반면 이수정은 전공자답게 꾸준히 음악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독일에서 2년간 수학한 뒤, 현재 ‘오케스트라 서울 클래식 플레이어즈’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충남 예고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연주자의 길과 지도자의 길을 동시에 걷고 있는 셈이다.

“아직은 가르치는 게 쉽지 않지만, 재밌어요. 일단 제가 걸었던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이라 예뻐요.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이 주고 싶고요. 사실 음악은 이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감성과 인격을 주고받는 거라서 교감이 무척 중요해요. 음악은 어떤 학문보다 감정이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되요. 그래서 학생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려고 노력해요. 지금은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번 오디션 발표 이후, 두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먼저 이수정은 오디션 응시 사실을 비밀로 했던 덕에 가족들에게 ‘깜짝 선물’을 안겨준 셈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꾸준히 연주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그 덕에 그간 소식을 못 듣고 지냈던 사람들과도 연락이 닿았다. 김대식은 비전공자로 최종 합격한 것이 기쁘다며, 훌륭한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





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설렌다. 각종 언론에서 그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학과 사무실로 연락해온 통에 학과 소식지에도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지금의 변화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유튜브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4월 15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마이클 킬슨 토마스의 지휘 아래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가지며, 합격자에게는 모든 항공료 및 숙박비가 무료로 지원 된다. 최종 선발된 90명에게는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공연 기회와 2박 3일간의 항공 및 숙박비 일체가 제공된다. 자세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달 11일 경 출국하면 카네기 홀 공연에 앞서 저명한 음악가들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직접 레슨을 받을 예정이며, 줄리어드 학교 연주 홀에서 함께 연습하면서 서로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나눌 예정이다.

“수준 높은 음악가 분들과 음악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척 기대가 커요.”(김대식)

“유학을 가는 이유가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뉴욕에서는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뉴욕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전 세계에서 모인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만날 수 있고요.”(이수정)

특히 이수정은 이번 경험을 계기로 기회가 왔을 때 적극

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도전의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고민하거나 꺼리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후학 양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대식은 당장 4월 연주를 위한 출국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수업 불참에 대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22학점이라는 뻘뻘한 수업 일정을 틈타서, 다른 단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며, 돌아오면 다시금 과학도로 돌아가 열심히 학업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두 연주의 영상에는 대부분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쓰여 있었다.

이수정은 함께 참가해서 최종까지 진출한 친구가 ‘연주가 너무 좋다’며 남긴 댓글에 가장 큰 용기를 얻었다. 연주가 노출 되는 거라 처음에는 많이 부끄럽기도 했는데, 격려의 글들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다. 김대식은 ‘비브라토가 마음에 든다.’는 댓글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막심 벤게로프의 다이내믹한 연주를 좋아하며 꾸준히 오케스트라 동아리 연주를 통해 지금까지 악기를 놓지 않았던 과학도 김대식. 예전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독주가 매력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모든 소리가 ‘흡수’되는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는 이수정. 그들이 4월 15일 카네기 홀에서 힘차게 활을 긋길 기대한다.

취재 및 글 | 전지영 기자

전 월간 〈피아노 음악〉 객원 기자, 〈뉴스컬처〉 객원기자

현재 '문화+서울' 고정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 손승현

OPEN REPORT

서울 너머로

詩의 봄비에 젖는

미국의 4월

詩의 봄비에 젖는 미국의 4월

4월 한 달간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시의 향연으로의 초대

POEM
IN YOUR
POCKET

'호주머니 속 시의 날' 로고

미국에서 매년 2월은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 3월은 '여성 역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이다. 그렇다면 4월은? 바로 '시의 달(National Poetry Month)'이다. 1996년 4월 비영리 단체인 '미국 시인 아카데미(Academy of American Poets)'가 기획한 '시의 달'은 미국 시문학의 어제와 오늘을 조망하는 한편, 시가 일반 대중 및 언론에 보다 즉각적이고 혁신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시의 달'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문학 축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매년 이를 위해 각 학교, 도서관, 출판사, 서점, 문학 기관 및 시인이 참여하고 있다. 봄빛이 완연한 4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시의 향연 속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일상 속의 시- '호주머니 속 시의 날'

(Poem in Your Pocket Day)

2008년 4월 17일, 뉴욕의 서울역과도 같은 그랜드 센트럴 역 앞에는 푸른 옷을 입은 수많은 미국 시인 아카데미 자원봉사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서 있었다. 출근길 시민들에게 로버트 프로스트, 에밀리 디킨슨 등의 유명한 시 한 편씩을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시의 달'의 가장 큰 목적은 멀게만 느껴지는 시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일하기도 바쁜데 시를 즐길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잠시나마 시 한 편으로 머리를 식히는 것은 어떨까? '커피 한 잔의 여유'. 예전 모 켄 커피 광고의 카피다. 이와 비슷하게 '호주머니 속 시의 날'은, 바쁜 현대인에게 '시 한 편의 여유'를 느낄 것을 권한다. 단 하루만이라도 좋아하는 시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주위 직장 동료, 친

구, 가족과 함께 그 시를 나눌 것을 권한다. 올해 4월 30일에 진행 예정인 본 행사는 보다 많은 이의 참여를 위해 미국 시인 아카데미 홈페이지(www.poets.org)에 다양한 시를 올려놓는 한편 이를 출력하거나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유포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시인 아카데미가 출간한 《호주머니 속 시 선집》의 부제는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200편의 시들'이다. 즉 셰익스피어, 실비아 플라스 등의 유명한 시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마음에 드는 시가 있으면 쉽게 책에서 뜯어낼 수 있도록만 들어졌다.

사진 속의 시- '시 사진 대회'

(Free Verse: A Photo Competition)

올해 '시의 달' 홍보 포스터는 봄비에 촉촉이 젖은 안개 낀 창문을 담고 있다. 창문에는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이

OPEN REPORT

서울 너머로

詩의 봄비에 젖는

미국의 4월



2009년 '시의 달' 홍보 포스터

"내가 감히 우주를 뒤흔들어볼까 (Do I dare disturb the universe)?"는 T.S. 엘리엇의 '프루프록의 사랑 노래'에서 따온 구절이다.

렇게 적어놓았다. "내가 감히 우주를 뒤흔들어볼까(Do I dare disturb the universe)?" T.S. 엘리엇의 '프루프록의 사랑 노래'에서 따온 구절이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일상이 시의 아름다움과 만나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창문에 남긴 누군가의 흔적은 곧 빗물에 씻겨 사라지겠지만 엘리엇의 시는 영원할 것이다. 사진은 찰나와 영원이 만나는 묘한 '시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 썸이다. 미국 시인 아카데미는 이러한 순간을 직접 담아보라고 한다. 즉 아스팔트 위에 분필로, 동네 언덕 위에 나뭇가지들로, 또는 해변가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좋아하는 시 구절을 적은 후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시인 아카데미에 보내라고 한다. 현재 다양한 응모작을 시인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추후 우수작에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질 예정이다.

**교실 속의 시-‘시 마라톤 대회’
(Poetry Read-a-Thon)**

앞서 대중이 시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의 달'의 가장 큰 목표라는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초에 시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시에 대한 거부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시들을 기억하는가? 당시 우리는 단순히 시험을 위해, 입시를 위해 꾸역꾸역 재미없는(?) 시를 배우고 외워야만 했다. 지난 2006년 4월, 미국 시인 아카데미는 《시를 먹는 방법(How to Eat a Poem)》이라는 시선집을 미국 내 수천 개의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했다. 모험, 사랑, 우정 등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의 시를 담은 이 책은 제목이 암시하듯 어린 독자들에게 시의 참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4월 한 달간 매일 주어진 책에서 시 한 편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75자에서 100자 이내로 자유롭게 서술하였다. 미국 내 마이너리티들의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은 흑인 시인 랭스턴 휴즈의 'I, Too, Sing America'를 읽은 한 5학년 남학생은 "시는 항상 뜬금 없는 소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시는 때로는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말했고 이브 메리엄의 'How to Eat a Poem'을 읽은 한 7학년 여학생은 "시는 주저함 없이 바로 뛰어 들어야 하는 물과도 같다...(중략)...시는 뇌를 위한 음식



1 교실 속의 시. 어린 학생들이 미국 시인 아카데미에서 출간한 시선집 《시를 먹는 방법》을 들고 있다.



2 《호주머니 속 시 선집》 및 홍보 버튼. 버튼에는 “주머니 속에 들은 것이 시인가요(is that a poem in your pocket)?”라고 적혀 있다.

3 야외 공원에서 열린 시낭송 대회



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시인 아카데미는 선생님들을 위해 학생들이 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별들 속의 시-‘시와 창조적인 정신’

(Poetry&The Creative Mind)

‘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일곱 번째로 치러질 예정인 ‘시와 창조적인 정신’ 행사는 유명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애송시를 낭독하는 행사다. 그동안 메릴 스트립, 에단 호크, 리암 니슨 등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다크나이트>의 매기 질렌홀, 재즈 트럼펫 주자 윈턴 마샬리스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인보다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인들. 그들의 시 낭독을 듣는다면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시가 한층 가깝게 다가올까?

세계 속의 시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들 외에도 ‘시의 달’에는 미국 곳곳의 거리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강당에서 크고 작은 시 낭독 행사 및 유명 시인을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001년에는 “우표를 통해 가장 보고 싶은 시인은 누구인가?”라는 설문 조사를 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미국 체신부는 설문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랭스턴 휴즈의 얼굴을 담은 우표를 발행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이들을 선발하는 ‘시인 팬 대회(Poetfan Contest)’를 개최했다. 우승한 이들 중에는 ‘화학 공식만큼이나 복잡한’ E.E. 커밍스의 시를 사랑하는 화학자, 한평생 에이즈를 좋아했다는 94세 할머니 등이 있었다. 1996년 미국에서 시작한 ‘시의 달’은 1999년부터 캐나다에서, 그리고 2000년부터는 영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시를 더 친숙하게 느끼는 그날까지, 그리고 4월뿐만이 아닌 1년 365일 우리가 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시의 달’은 계속 될 것이다.

글 | 김치완

<프리미어> 한국판 뉴욕특파원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와 미국 The New School University M. F. A.
in Creative Writing을 졸업했다.

I AM SEOULITE
Life in Seoul is
Never Boring

본 꼭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눈으로 본 서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는 서울의 삶

서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이다. 서울에 산 지 이제 4년 남짓. 나는 아직도 서울을 잘 모른다.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만 같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상 난 이러한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2005년도에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청계천은 공사 중이었다. 이제는 청계천을 거닐면서도 옛날 공사할 때의 그 모습을 떠올리기 힘들다.

여행자나 외국인들은 가끔 서울이 살기에는 너무 비싼 도시라며 불평을 하곤 한다. 하지만 서울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곳이다.

외식이라고 해서 꼭 전통 한식집이나 호화 레스토랑, 최신 유행하는 브런치 집에 가야 하는 건 아니다. 기억에 가장 남는 맛집은 사실 서울 골목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구멍가게” 같은 식당들이다. 넓고 더럽고 비좁아 보이긴 하지만 서울 시민들에게 수십 년간 따뜻하고 정성 어린 음식을 대접해온 식당들이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이런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기껏해야 10명 남짓 들어갈 정도로 작은 식당에서 된장 비빔밥을 먹는다는지, 정말 싼 바비큐를 먹기 위해 시식 코너에서 20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 곧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또 서울은 삼청동, 가회동 같은 동네에서 그림 같은 장소를 발견하거나, 남산 타워에 오르고 한강을 따라 산책하며 오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젊은이들에게는 홍대가 좋은 장소이다. 홍익대학교 주변 지역에는 클럽, 바, 카페, 부티크, 빈티지 숍 등이 즐비한데, 서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창의적이고 젊은 에너지가 가득 넘친다.

홍대 놀이터는 주말 벵룩시장의 메카이다. 이곳 벵룩시장에서는 한국 젊은이들의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파는 수공예 귀고리나 목걸이, 귀여운 인형, 니트 모자, 잘 꾸민 스니커즈나 작품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노라면 항상 즐겁다.

남대문, 동대문, 광장시장 같은 곳에서는 좀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곳에서의 떠들썩한 풍경은 외국인에게 이제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옛 서울’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내가 서울에서 사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서울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면 서울은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이다. 서울에서의 삶은 절대로 지루할 틈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서울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글 | 캐시 로즈 가르시아

필리핀 마닐라 출신의 저널리스트이다. 2005년부터 서울에서 살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에서 예술 및 문화 관련 기사를 담당하고 있다.

Cathy Rose A. Garcia

Cathy Rose A. Garcia is Filipino journalist from Manila, Philippines. She has been living in Seoul since 2005. She is a staff reporter covering arts and culture for The Korea Times, the oldest English language newspaper in Seoul.

Life in Seoul is Never Boring

Seoul is a city that is constantly changing. I've been living here for more than four years, and I can never say that I truly know Seoul. Everything seems to be in a continuous state of motion. Nothing stays the same.

As a journalist, I am keenly aware of all these changes. When I moved to Seoul in 2005, the Cheonggye stream was still being constructed. Now, whenever I walk along the stream, it's hard to imagine a time when it was just covered with pavement.

I've often heard complaints from tourists and foreigners that Seoul is a very expensive city to live in. But there are a lot of fun and interesting things to do in the city that doesn't involve a lot of money.

Dining out doesn't necessarily have to mean going to the usual traditional Korean restaurants, posh foreign restaurants or trendy brunch places.

Most of my most memorable dining experiences have actually been at "hole-in-the-wall" restaurants in the back alleys of the city that usually only Koreans know about. These "hole-in-the-wall" places might look old, dirty, rundown and tiny, but they've been around for decades serving good and hearty meals.

Admittedly I was wary at eating at these places at first, but soon found something charming about eating doenjang bibimbap in a place so small it can barely fit 10 people, or lining up for 20 minutes to sample tasty and really cheap barbecued meat.

Seoul is also a city where you can spend an afternoon discovering picturesque neighborhoods like Samcheong-dong and Gahoe-dong, hiking all the way up to Namsan Tower or just taking a stroll down the banks of the Han River. For a taste of Korean youth culture, Hongdae is the place to go to. This area near Hongik University is littered with clubs, bars, coffee shops, boutiques and vintage shops, but it seethes with a creative and youthful energy that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in the city.

Hongdae is also home to the weekend street market at the children's park. The creativity of young Koreans is on full display here. It's always fun to go around the makeshift stalls set up by students selling handmade earrings and necklaces, cute dolls, knitted hats, embellished sneakers and art works.

More bargains can be found at traditional open markets like Namdaemun, Dongdaemun and Gwangjang markets. The bustling sights and sounds at these markets give foreigners a glimpse into the "old Seoul," which seems to be slowly slipping away.

As I'm writing this article, I've come to realize there's a lot I like about living in Seoul. But the best thing is the fact that there's always something new to discover in the city. Life in Seoul is never boring, and I guess that's why I continue to stay here.



1, 2. 홍대앞 거리 hongdae street

당신 가정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배현정

삭발 직전의 헤어스타일에 골반까지 내려오는 배기 진, 옆으로 대충 쓴 야구모자에 길게 늘어뜨린 금 목걸이를 하고 다니던 한 힙합 가수가 자신의 앨범을 “풍요롭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내재된 앨범”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우리에게 선정적이거나 전투적인 흑인 래퍼의 음악만이 진정한 힙합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그에게 힙합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패션이고 생활이며 삶의 철학이다. 그는 스스로를 “건전한 힙합 청년”이라 부른다.

서양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생활 전반을 지배하곤 한다. 한때 히피 음악이 크게 유행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만의 히피 문화를 형성했다. 그 시대의 사회적 여건이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히피 문화가 태어나고 그에 걸맞은 음악 장르가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는 히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마돈나와 같은 팝가수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P. Diddy의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옷차림만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자우림을 좋아하는 이와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이를 옷차림이나 라이프스타일로 구분

할 수 있을까. 문화예술 교육이 연일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제는 대부분의 박물관이나 전시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체험 학습장을 마련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나 뮤지컬도 주말이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다. 그럼 이제 눈을 돌려 우리 각자의 가정을 들여다보자. 누군가에게 우리 집의 문화를 설명해야 한다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일까. 명절날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 구정을 쇠는 집, 신정을 쇠는 집이 따로 있고 제사를 지내는 집과 직계 가족만이 단출하게 식사를 함께하는 집이 있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아버지 옆에 서서 두 손 모아 묵념만 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딸이 있는 집도 있다. 우리는 어떤 가정에 속할까.

정월 대보름이면 부럼을 깨뜨려 먹는다가,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크고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된다. 나의 어머니는 우리 네 형제의 음력 생일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생선을 굽고 미역국을 끓여 햇별이 잘 드는 거실에 상을 차려두시고는 우릴 깨워 절을 하게 하셨다. 삼신할머니께 건강을 비는 작은 의례를 매해 네 번씩 30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란 매일의 일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열광하는 음악 장르가 없거나 바로 이름을 댈 수 있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어느 가정이나 그 집만의 문화는 존재한다. 그것을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인의 첫걸음이 아닐까.



글 | 배현정(오픈리포터)

대학에서 미술과 심리학을 복수전공하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현재는 서울에 위치한 대안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미국 동부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며 해외 입양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어 타 인종 입양인의 민족 정체성을 주제로 졸업논문을 썼다.

커플들의 ‘사랑’ 이야기로 따뜻한 봄을 노린다

홍애령



3월이 지나가도록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 날씨, 서울의 도심은 경제 한파만큼이나 싸늘하기만 하다. 우리의 공연계 또한 된서리를 맞은 듯 호된 겨울을 보냈다. 국가,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뚝 끊겨버린 관객들의 발걸음에 배우, 연출가들은 애석한 한숨만을 내릴 뿐이다. 그런 가운데 봄은 찾아왔다. 찬 바람을 헤치고 대지에 스미는 한 줄기 봄 햇살처럼 서울의 무대 위에는 커플들의 사랑을 담은 공연이 관객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고 있다.

아마도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가장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극은 <경남 창녕군 길곡면>이 아닐까 한다. 연극관 <사랑과 전쟁>으로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평범한 남편과 부인의 소소한 일상을 담고 있지만 실제 부부 같은 배우들의 명연기와 치밀한 결혼 생활 묘사로 ‘친한 언니네 결혼 생활’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경제적 이유로 아이 갖는 것조차 사치로 여기는 현실에 대한 신랄하고 현실적인 묘사가 일품이다.

젊은 연인들에게 솔깃할 만한 사랑이야기는 연극 <그남자 그여자>에서 그려진다. 베스트셀러 원작을 바탕으로 소소하지만 따뜻한 젊은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연애란 그런 거지”하고 빙긋이 웃어줄 수 있는 관객이라면 대환영이다.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유쾌하고 가

벼운 소재이다보니 젊은 관객들이 다녀가며 오픈런 중이다.

뮤지컬 배우이자 연기자로 활동 중인 배우 신성록의 출연으로 이미 화제가 되고 있는 2009 창작 뮤지컬계의 기대작, 뮤지컬 <마이 스케어리 걸>도 범상치 않은 이야기로 인기몰이 중이다. 이미 최강희, 박용우 주연의 영화로 흥행가도를 달렸던 달콤 살벌한 그녀의 이야기가 뮤지컬에서는 어떻게 그려질지 영화와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최근 F4와 함께 또다시 일고 있는 신데렐라 열풍이 거세다. 완소남 ‘구준표’의 사랑을 꿈꾸며 ‘금잔디’를 자처하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국립발레단의 <신데렐라>가 대리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세계적 안무가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의 안무와 세계무대에 우뚝 선 한국의 발레리나 김지영, 김주원의 출연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현대적 감각의 신데렐라는 과연 왕자를 기다리기만 할 것인지 그녀들의 몸짓이 궁금해진다.

“아직까진 그래도 쌀쌀해”라며 겨우내 붙어버린 몸을 끌어안고 쓸쓸한 봄을 맞이할 것인가?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서울의 무대를 찾아나서자. 손잡고 함께 갈 연인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만약 당신이 쓸쓸한 솔로라면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달콤한 상상에 몸을 맡겨보길 바란다.

글 | 홍애령(오픈리포터)

서울대 스포츠교육학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인문적 무용교육, 공연예술비평에 관심을 갖고 공부 중이다. 어린 시절부터 발레를 시작하여 선화예고, 국민대에서 무용수로서 경력을 쌓았고, 현재는 좋은 교수자이자 무대 위를 열망하는 좋은 관객이 되기를 꿈꾼다.

4

April

SUN	MON	TUE
5 ■ 충체음악극 장루이 바로, 소녀의 이야기(3/3~4/5) ■ 정극 의자들 (03/12~4/5) ■ 국내초연정극 <헨리 4세> 제1부 (3/17~4/5) ■ 창작극 <춘풍의 처> (3/20~4/5) ■ 영상설치 김민정 개인전 - 유연한 방 (3/5~4/10) ■ 한국무용 김영희 무트댄스 레퍼토리 공연(4/2~4/5) ■ 판소리 춘향전 공연(4/5~4/20) ■ 실내악 클라리넷 김희준 독주회 1,2,3(3회) (4/5~12/20)	6 ■ 공연 <발간동물원> (3/24~4/12) ■ 정극 <변기> (4/6~4/26) ■ 무용 <현대춤작가 12인전> (4/6~4/12) ■ 무용 제9회 LDP 무용단 정기공연 (4/6~4/12) ■ 오페라 소년소녀 가장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오페라 <해화동 라보엠> (4/6~4/12)	7 ■ 행사성 사업 삼각산 비둘기 타고 흐르는 문학 (3/7~10/24) ■ 인형극 장애인과 함께하는 인형극 순회 공연 (4/7~4/30) ■ 정극 <맥베드> (4/7~5/3) ■ 음악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 하이든 교향곡 시리즈 Symphonic Haydn Series <The Original> (4/7~11/10)
12 ■ 워크숍 커뮤니티 퍼포먼스 <웅헤야 콧바아>전 (4/12~4/26) ■ 전통음악 제30회 풍류의 밤(공연/발표) ■ 사진 강홍구 개인전 <사라지다-은평 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록> (3/12~5/9) ■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라 바야데트> (4/17~4/26) ■ 어린이 연극 책 읽어주는 사다리 <빨간 부채 파란 부채> (3/1~4/30)	13 ■ 실내악 코리아 색소폰양상을 정기공연 ■ 국악 한옥에서 우리음악 듣기-<가락家樂> (4월 중~10월 중)	14 ■ 실내악 유터피(Euterpe)독관5중주 연주회 <오페라의 밤> 에피소드 I & II (4/14~7/25) ■ 조각 김성대 개인전 <빛의 만남전> (4/14~4/20) ■ 실내악 서울 율이상 앙상블 정기연주회 제2회 및 제3회 (3/22~10/11)
19 ■ 실내악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 ■ 영화 데이비드 린 회고전(3/31~4/19)	20 ■ 음악 마음을 나누는 음악회 ■ 연극 내 마음에 물주기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연극 만들기) (3/15~4/20) ■ 실내악 리히트 감머 앙상블 제2회 정기 연주회 ■ 음악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기획공연 <소리연가> ■ 회화, 사진 진유영 개인전 (3/20~5/17) ■ 다원예술 indie root -1st respect (3/20~4/12)	21 ■ 발레 퓨전발레축제 (4월 중~10월 중) ■ 음악 이경선 세번째 작곡발표회 <내게 주어진 시간> (4월 중) ■ 국악 시조의 향연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4월 중~11월 중) ■ 국악 숙명가야금연주단의 <新正樂> 작품발표회
26 ■ 미디어 조선역사명상열전 <삼천궁녀> (4/25~5/25)	27 ■ 실내악 콰르텟엑스의 베토벤 백신 (QUARTET X presents BEETHOVEN VACCINE) (3/27~12/18) ■ 무용 김충한무용단 창작무용극 <張禧嬪> ■ 다원예술 <페스트벌 봄 서울 2009> festival bo'im seoul 2009 (3/27~4/18)	28 ■ 다원예술 동춘서커스 -new뉴 흥길동 (3/28~5/20) ■ 실내악 창악회 창림 51주년 정기 발표회

■ 생활속예술지원사업

■ 시민축제지원사업

■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 서울열린극장 창동 공연정보

WED	THR	FRI	SAT
1 ■ 전통 봄을 알리는 조각보전 (4/1~4/7) ■ 공예 <마니미미재미가게>전 (4/1~4/7) ■ 전문지 발간 실험영화 전문지 <나방> 발간 (4/1~4/30) ■ 아동극 <개구리 싱크로나이즈> (4/1~4/30) ■ 국악 한국음악발전연구원 제14주년 정기연주회 ■ 영화 another view (4/2~4/9) ■ 음악 2009 음악가들의 창작공간 (4/1~12/1) ■ 다원예술 2009 박미루 전시/콘서트-자구의 노래 Part2 <몽고 고비사막의 바람소리> (4/1~4/12)	2 ■ 영화 인디다큐페스티발2009 (3/27~4/2) ■ 번역극 <거리의 사자> (4/2~4/26) ■ 한국무용 김종덕 창작춤집단 木<사계-꼭두의 눈물> 재공연(4/2~4/26) ■ 성악 라 벨라 오페라단 그란 갈라 콘서트 ■ 영상 오, 나의 프로작(가제) (4/2~4/19) ■ 입체설치 박대성 개인전 (4/2~4/19)	3 ■ 뮤지컬 <라디오스타> (3/3~4/5) ■ 정극 김현택의 <햄릿> (4/3~4/26) ■ 실내악 사단법인 카메라타 서울 첼로 앙상블 제 20회 정기 연주회 ■ 한국화 예술공간 헛 기획초대-이정민 개인전 <감각의 위치>(4/3~4/20) ■ 발레 해설이 있는 발레 <국립 발레단의 신데렐라> (4/3~4/4) 공연시간 : 오후 7시 30분	4 ■ 실내악 아카데미아 금관5중주단과 함께하는 금관악기의 세계 (3/1~12/31) ■ 실내악 화음 프로젝트 (3/1~12/31) ■ 음악 정가(正歌) 일상 속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프로젝트-가객(歌客)과 취객(醉客)이 만나다 (3/1~12/31)
8 ■ 전시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4/8~5/10) ■ 회화 제15회 공간국제판화비엔날레_서울 <4/8~5/10> ■ 사진 전시기획 (4/8~4/28) ■ 다원예술 비아페스티벌 VIAF (4/8~4/12)	9 ■ 성악 이탈리아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이탈리아 성악동우회 49회 정기연주회> ■ 무용 <춤본> (4/9~4/10)	10 ■ 종합(시) <물과 문학> 물사랑 시화 및 시 사진전 낭송회 와 세미나(전시, 낭송, 세미나) (4/10~6/30) ■ 음악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멘델스존 시리즈' (3/10~6/12) ■ 창작극 <나비> (4/10~5/10) ■ 뮤지컬 가족국악뮤지컬 <여우야 뭐하니?>(4/10~4/26) 공연시간 : 평일 오후 4시 / 주말 오후 2시, 4시	11 ■ 음악 하이!서울!하이!한강! (르네상스) 2009 한강사랑음악회 ■ 문화일반 서울시 보육원 청소년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한 프로젝트 <지금해라> (4/11~4/25) ■ 전통무예 2009 택견배틀-천하제일 결연 택견패 결정전 (4/11~10/24) ■ 실내악 헨델 서거 250주년 기념 헨델 오르간 협주곡 전곡 연주회
15 ■ 연극 만들기 내 마음에 물주기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연극 만들기)(3/15~4/20) ■ 관객참여 평온한 마음을 향하여(4/14~4/20) ■ 조각 선으로 만든 세상<김병진 개인전> (4/15~5/16)	16 ■ 실내악 이숙정 첼로 독주회-모던 첼로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현재 <My B> ■ 한복전시 나빌레라 <궁중무용(정재무)복식 전시> (4/16~4/20) ■ 국악 국악뮤지컬 <판소리, 애플그린을 먹다> (4/16~4/20)	17 ■ 연극 맹목(Blindness 盲目) (4/17~5/3)	18 ■ 전통예술 사단법인 마들농요 발표회 ■ 교성곡 바흐의 모테트와 쉬초의 심포니에 사크레
22 ■ 벽화 우리동네 숨은 이야기 (4/22~4/28) ■ 목관5중주 여름 목관 5중주 연주회 ■ 실내악 체리티 체임버 앙상블 정기연주회 ■ 실내악 체코음악연구 ■ 실내악 작곡가 강은수의 <즐거운 편지> ■ 유리조형 국내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유리조형 전시 (4/22~4/28)	23 ■ 정극 <의무적 화생자> (4/23~4/30) ■ 번역극 <굿나잇-데스데모나, 굿모닝-줄리엣> (4/23~5/24) ■ 정극 <시동라사> (4/23~5/24) ■ 무용 제6회 Color of Dance Gold ■ 실내악 플루트 듀오를 위한 스타콘서트	24 ■ 시 시와 창 의 만남 ■ 전통음악 絃의 HORIC ■ 사진영상 키미아트 사진, 미디어아트 기획전 (3/25~5/18)	25 ■ 발레 평화어린이발레단 제2회 공연 (3/28~4/25) ■ 독주 크랄라네티스트 이혜선의 즐거운 별자리여행 I 봄...파스칼 ■ 음악 전통가곡연구회 정기 및 창작발표회 (4/25~9/12) ■ 양화 God Finger(가제) (4/25~5/26)
29 ■ 한국무용 민준기의 춤 55주년 기념 대공연 ■ 관현악 뉴트리팍소오케스트라 '팍스 콘서트' (3/25~4/29)	30 ■ 연극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 기념 페스티벌 (3/30~4/30) ■ 성악 제 2회 <아름다운 서울> 가곡 페스티벌 ■ 정극 <짬뽕> (4/30~6/28) ■ 실내악 파르텟21 제32회 정기연주회 <시대를 잇는 거장 하이든, 멘델스존 그리고 바르톡> ■ 음악발표회 작곡가 석윤복 작품발표회 ■ 국악관현악 서울국악관현악단 제28회 정기연주회 <靑土의 꿈>		

SFAC News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축제 -희망과 나눔의 하이서울페스티벌2009

사계절 축제에서 봄 축제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2009'가 5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서울광장, 청계천, 서울의 다섯 궁궐에서 개최된다. 2008년 사계절 축제로 시범 운영하던 '하이서울페스티벌'은 국제적인 불황으로 인한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전년 사계절 축제 중 여름·가을 축제를 생략하고 봄 축제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불경기에 지친 시민들의 고단함을 달래고 용기를 북돋는 축제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고자 어려웠던 시대의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위기 극복 의지를 강화하는 것을 근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재능 나눔' 방식을 도입해 축제에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재능 나눔'은 끼가 넘치는 시민이 무대에서 재능을 선보이고, 후원하는 기업들은 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5대궁과 서울 도심에 물들일 꽃분홍 사랑의 축제

이번 축제는 '서울의 봄, 궁에서 피다'라는 주제 아래, 소생하는 봄의 기운과 더불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꽃분홍'색을 축제의 상징 색으로 정하여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펼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사용되는 배너, 팸플릿, 안내부스 등이 모두 꽃분홍색을 주제로 디자인되고, 분홍색 옷, 액세서리 등 축제 기간 내 분홍색 코디를 유도하는 '꽃분홍 캠페인'이 사전 진행된다.



하늘의 기운을 담아 전하는 '오월의 궁-천궁'

마치 수십 마리의 용이 승천하여 하늘을 뒤덮은 모양의 '오월의 궁-천궁'은 최대 200미터에 달하는 섬유소재의 라인들로 서울광장과 주변 건물을 연결한 거대한 환경·도시조형물이다. 축제의 랜드마크로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오월의 궁-천궁'은 낮에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듯 흔들리며 '팔색놀이마당'의 흥을 돋우고, 밤에는 현란한 조명과 미디어 아트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지상 최대의 '팔색'

무도회장'으로 변신한다.

작년 디지털 기술의 환영을 보여준 '디지털 궁'에 이어 기술과 환경,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철학에 근거하여 제작된 '천궁'은 주간에는 5월의 햇살 아래 꽃바람이 공간을 그리는 형상을 선사하고, 어둠이 내리면 구조물에 비춰지는 형형색색의 빛이 새로운 장관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하늘이 열리며 땅과 이어진 '천궁'은 궁궐의 전통적인 장막 '용봉차일(龍鳳遮日)'을 모티브로 삼아 궁정 연회장에 축제의 왕인 시민을 모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왕을 상징하는 용과 봉을 그려 궁정 의례에 사용된 천막인 '용봉차일'을 통해 시공간을 연결하는 소통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전통과 역사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

-꽃분홍길

2일 오후 6시부터 8시, 청계광장에서 출발해 시청광장에 이르는 길놀이 '꽃분홍길'로 축제의 막이 오른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엮어낸다는 의미를 담아 아기 임금님이 구름 가마를 타고 내려오고, '해치', '십장생' 등 전통적인 상징물뿐 아니라 다양한 기구들이 서울의 도심 상공을 희망의 '꽃분홍' 빛으로 물들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길놀이는 단순히 바라보는 관람형의 퍼레이드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인공이 되는 난장 길놀이로 꾸며진다.

-다섯 가지 궁궐이야기

조선 왕조의 영광과 고난의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 오늘의 역경을 이겨낼 의지와 지혜를 배워보는 '다섯 가지 궁궐이야기'는 경복궁 등 5대 궁궐에서 진행된다. 성군 세종대왕의 즉위식을 재현하며 창익적 군주로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세종대왕 이야기'를 시작으로, 강대국을 사이에서 격랑을 헤쳐가야만 했던 대한제국을 주제로 펼쳐는 근대 역사 체험전 '고종, 근대를 꿈꾸다', 시민이 직접 왕가의 일원이 되어보는 '궁궐의 하루', <고궁뮤지컬 -대장금>과 '조선의 맛을 찾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옛 서울을 노래한 판소리 '진국명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8인의 명인들이 펼치는 우리 소리 '배꽃향기 바람에 날리고'(7일), 유러피언 펍키 뮤직과 클래식·국악을 선보이는 '대한제국 만국음악회'(5~9일) 등 전통의 아름다움을 담은 다양한 음악회가 다섯 궁궐에서 시민들을 기다린다.

-나눔청계천

한편 지난 빛축제 기간 희망의 빛을 밝혔던 루체비스타에 이어, 지속되는 불황을 이겨낼 희망과 사랑을 천만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청계천' 자리도 마련된다. 청계광장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 스타들과 후원기업의 재능 나눔의 자리 '여러분 콘서트'가 진행되며, 9일에는 세계적인 구호단체 '월드비전'과 함께 스타 연예인들의 '스타 나눔 콘서트'가 열린다. 또한 사랑의 동전을 모아 키워가는 '사랑의 동전밭'은 축제 기간 동안 적립금 10억 원을 목표로 연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9일과 10일 주말에는 사

※(연) : 연계 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2009 주요 일정표

장소		5.2(토)	5.3(일)	5.4(월)	5.5(화)	5.6(수)	5.7(목)	5.8(금)	5.9(토)	5.10(일)
태평로										
청계천	청계광장	개막길놀이 '꽃분홍길' 18:30~20:00	여러분콘서트 (직장인밴드) 14:00~18:00		여러분콘서트 (신동무대) 14:00~18:00				여러분콘서트 (신동무대) 14:00~18:00	여러분콘서트 (주부가요제) 14:00~18:00
			사랑의 동전밭 5.2(토) 11:00 개막행사 / 5.10(일) 19:00~20:00 폐막행사							
	모전교 ~광교								꽃분홍 나눔장터 11:00~16:00	
		나의 설던 서울은 (*청계천예술축제 연계) 12:00~19:00								
서울광장	팔색놀이마당 12:00~18:00									지구촌한마당 10:00~17:00
	팔색무도회 (5.2~5.9) 20:00~22:00 / 5.2(토) 봄축제 개막행사 및 팔색무도회 1일자 공연									축제폐막행사 20:00~22:00
경복궁	(연)기로연 5.2(토) 14:00, (연)수문장교대의식 5.2(토)~5.8(금) 10:00~15:00 (매 정시 시작) (연)왕실복식체험 5.2(토)~5.8(금) 11:00~15:00									
	(연)상참의 5.3(일)~5.8(금) 11:30 (연)왕가의 산책 5.3(일)~5.8(금) 14:00									
		세종대왕 이야기 16:00~18:00								
창덕궁							배꽃향기 바람에 날리고 15:00~16:00 17:00~18:00			
창경궁					궁궐의 하루 11:00~16:00 21세기 여민락 17:00~18:00(*5.8~9)					
덕수궁					대한제국 만국음악회 고궁음악회 (5.5, 18:00~20:00), 국악과 재즈 (5.6~9, 16:00~19:00)					
	고종, 근대를 꿈꾸다 11:00~18:00									
경희궁					조선의 맛을 찾다 11:00~16:00					
	고궁뮤지컬 '대장금' 20:00~21:40(100분)									
인왕산~서울광장		Walking Palace 13:30~18:00					Walking Palace 13:30~18:00			

용하지 않아 먼저 쌓인 물품들을 다른 시민들과 교환하는 '꽃분홍 나눔장터'가 열린다. 이 장터는 자원을 절약하는 순환적 삶을 실천하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진행되며, 이렇게 모인 사랑의 기부금은 서울시 결식아동과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광복 이후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서울의 기억을 회상하며 내일의 희망을 나누는 거리의 역사박물관 '나의 살던 서울은'이 모전교와 광고 구간에서 진행된다.

2009 우리 동네 문화 가꾸기

-'우리 동네 숨은 예술가 찾기' 희망작가 공모



'2009 우리 동네 문화 가꾸기 -우리 동네 숨은 예술가 찾기'의 프로젝트 리더인 희망작가 단체를 모집한다. 우리 동네 문화 가꾸기는 문화 소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시작된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공공미술 하면 도심 한복판을 차지하는 커다란 작품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 동네 문화 가꾸기가 선보이는 공공미술은 공공을 위한, 공공에 의한 미술이라면 어떤 장르라도 환영한다. 이제까지의 공공미술이 물리적 공공공간을 꾸미는 것을 지칭했다면, 지금부터의 공공미술은 정서적 공간을 윤택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장르의 구분 없이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숨어 있는 끼를 찾아줄 역량 있는 작가 단체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사업설명회 일시 : 2009년 4월 16일 (목) 14:00~16:00

사업설명회 장소 : 서울문화재단 지하(※참가 희망 작가는 사업설명회 필참)

희망작가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09년 5월 1일(금)~11일(월) (※마감일 소인분 유효)
 - 접수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문화재단 4층 문화사업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프로젝트 제안서, 과거 경력 포트폴리오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문의사항 : Tel : 02-3290-7143, E-mail : kirika@sac.or.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동네 문화 가꾸기' 카페(cafe.naver.com/umunga08)를 참조 바랍니다.

다시 시작되는 서울문화예술탐방

-11개 테마로 4월부터 진행

2007, 2008년에 이어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서울문화예술탐방은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금·토·일요일에 총 11개의 테마로 운영된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작년에 비해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목요일에는 서울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미술 이야기를 찾아 나서고, 금요일에는 문자로 기록된 보다 넓은 세상을 탐험하는 문학 탐방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박물관 탐방을 통해 서울의 기록 이야기를 체험 한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2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디자인 명소와 건축 명소를 탐방하며,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족 중심의 탐방도 준비되어 있다. 일요일에는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주제로 탐방이 진행된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새로운 서울을 소개하는 '서울의 오늘' 탐방과 젊음의 메카 홍대 앞을 재발견하는 홍대 앞 탐방으로 서울의 변화하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일요일에는 대학로 연극투어가 함께 운영되어 공연 관람뿐 아니라 극장 내부, 배우의 연습실, 무대 탐방 등을 통해 숨어 있는 대학로의 모습을 살펴보는 기회가 제공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3290-7145로 문의하면 된다.

테마	세부탐방	일정
서울 속 미술이야기	미술관 탐방	둘째 주 목요일
	창작스튜디오 탐방	넷째 주 목요일
서울 속 기록 이야기	문학 탐방	둘째 주 목요일
	박물관 탐방	둘째 주 금요일
서울 속 디자인이야기	서울디자인 탐방	둘째 주 토요일
	건축 탐방	넷째 주 토요일
서울 속 가족이야기	서울역사유적탐방	둘째 주 토요일
	우리동네 탐방	넷째 주 토요일
서울 속 오늘 이야기	서울의 오늘(외국인 탐방)	둘째 주 일요일
	홍대 앞 탐방	넷째 주 일요일
서울 속 대학로 이야기	대학로 연극 투어	둘째 주 일요일(5/9/12월만) 넷째 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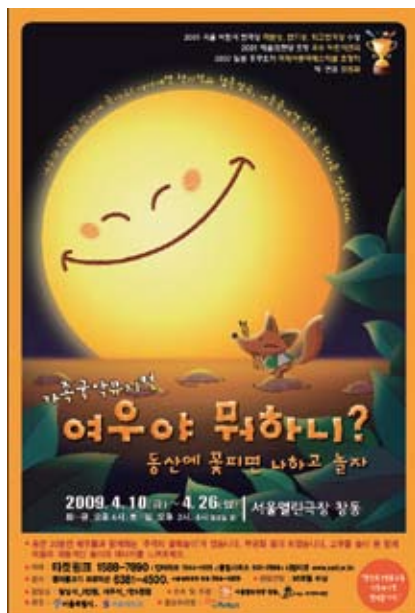
서울열린극장 창동, 4월에도 다양한 공연 마련

해설이 있는 발레 - <국립발레단의 신데렐라>

4월 3일(금)부터 4일(토) 오후 7시 30분에는 해설이 있는 발레 <국립발레단의 신데렐라>가 무대에 오른다. 2005년 성남아트센터 개막 공연작으로 초청되어 많은 화제를 모았던 바로 그 작품이 국립발레단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 2008년 '러비아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안무가상을 수상한 장-크리스토프 마이요의 역작으로, 발레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립발레단의 해설과 함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석 1만 원에 판매되며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가족국악뮤지컬 - <여우야 뭐하니?>

4월 10일(금)부터 26일(일)에는 가족 국악 뮤지컬 <여우야 뭐하니?> 공연이 진행된다. 고목나무 할머니와 달님만이 있는 외로운 언덕에 살고 있는 여우는 우연히 순이가 노는 모습을 숨어서 보게 된다. 순이와 함께 놀고 싶어하는 마음을 안 고목나무 할머니는 여우를 사내아이로 만들어주지만, 곧 여우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들키게 된다. 사라져가는 우리 골목놀이 문화를 찾아보고자 하는 공연으로, 혼자 노는 문화에 익숙한 자녀들의 놀이 문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 시작 30분 전 로비에서는 배우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전통놀이도 진행된다. 평일 오후 4시, 주말에는 오후 2시, 4시 각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36개월 이상이면 입장 가능하다. 관람료는 달님석 2만 원, 여우석 1만5,000 원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빵과 물고기(02-6381-4500) 및 서울열린극장 창동(02-994-1469)으로 문의하면 된다.



4월의 대학로연극투어 -연극 <봄날> 선보여

서울연극센터는 오는 4월 26일(일) 12시30분 서울연극센터에서 <4월의 대학로연극투어 -연극 봄날>을 진행한다. '아르코예술극장의 백스테이지 투어', '이야기가 있는 대학로 산책', '연극 관람', '배우들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대학로 연극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월 23일(월)~4월 12일(일)까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www.daehangno.or.kr)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선정자 발표는 4월 13일(월), 참가비는 1인 1만 원이다



서울 시민의 독창적인 문화정책 제안을 기다립니다 -2009 시민상상날개 아이디어 공모

서울 시민이 직접 문화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시민상상날개 아이디어 공모'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시민상상날개 아이디어 공모 게시판을 통해 진행된다. 올 한 해 진행되는 공모는 서울 시민들이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는 시민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우리가 만드는, 우리를 위한 소통예술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우리와 함께 할 숨은 예술가 어디 없나요?

2009 우리동네 문화가꾸기의 리더가 될 희망작가 단체를 모집합니다!

우리동네 문화가꾸기는 문화 소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시작된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끼와 역량 넘치는 작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① 참여와 소통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마음열기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진, 영상, 미디어, 일러스트, 공예, 북아트, 공연, 연극 등
- ②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공공간 환경개선 프로젝트 (공간 조성 사업)
- ③ 지역 주민들의 제막 축하파티 (나눔과 화합의 장)

사업설명회

일시 : 2009.4.16(목) 14:00~16:00

장소 : 서울문화재단 지하 ※참가 희망 작가는 사업설명회 필참

희망 작가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09.5.1(금)~11(월) ※마감일 소인분 유효

접수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문화재단 4층 문화사업팀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프로젝트 제안서,

과거 경력 포트폴리오 : 6부(원본 1부, 사본 5부)

문의사항

TEL 02)3290-7146, E-mail kirika@sfac.or.kr

※ 자세한 사항은 cafe.naver.com/umunga08 참조



희망
나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서울의 봄 궁에서 피다

60억 세계인과 천만 서울시민이 함께 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서울의 궁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나눔의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program 01.

천만 서울시민의 희망과 나눔이
어울려 하나되는 개막 길놀이

꽃분홍길

● program 02.

하늘의 기운을 담아 미래의 희망이 짓는
축제의 상징

오월의 궁, 천궁

● program 03.

600년 서울의 빛나는 문화유산 '궁'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

다섯가지 궁궐이야기

● program 04.

나눔으로 더 아름답고,
나눔으로 더 행복한 사랑의 축제

나눔 청계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세계적인 문화도시 서울,
2009년 5월 더 큰 희망과 사랑을 나눕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2009. 5. 2- 5.10

서울광장 | 청계천 | 5대 궁궐

주최·주관

Hi Seoul
SOUL OF ASIA

서울문화재단

문의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서울이외 지역은 02-120)

www.hiseoulfest.org



환상목욕탕 그 아래에서 130x160, 2008

한국인이란 누구에게나 익숙한 동네 공중목욕탕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환상목욕탕〉은 〈바리메디온 (發利-medion)〉이라는 가상의 중간자적 존재들이 등장하여 '때를 밀어주는' 치유와 환상의 내러티브가 중첩되어있는 공간이다. '물'과 '목욕탕'이 가진 신화적·종교적 상징을 바탕으로, 각자 마음 깊이 뿌리박혀 있던 아픔과 탄식, 외로움 등을 아무런 편견과 의심 없이 떨어내 버릴 수 있는 장소로써 존재한다. '치유와 정화 그리고 재생'을 은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물과 구름들, 물고기, 해태, 용 등의 전통적 상징들이 재해석되어 겹쳐있고, '어떤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귀의 숲', '눈물을 실 삼아 엮어 만든 목욕탕 입구'등이 펼쳐진 이 공간은 우리에게 단순한 '감상'의 공간을 넘어서 동감과 정신적 치유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김 정 향

2004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한국화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 전공 졸업

2007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화 전공 졸업

2009

31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2008

서울문화재단 NA·T 젊은예술가지원프로그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데뷔프로그램

2007

SOMA Drawing Center 제 2기 작가

월간 Public Art 표지작가 선정

Solo Show

2008

'더더욱 신이 나서 과장하여 떠들 수 있었다.-환상목욕탕 기행 #2', 예술공간_HUT, 서울

'환상목욕탕 기행 #1', 송은갤러리, 서울

Selected Group Show

2008

I M ART & Artists II, II M ART, 서울

불편한 자화상, 신한갤러리, 서울

2007

Virtual Self, KIMI ART, 서울

2006

5th Funny Sculpture! Funny Painting!, 갤러리 세줄, 서울